

뮤지컬
전문 프로듀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결과보고 자료집

K-MUSICAL PRODUCERS' WORKSHOP IN NYC/LONDON 2024

뮤지컬 전문 프로듀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결과보고 자료집 2024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예술경영지원센터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영국권역

권보라 김민정 김민형 김소희
김아름 김정인 서윤미 성재준
이성모 이예지 최종혁 홍지원

미국권역

고하나 유인수 이윤희 이응규
조기쁨 조윤진 추은지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예술경영지원센터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예술경영지원센터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뮤지컬 전문 프로듀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K-MUSICAL
PRODUCERS'
WORKSHOP
IN NYC/LONDON
2024**

Contents

1.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개요	04
2. 영국 권역 연구 보고서	06
3. 미국 권역 연구 보고서	148
4.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242
5. 이동진 비켜, 명징하게 직조한 작품 감상평	262
6. 크레딧	276

뮤지컬 전문 프로듀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영국과 미국 현지 파트너와의 프로그램 협력 개발을 통해 한국 뮤지컬 전문 프로듀서의 글로벌 프로듀서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국제 협업 프로젝트 역량 및 해외진출 발판 마련을 위한 뮤지컬 전문 프로듀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선정 프로듀서는 미국 브로드웨이와 영국 웨스트엔드 등 뮤지컬 주요 시장을 현지 조사하며, 진출 목표 시장을 파악하며 한국 뮤지컬의 해외진출 방안을 연구하고,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 뮤지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합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영국 12인, 미국 7인 총 19인의 프로듀서가 각각 약 2주간의 현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결과자료집은 권역별 공통 연구 주제 미국/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와 프로듀서 각자의 관심도, 작품 준비도 및 진출 단계 등을 반영한 개별 연구 결과를 수록하였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명 뮤지컬 전문 프로듀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K-Musical Producers' Workshop

참가대상 한국 뮤지컬의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뮤지컬 전문 프로듀서

파견권역 및 일정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 일대 | 2024년 7월 22일 ~ 8월 3일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일대 | 2024년 10월 15일 ~ 10월 27일

프로그램 구조 [3단계 구조] 핵심 역량의 전략적 강화를 위해 ①교육-②연구·조사-③네트워킹 3단계로 프로그램 구성

3단계 구조			
단계	교육	연구·조사	네트워킹
사전 준비	사전 컨설팅	현지 연구 주제 발굴	네트워킹 대상 사전조사 및 전략 수립
현지 파견	전문 교육기관 교육	⊕ 공통 연구 및 개별 조사 ⊕	현지 주요 인사 네트워킹
정보 환류	결과모음집 발간		결과 공유회 개최

NAMT 참관 지원

미국 권역 선정 프로듀서 전미뮤지컬극장연합(NAMT, National Alliance for Musical Theatre) 뉴 뮤지컬 페스티벌(New Musical Festival) 참관을 지원합니다. NAMT 뉴 뮤지컬 페스티벌은 미국 주요 뮤지컬 극장, 프로듀서, 창작진 등이 대거 참석하는 최대 규모 뮤지컬 행사로, 매년 8개의 창작뮤지컬을 선정하여 낭독 쇼케이스 형태로 소개합니다.

주요 미팅

- 영국** 영국 내셔널 시어터(National Theatre), 나이맥스 극장 그룹(Nimax Theatres), 더 스테이지(The Stage) 등
- 미국** 미국 퍼블릭 시어터(Public Theater), 뉴욕 시어터 워크숍(New York Theatre Workshop), 콩코드 시어트리컬(Concord Theatricals), 유진 오닐 극장(Eugene O'Neill Theater Center) 등

영국 권역 연구 보고서

권보라

김민정

김민형

김소희

김아름

김정인

서윤미

성재준

이성모

이에지

최종혁

홍지원

영국 권역 연구 보고서

* 본 모음집 내 정보의 정확도, 사실관계 확인 등의 책임은 원고별 각 저자에게 있습니다.
* 별도의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이미지의 저작권은 각 원고 저자에게 있습니다.

권보라	공통 연구 보고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개별 연구 보고서 영국 문화예술계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	11
김민정	공통 연구 보고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창작 개발 프로세스 BEAM 쇼케이스 중심으로 개별 연구 보고서 영국 뮤지컬 산업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실행 사례 연구	23
김민형	공통 연구 보고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웨스트엔드와 멀어지고 가까워지기 개별 연구 보고서 해외 관객과 뮤지컬이 효과적으로 만나는 방법 -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외의 모습을 보인 영국 시장	41
김소희	공통 연구 보고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새로운 도전과 혁신 개별 연구 보고서 수익성 중심의 웨스트엔드 대관과 제작 - 나이맥스 시어터스(Nimax Theatres)의 비즈니스 모델	49
김아름	공통 연구 보고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웨스트엔드 공연, 그리고 뮤지컬 <마리 퀴리 Marie Curie>에 담긴 다양성과 포용성 개별 연구 보고서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 My Bucketlist> 영미권 진출을 위한 준비	59
김정인	공통 연구 보고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개별 연구 보고서 영국 신축 공연장의 주요 특징 - 가변형 극장(Flexible Theatre)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67

서윤미	공통 연구 보고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영국의 신작 개발 개별 연구 보고서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영미권 허브로서의 영국 시장	81
성재준	공통 연구 보고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개별 연구 보고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을 통한 한국 뮤지컬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연구	89
이성모	공통 연구 보고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들로 가득한 ‘뮤지컬 테마파크’ 개별 연구 보고서 국내 공연의 영국(웨스트엔드) 진출을 위한 전략 연구 - 연극 <인계점>을 중심으로	97
이예지	공통 연구 보고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개별 연구 보고서 영국 공연장의 수익 구조와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연구	107
최종혁	공통 연구 보고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개별 연구 보고서 영국 해외 개발과정에 대한 연구 - 한국 창작뮤지컬 개발 사례와 비교를 통하여	123
홍지원	공통 연구 보고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2024년 영국 뮤지컬 시장의 현재 개별 연구 보고서 영국의 극장 접근성 리서치 -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관객을 만나고 있나	129

영국 권역 연구 보고서

**K-MUSICAL
PRODUCERS'
WORKSHOP
IN NYC/LONDON
2024**

권보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2024년 프로듀서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약 2주간 다양한 세션에 참여하며 런던 웨스트엔드 현장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다. 웨스트엔드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프로듀서뿐만 아니라 민간 극장 관계자, 국립극장 투어 및 관계자 등 여러 전문가와의 만남은 한국 공연 생태계와의 비교뿐만 아니라 영국 프로듀서들이 어떤 내용을 고민하는지까지 폭넓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과 나눈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영국의 뮤지컬 시장의 현 트렌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웨스트엔드에 불어온 일본 콘텐츠 바람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시 미야자키 하야오(Miyazaki Hayao)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연극화한 <스피리티드 어웨이 Spirited Away>(Tokyo, 2022)가 흥행몰이 중이었다. 이 작품은 토호 창립 90주년을 맞이해 일본에서 2022년 2월 초연된 후 웨스트엔드로 진출했다. 현재 웨스트엔드에서는 원작대로 일본어로 공연을 올리고 영어 자막을 제공한다.

이 작품 외에도 일본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 My Neighbour Totoro>(London, 2022) 역시 2022년 10월 로열세익스피어 컴퍼니와 공동제작해 런던 바비칸센터에서 초연을 올린 뒤 호평을 받았다. 참고로 이 작품은 내년 2025년 3월에 웨스트엔드에서 재공연될 예정이다. 그밖에 일본 만화 시리즈 원작인 <4월은 너의 거짓말 Your Lie in April>(Tokyo, 2022)은 브로드웨이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Frank Wildhorn)이 음악을 맡아 뮤지컬로 제작된 뒤, 2022년 5월 도쿄 초연 이후 2024년 6월 웨스트엔드와 한국에서 동시 개막해 8월까지 공연되었다.

전반적으로 영국 웨스트엔드는 코로나 이후 관객층의 변화에 따라 수익성 면에서 안전하고 다양한 취향의 젊은 관객층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작품을 찾는 듯 보였다. 그 대안으로 일본 콘텐츠의 영국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흥행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듯하다. 한국 뮤지컬의 웨스트엔드 진출이 본격화되는 요즘, 이러한 변화는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이라고 생각된다. 영국 웨스트엔드 진출에는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와 세계인이 이미 알고 있는 히트한 콘텐츠들이 더 유리해 보인다.

두 번째, 공공과 민간 극장의 뮤지컬 제작 플랫폼 역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극장을 방문하고 공연을 관람하며 민간과 공공극장이 영국 공연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으나 여러 세션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된 극장 중 하나가 바로 셰필드 극장이었다.

1971년에 개관한 셰필드 시어터스 그룹(Sheffield Theatres Group)은 크루시블 극장(Crucible Theatre), 라이시움 극장(Lyceum Theatre), 플레이하우스 극장(Playhouse Theatre)으로 구성된 공연 제작 전용 극장이다. 셰필드 극장은 공연 제작과 창작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더 뱅크(The Bank)와 뱅크 코호트(The Bank Cohort), 롤링 레지던스(Rolling Residences) 등을 운영한다.

먼저 2019년 11월 인재 개발 전용 크리에이티브 허브로서 문을 연 더 뱅크는 지역 예술가와 극장 제작가가 셰필드 극장의 지원을 받아 협업을 통해 작품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이다. 또한 뱅크 코호트는 감독, 프로듀서, 작가를 위한 인재 개발 프로젝트로, 지역의 초기 경력 창작자들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10개월 동안 연습 제작 및 멘토링과 워크숍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롤링 레지던스는 프로젝트나 아이디어 개발에 공간과 자금 혜택을 제공하는 창작자 지원 프로젝트다. 대본 초안을 만들거나 새로운 공동 작업자와 함께 실험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더 발전된 프로젝트를 위한 R&D 자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셰필드 극장을 통해서 개발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뮤지컬 <제이미 Everybody's Talking About Jamie>(Sheffield, 2017)와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 Life of Pie>가 있다. 그중에서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는 2019년 6월 셰필드 극장에서 초연한 후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2021년 11월 런던 웨스트엔드 윈덤 시어터(Wyndham's Theatre)에서 다시 막을 올렸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로렌스 올리비에상(Laurence Olivier Awards)에서 최우수 신작을 포함해 5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미국 투어 중으로 2025년 11월 한국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주목받은 작품으로는 <스탠딩 앳 더 스카이스 엣지 Standing at the Sky's Edge>(London, 2019)가 있다. 60년 동안 3대에 걸친 영국 파크힐 주민들의 희망과 꿈을 기록한 작품으로 셰필드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리처드 홀리(Richard Hawley)의 음악으로 만들어졌다. 2019년 셰필드 극장 초연 이후 2022년 같은 극장에서 재공연되고 2023년에는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에서 관객들을 만났다. 영국 국립극장과 셰필드 극장이 공동제작한 이 작품은 지난해 2024년 2월부터 6개월간 웨스트엔드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로렌스 올리비에상(Laurence Olivier Awards)에서 최우수 뮤지컬 제작상과 사우스뱅크 스카이 아트 어워드를 수상했는데, 직접 현장에서 관람했을 때 음악극에 가까운 형태로 아름다운 음악과 잔잔한 감동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이처럼 지역의 공공극장이 꾸준히 공연 제작을 위해 지역 예술가들을 육성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해 런던 웨스트엔드는 물론 해외진출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일이다. 국내 지역 문예회관 중 제작 시스템을 갖춘 극장을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느껴진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극장은 서더크 플레이하우스(Southwark Playhouse)다. 1993년 설립 이래로 런던 오프 웨스트엔드의 주요 극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주로 새롭게 떠오르는 작품을 선보인다. 현재 세 개의 극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품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극단 활동 및 글쓰기 활동 등의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작품 제안을 받아 선정된 작품에게는 프로덕션, 티켓팅, FOH 및 마케팅이 포함된 패키지 지원을 해준다.

지금도 이 극장을 통해 많은 작품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 최근 대표작으로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London, 2019),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London, 2019)이 있다. 두 작품 모두 서더크 플레이하우스(Southwark Playhouse)에서 초연되었으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는 2024년 10월부터 웨스트엔드에서 공연 중이다.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은 2023년 3월 웨스트엔드 포춘극장에서 프리뷰 공연을 시작한 뒤 관객과 비평가로부터 극찬을 받은 후 여러 차례 연장하였고 2024년 4월 웨스트엔드로 진출한 뒤 별 5개 이상의 리뷰를 67개 이상이나 받아 웨스트엔드 역사상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쇼 중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작품 개발에 힘써 단계적으로 웨스트엔드 진출까지 모색하는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 향후 국내 작품들의 웨스트엔드 진출 시 지역 제작 극장과의 협업을 통해 작은 규모의 작품에서 출발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긴 호흡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인종과 성별을 넘나드는 다양성

최근 들어 해외 뮤지컬에서 유색 인종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는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2021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London, 1986)의 크리스틴 역에 흑인 여성 배우 루시 세인트루이스(Lucy St. Louis)가 캐스팅되어 큰 이목을 끌었다. 또한 올해 5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런던 요크공작 극장에서 공연한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역할에 BBC 코미디 시리즈 <배드 에듀케이션 Bad Education>에 출연했던 흑인 여배우 프란체스카 아메우다 리버스(Francesca Amewudah-Rivers)가 캐스팅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로미오 역을 영화 <스파이더맨>의 톰 홀랜드(Tom Holland)가 맡으면서 SNS를 중심으로 더 큰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공연 제작사는 공식 SNS를 통해 “이제 그만 멈춰달라”며 “우리가 함께 일하는 예술가들이 인종차별 없이 작품을 창작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구성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크고 작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유사한 사례로 뮤지컬 <투 스트레인저스 Two Strangers>(Ipswich and Northampton, 2019) 역시 여자 주인공은 듀조나 기프트(Dujonna Gift)라는 흑인 여성이 맡고 남자 주인공은 샘 튜티(Sam Tutty)라는 백인 남성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영국 공연계가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게 된 데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 특히 영국 국립극장은 다양성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돋보이는 기관이다. 성별, 인종, 장애, 섹슈얼리티, 사회 경제적 배경, 신앙 및 연령 분야에서 다양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021~22년에는 작가의 50%가 여성이었고 출연자의 50%가 여성이었으며 작가의 35%, 출연자의 36%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The Global majority) 구성되었다. 직원 구성에서도 2021년~22년에 이미 직원의 18%가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조직되었고 직원의 57%가 여성이었으며 성별 임금 격차는 5% 미만이었다. 영국 예술의 핵심 공공기관인 국립극장에서부터 이러한 다양성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국내 공연계에서도 여성 창작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티켓 파워를 지닌 여배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장애 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 및 공연 참여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 중에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장애인, 성소수자들의 공연 참여는 소수에 불과하다. 2023년 통계 연보를 보면 체류 외국인은 250만 7천 584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하며 다문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국내 공연계에서도 앞으로 이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더 폭넓게 논의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장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본 영국 웨스트엔드 트렌드 외에도 2주간의 프로그램 참여 기간동안 관계자들과의 교류 및 웨스트엔드의 현 흐름을 바탕으로 서울시뮤지컬단의 창작 개발 작품의 진출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서울시뮤지컬단은 국내 유일의 공공 뮤지컬단으로, 그동안 라이선스 중심의 뮤지컬을 선보이던 것에서 벗어나 창작뮤지컬 제작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창작뮤지컬 5편을 무대에 올릴 수 있었는데 그중 디바이징 연극 방식으로(Devising Theatre) 제작한 50대 중년 여성의 제2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뮤지컬 <다시, 봄> 공연의 해외진출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었다. 2022년 국내 예술경영지원센터 창제작 유통 지원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이 작품은 2024년 올해까지 3년 연속 정기 공연을 올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은 100세 시대, 나이듦과 생애전환기를 맞는 50대 중년 여성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 구조가 있다. 특히 디바이징 방식으로 작품을 개발했던 것을 도입하면 해외 50대 여성의 이야기를 수집해 국외 버전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국내 작품들의 해외진출을 꾀한다면 특히 영국에서는 지역 제작 극장 및 웨스트엔드 서더크 플레이하우스(Southwark Playhouse) 극장 등과 같이 신작 개발에 적극적인 단체와 협업해 현지 창작진과 프로듀서, 배우들과 워크숍을 통한 영국 에디션의 뮤지컬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국 에디션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참여자를 넓혀 다양성을 확보해 더 의미 있는 공연으로 작품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본 프로그램에서 만난 현지 프로듀서들의 이야기 중 가장 와닿았던 것은 그들도 팬데믹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 앞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제작비 증가, 관객의 변화 등 많은 변수로 인해 갈수록 미래를 예측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런던 웨스트엔드는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시장이 안정화 되어가고 있고 국내 뮤지컬 시장도 코로나를 극복하고 멈추지 않고 무대를 올린 결과 여전히 뮤지컬에 대한 관객의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는 사실이다.

한 세션에서 한국 작품의 영국 진출에 대한 의견을 프로듀서에게 톡 던져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 그 프로듀서가 한 말이 인상 깊었다. '웨스트엔드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영국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면 좋겠다는 말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상업적인 민간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뮤지컬을 통한 작품 개발 및 해외진출 가능성과 의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공공 제작 극장으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뮤지컬의 해외진출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할 것인가'와 같은 진실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다.

영국 문화예술계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

전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경제, 문화 등 국제 사회 전반에서 위기 의식을 느낀 채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영국은 이러한 시도와 프로젝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앞서 이루어진 국가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우연히 시어터 그린북(Theatre Green Book, 이하 TGB)의 활동을 알게 되었는데, 기후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매우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 통해 영국의 뮤지컬 트렌드 연구와 함께 기후위기 정책에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기후위기 정책과 현황에 대해 가까이 들여다보고 싶었다.

영국 문화예술계의 기후위기 관련 정책과 변화를 주도한 첫 사례는 오랜 준비 끝에 개발한 TGB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 시작된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라는 비영리 단체는 예술과 문화가 환경과 생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명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 미국에서도 브로드웨이 환경 연합(Broadway Green Alliance)이 결성되어 2011년 줄리의 자전거와 연합해 국제 환경 공연 연합(International Green Theatre Alliance)을 결성하기도 했다.

TGB는 친환경 공연 매뉴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프로덕션 내에 지속가능한 작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2,000여 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컨설팅 활동 중이다. TGB는 공연 제작, 공연장 관리, 공연장 운영 총 3권의 매뉴얼로 구성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세션 강연자로 온 프리랜서 공연 디자이너이자 창조적 기후 리더 및 카본 리터러시 강사로 활동하는 윌 레이놀즈(Will Reynolds)의 강연에서 그린북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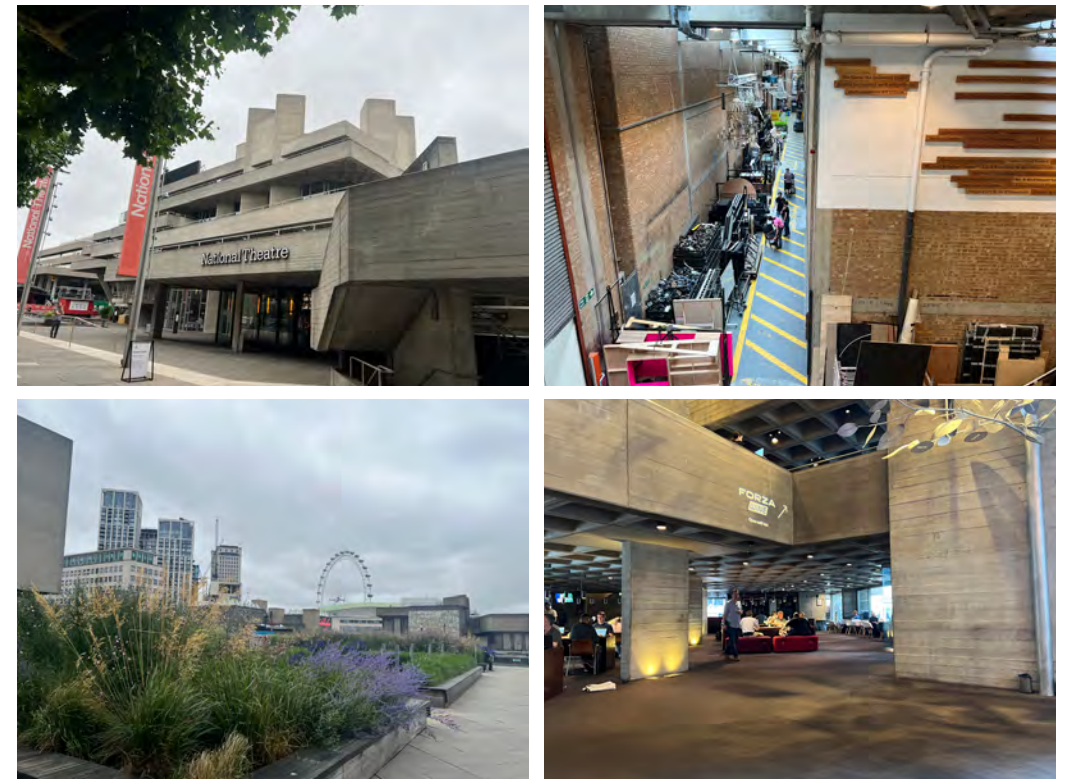
영국의 문화예술계는 영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국립극장,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등에서 TGB와 협력해 탄소배출 제로 세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2년 예술지원 프로그램에 환경 정책을 적용하고 'Let's Create' 전략인 2020-2030에서 투자의 4대 원칙 중 하나로 환경 책임을 제시했다. 이는 세계 최초 주요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함시킨 사례다. 이처럼 영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선도적인 정책으로 영국의 공연예술계는 환경에 대한 변화를 꾀하는 데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의 현황을 들여다보자. 이번 프로그램에서 극장 투어를 진행한 영국 국립극장은 2021년 5월부터 TGB 지침을 고려해 극장 운영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다. 100% 제작 극장인 영국 국립극장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공연 제작 시 50%는 재활용 가능 재료를 사용하고 제작된 재료의 65%를 다음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에너지 배출량을 2024년까지 26%나 줄였고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빗물 수집 탱크를 통해 건물 내 화장실과 극장 등에 물을 공급한다. 지붕 녹화 작업을 통해 양봉을 하여 생물 다양성을 실천하고 커피컵 등 20개 이상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상업용 폐기물의 61%와 전체 폐기물의 58%를 재활용한다. 극장 내 매장 메뉴의 65%가 식물성이고 카페에 개인컵을 가져올 경우 25p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식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첫 5개월 동안 1,748끼의 식사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여 3,167kg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또한 세계 최초의 탄소 네거티브 맥주인 스웰 라거(Swell Lager)를 판매하고 2024년 현재, 직원의 25%에게 탄소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한다. 영국 국립극장의 이러한 노력은 2021년부터 약 3년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다. 단순히 100% 자체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단순히 공연 제작뿐만 아니라 극장 시설 및 운영 전반에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 조금 충격적이었다. 국내 국공립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차이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의 노력이 모여 공연이 제작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렇게 과감히 시도하는 모습은 일면 개인적으로 부러운 측면이 있었다. 국립극장 홈페이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아서 밀러(Arthur Miller)의 <시련>에서 무대 위에 어떻게 비를 내리게 구현했는지 소개한 영상¹⁾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한 대중가수의 흥행쇼와 워터밤 콘서트가 떠올라 마음이 씁쓸했다.

1. <https://www.youtube.com/watch?v=tvNxesAU1IE>



다음으로 영국 음악 산업계를 살펴보자. 거대한 음악 산업과 페스티벌이 발달된 영국은 음악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도 꾸준히 노력 중이다. 그 대표적인 뮤지션으로는 영국의 대표 밴드인 매시브 어택(Massive Attack), 라디오헤드(Radiohead), 콜드플레이(Coldplay)를 들 수 있다.

라디오헤드는 2007년 자기들의 투어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 최초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카본 뉴트럴 월드 투어(Carbon Neutral World Tour)를 시작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한 공연장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관객을 먼저 입장시키고 티켓 구매 단계에서 에코리브리움의 여행 탄소 계산기 정보를 제공했다. 사운드 시스템은 현지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콘서트 물품의 운송도 바이오 연료 트럭을 이용했다. 2012년 라디오헤드가 지산록페스티벌을 위해 첫 내한했을 당시, 그들이 요구한 것은 대기실 주변 및 공연장 전반에 재활용 분리 쓰레기통을 마련해 줄 것, 아티스트 식기는 일회용이 아닌 대화용기로 구비할 것 등 환경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당시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파격적인 요구사항이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콜드플레이는 2019년 새 앨범 <에브리데이 라이브(Everyday Life)>를 발매한 후 콘서트로 인해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이유로 투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2023년 투어에서는 이전 투어(2016~17년) 대비 공연별 직접 탄소배출량을 47%나 감축하고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팬들의 춤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키네틱 플로워 및 파워 바이크를 설치하고 LED 팔찌는 100% 퇴비화 가능한 식물 기반 재료로 제작했다. 팔찌는 매 공연 후 수거해 생산량을 80%나 줄였다. 많은 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계적인 밴드가 오래 전부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공연을 비롯한 음악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 또한 그들의 음악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탄소 제로 축제를 꿈꾸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Fringe)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2011년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Creative Carbon Scotland)를 공동 설립한 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 중이다. 기후위기를 위한 행동 강령에서의 주안점은 축제 방문자의 비행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좀 더 천천히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오래 축제에 머물도록 하는 것, 그리고 축제 스태프 및 공연자 등도 도보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차량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종이 티켓을 없애고 각 팀에 인쇄물 생산량을 줄일 것을 요구해 종이 사용량도 최소화한다.

이 밖에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축제가 끝나고 배출되는 많은 공연 관련 소품과 도구 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왑샵(End of Fringe Swap Shop)을 운영한다. 페스티벌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동안 종이 재활용의 날을 운영하거나 소품, 의상들을 받아 이를 재활용하는 식이다. 이러한 소품은 새 학기 학생들의 생활 물품으로 재활용되거나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도 한다. 또한 리필(Refill) 앱을 통해 에든버러 전역에 식수 리필 스테이를 설치하고 아티스트는 전단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축제 기간 매주 #QuickFlyer Fridays로 트위터 홍보를 요청한다.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그날 트윗한 공연 정보를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에든버러 프린지 지속가능 실천상(Edinburgh Fringe Sustainable Practice Award)도 설립했다. 이 상은 탄소 제로에 대한 관심이 적던 2010년 초반 당시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접근을 시도한 작품에게 수여한 상이었다. 매년 다양한 팀들이 수상하였으나 201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시도 또한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국은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유기적으로 빠르게 인식하고 팬데믹을 기점으로 정책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시행했다. 그 결과 그때의 성과들이 지금의 수치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웨스트엔드 뮤지컬 시장에서는 아직 기후위기 및 탄소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대형 상업 뮤지컬의 프로덕션 운영과 투어링의 현실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지키기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영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공연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국립극단은 2020년부터 '극장은 작은 지구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1년 국립극단은 '기후위기와 예술'이란 주제로 [창작공감: 연출] 사업을 진행했고 그해 전윤환의 신작 <기후비상사태: 리허설>을 선보였다. 또한 같은 해 의상, 소품 등을 전국 90여 개 극단에 무료로 나눠 주는 빨간지붕 나눔장터를 열었다. 그 외에 아르코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내세워 이를 직접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영국에 비하면 여전히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 경영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실적 쌓기,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며, 2024년 가장 길고 뜨거웠던 여름 날씨를 경험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는 아직 그 변화의 중심이 아닌 언저리에서 관망하고 있는 듯 보인다. 공연산업과 관련해 많은 통찰을 얻게 된 이번 연구를 통해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기 시작했다. 대본 출력 줄이기,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소품, 의상, 무대 제작 시 시어터 그린북 지침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찾아 시도해 보기.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창작진, 배우, 스태프 모두가 마음을 모아 여기에 공감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선 자리에서 이런 화두를 던질 수 있을까? 부끄럽고 고민이 많아지는 요즘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요즘 이러한 부채감과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운지도 모르겠다.

* 참고 사이트

<https://www.nationaltheatre.org.uk/about-us/sustainability/>

<https://www.creativecarbonscotland.com/>

<https://www.edinburghfestivalcity.com/about/strategy>

<https://blog.naver.com/chaechiveum/222977508101>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535495&memberNo=22700030&vType=VERTICAL>

<https://www.mainnews.kr/article/view/mnn202302270001>

영국 권역 연구 보고서

**K-MUSICAL
PRODUCERS'
WORKSHOP
IN NYC/LONDON
2024**

김민정

피디스그룹 대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창작 개발 프로세스 BEAM 쇼케이스 중심으로

뮤지컬 창작 개발 프로세스는 현재 뮤지컬 산업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넘어 창의성, 협업, 그리고 비즈니스가 융합되는 복잡한 과정이라 생각하기에 필자는 각국의 창작 개발 프로세스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 국가와 민간에서 다양한 뮤지컬 창작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CJ문화재단의 '스테이지업'은 현재 필자가 대표로 있는 피디스그룹이 3년째 운영을 총괄하면서 각국의 좋은 사례를 한국 상황에 맞게 접목하여 보다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는 중에 있다. 스테이지업은 뮤지컬 창작자들에게 작품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한국 뮤지컬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대중성과 작품성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작품당 한 명씩 전담 프로듀서가 주도하여 작품을 개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미국 프로그램에서는 NAMT(National Alliance for Musical Theatre)에서 열리는 리딩 쇼케이스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NAMT는 미국 전역 혹은 여러 나라의 극장과 프로듀서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네트워크로, 새로운 뮤지컬 작품 발굴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뮤지컬 시장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으며, 특히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한 상업 뮤지컬의 개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작년 리포트 참조)

올해 참가했던 런던 프로그램에서는 빔 쇼케이스(BEAM Showcase) 프로듀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빔 쇼케이스는 머큐리 뮤지컬 디벨롭먼트(Mercury Musical Developments, MMD)라는 영국의 새로운 뮤지컬 작품과 창작자를 지원하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주요 행사 중 하나로, 뮤지컬 창작자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고 업계 전문가들과 창작자들을 연결할 뿐 아니라, 새로운 뮤지컬을 발굴하고 제작 기회를 창출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 영국의 대표적인 뮤지컬 창작 프로세스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예술경영센터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 각국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성, 시장 구조, 그리고 예술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어 글로벌 뮤지컬 산업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의 빔 쇼케이스를 중심으로 그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한국의 뮤지컬 창작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뮤지컬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EAM Showcase에 참가하려면

우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뮤지컬 시놉시스를 구상한 가상의 '헤서원'이라는 작가가 2025년 빔 쇼케이스에 지원하는 방법 및 그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헤서원 작가 프로필

- 국적: 한국
- 경력: 뮤지컬 <내 마음의 피아노> 작가/ CJ토월극장, 뮤지컬 <홍련바리> 작가/ 대학로 자유극장

1. BEAM2025 웹사이트(<https://www.mercurymusicals.com/beam/>) 접속

2. BEAM2025 선정 과정 속지

- 전국의 극장 및 예술 단체와 협력하여 개최한 피칭 데이 참가
- 선택한 극장에서 10분의 피칭
- 최종 단계에서 약 30개의 뮤지컬 중 하나로 선정되면 BEAM2025 쇼케이스 진출

3. 자격 조건 확인

(1) 나이 및 경력

- 18세 이상
- 전문적인 창작 경력 필요
- 최소 1개의 공연예술 크레딧 필요
- 25세 미만 예외, 전문 크레딧 대신 공연예술 전공자로 증명 가능

(2) 참여 대상

- 초기, 중기, 프로 단계의 아티스트 모두 참여 가능
- 뮤지컬 첫 데뷔자부터 웨스트엔드 공연 경험자까지 다양한 경력 수용

(3) 피칭 참여 자격

- 작가 이외에 프로듀서, 감독, 기타 크리에이티브 참여 가능
- 작가가 아닌 경우, 최소 1명의 작가가 피칭에 언급되어야 함

(4) 피칭 제한

- 작가별 팀당 1개 작품만 피칭 가능
- 작가가 여러 팀에 속한 경우, 팀별로 1개 작품 피칭 가능(개별 작품으로 간주)

(5) 지역 요건

- 핵심 창작팀 구성원의 50% 이상이 영국 기반이어야 함

BEAM2025에 참석 가능해야 함(2025년 5월 12일 주간, 버밍엄 힌포드롬(Birmingham Hippodrome))

위의 내용을 확인한 헤서원 작가는 빔 쇼케이스에 지원하기 위해 영국 국적의 작곡가를 섭외하여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마침 영국 유학 중에 만난 작곡가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작품이 있어 일사천리로 과정이 진행된다.

4. 피칭 데이 준비

(1) 쇼의 요건

- 학생 작품/비전문적으로 무대화된 작품은 허용되나 전문 프로덕션에서는 공연한 적이 없어야 함
- 초기 개발 단계도 가능하나 명확한 비전과 더불어 최소 1곡 이상 필요함
- 이전에 BEAM에서 피칭했던 작품은 대폭 수정 또는 확장된 경우에만 재지원 가능

(2) 다양성 추구

- 다양한 범위의 작품 선호
- 영국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작품을 찾을
- 이야기의 주제뿐만 아니라 음악 스타일, 예술 형식의 다양성도 중시함

(3) 저작권 관련

- 피칭하는 뮤지컬은 직접 참여하는 창작자들의 온전한 지적 재산이어야 함
- 외부 저자의 책이나 영화를 각색한 경우, 원 저작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허가가 필요함
- 다른 작곡가의 기존 노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노래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각색이나 기존 노래 사용 시, 피칭 전에 반드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면 피칭이 가능한 날짜와 장소를 찾아 신청해야 한다. BEAM2025를 준비하기 위한 피칭 슬롯은 현재 영국의 20개 지역의 극장 및 단체에서 주최하고 있어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날짜, 시간대에 예약할 수 있다. 피칭에 참여하는 패널들까지 확인할 수 있어 자기 작품을 꼭 선보이고 싶은 프로듀서나 관계자에게 눈도장을 찍을 기회이기도 하다.

Pitching Days			
Cecil Sharp House Thursday 19th September Camden, London Panellists: Katy Spicer (English Folk Dance and Song Society), Ameena Hamid (producer), Hannah Bashir-Eviston (PRS Foundation), Gary Sullivan (Image Media), Natalia Scorer (MMD), James Hadley (MTN). Feedback coordinator: Kate Gollidge FULLY BOOKED	Southwark Playhouse (Elephant) Friday 27th September Elephant & Castle, London Panellists: Ebenezer Samboye (Southwark Playhouse), Andy Barnes (Perfect Pitch/Global Musicals), Meredith Braun (Uni of Chichester), Mickey-Jo Boucher (theatre critic), Natalia Scorer (MMD), James Hadley (MTN). Feedback coordinator: Kate Gollidge FULLY BOOKED	Birmingham Hippodrome Monday 30th September Birmingham Panellists: Deirdre O'Halloran (Birmingham Hippodrome), Jesse Jones (Royal & Derngate), Becky Percy (ACE), Natalia Scorer (MMD), Melody Sinclair-Marsh (MMD). Feedback coordinator: Kate Gollidge Book Now	Mercury Theatre Thursday 3rd October Colchester Panellists: Dilek Latif and Antony Stuart-Hicks (Mercury Theatre), Wendy Ellis (Norwich Theatre), Natalia Scorer (MMD). Feedback coordinator: Martin Jackson (MMD) Book Now
MAST Mayflower Studios Monday 7th October Southampton Panellists: Jamie Smith (MAST), Flora McIntosh (Opera Up Close), James Hadley (MTN). Feedback coordinator: Kate McKeown (MMD/MTN). Book Now	Kiln Theatre Friday 11th October Kilburn, London Panellists: Lisa Cagnacci (Kiln), Clarissa Widya (New Earth), Fiona Steed (Smith Brant Theatricals), Tom Ramsay (Aria Entertainment), Tracy Cooper (LJW3), James Hadley (MTN). Feedback coordinator: Jake Brunger FULLY BOOKED	Donmar Warehouse Monday 14th October Central London Panellists: Craig Gilbert (Donmar), Liz Botros (Mackintosh Foundation), Ramin Sabi (DEM Productions), Chloe Pritchard-Gordon (AboutGrace PRL), James Hadley (MTN). Feedback coordinator: Jake Brunger FULLY BOOKED	Watford Palace Theatre Thursday 17th October Watford Panellists: Ellen Waghorn (Watford Palace), Douglas Rintoul (New Wolsey Theatre), Pravesh Kumar (Rifco), James Hadley (MTN), Sam Morgan-Grahame (MTN). Feedback coordinator: Kate McKeown (MMD/MTN). Book Now

(출처: www.mercurymusicals.com)

5. 피칭 가이드라인

(1) 피칭 시간

- 총 15분 슬롯, 실제 피칭은 최대 10분
- 10분 초과 시 중단

(2) 사전 안내

- 피칭 2주 전 이메일로 최종 참석하는 패널 정보 및 장소 안내
- 접근성 요구사항은 신청 시 기재 요함

(3) 피칭 방식

- 개인, 팀, 또는 공연자와 함께 가능
- 작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

(4) 피칭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창작자/팀 소개
- 쇼 주제 및 스토리 아크(Story Arc) 개요
- 음악 샘플(최소 1곡, 가능하면 라이브 선호)
- 현재 개발 단계
- 캐스트 및 밴드 규모

(5) 피칭에서 고려해야 할 잠재적 예상 질문

- 이 쇼가 당신에게 왜 중요한가? 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나?
- 당신의 관객은 누구인가?
- 관객들이 이 쇼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 쇼에 가장 적합한 전문 프로덕션의 규모는 무엇인가?
(예: 대규모 웨스트엔드 쇼/스튜디오 규모의 실내극 등)
- 빔 쇼케이스가 이 쇼에 적합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 제공 장비

- 음악 재생 장치
- 피아노/키보드(페달 포함)
- 약 5개 정도의 의자
- 일부 장소에서 보면대 제공

(7) 주의 사항

- 추가 장비는 직접 준비
- 모든 셋업은 10분 내 완료

6. 피칭 데이(Pitching day)에 대한 추가 정보

(1) 패널 구성

- MTN(Musical Theatre Network)과 MMD 대표자들
- 최소 2명의 업계 전문가
- 주최 장소의 예술감독/프로듀서/프로그래머
- 지역 아티스트 포함 가능
- 사전 통보하나 변경 가능성 있음

(2) 장소 접근성

- 대부분 휠체어 접근 가능
- 건물 출입구 계단 제외, 모든 장소에서 계단 없는 접근로 제공
- 특별 요구사항은 신청서에 기재 필요

(3) 공연자 동반 관련 사항

- 참가자의 선택사항
- 공연자/음악가 동반 가능하나 관련 비용은 참가자 부담
- 모든 공연은 10분 시간 제한 준수 필요

(4) 평가 관련 안내

- 패널은 초기 단계 작품 평가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구성
- 공연 수준에 대한 과도한 걱정 불필요
- 직접 공연 여부가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출처: www.mercurymusicals.com)

헤서원 작가는 이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피칭 슬롯을 예약했다. 그리고 9월 19일 목요일 런던 캠퍼 지역에 있는 세실 샤프 하우스(Cecil Sharp House)에서 10분 간의 신작 피칭을 마쳤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

7. 피칭 데이 그 이후는?

(1) 피드백 제공

- 피칭 후 3주 이내 서면 피드백 이메일로 제공
- 피드백은 패널리스트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됨
- 선정 과정과는 무관하며 향후 작품 발전을 위한 목적임
- 피드백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령 거부 가능

(2) 선정 과정

- 12월: 모든 참가자에게 쇼케이스 후보 선정 여부 통보
- 1월 중순: 최종 쇼케이스 프로그램 선정 및 통보

(3) 중요 포인트

- 제공되는 피드백은 쇼케이스 선정 여부와 무관하며 차후 작품 개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 선정 과정은 두 단계(후보 목록 선정 → 최종 프로그램 선정)로 진행됨

이 모든 프로세스를 무사히, 그리고 훌륭하게 마친 헤서원 작가는 한국인 최초로 BEAM2025 쇼케이스의 최종 선정자로 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렇다면 2025년 5월 12일 주간에 버밍엄 히포드롬(Birmingham Hippodrome)에서 열리는 BEAM2025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한다.

8. 쇼케이스 준비

(1) 선정 이후 절차

- 10-25분 길이의 쇼케이스 발표 슬롯 제공
- 발표 비용을 포함한 재정 지원(자세한 정보는 명시되지 않음)
- 참가자가 직접 발표 준비(공연자/음악가 섭외 등)
- BEAM 멘토팀의 준비 지원

(2) BEAM 쇼케이스 참관

- 업계 관계자 대상 행사(예술감독, 프로듀서, 프로그래머, 후원자, 교육기관, 출판사 등)
- 작가 및 창작자도 참관 가능
- 다양한 단계의 새로운 뮤지컬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드디어 쇼케이스 날! 30여 개의 작품이 이틀에 걸쳐 영국 뮤지컬 관계자들 앞에서 간단한 피칭을 곁들인 10-25분짜리 공연을 선보였다. 헤서원 작가의 작품도 프로듀서 눈에 띄어 영국에서 데뷔할 수 있을까? 부디 그럴 수 있기를 응원해 본다!

미국의 NAMT VS 영국의 BEAM

NAMT는 미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뮤지컬 쇼케이스 플랫폼으로, 새로운 뮤지컬 작품을 발굴하고 프로듀서들과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행사는 주로 미국 작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양한 국적의 창작자가 만든 작품들도 포함하여 글로벌한 시각을 제공한다. NAMT는 매년 개최되며 약 5-600여 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8개월이 넘는 심사 과정을 거쳐 일반적으로 8개의 작품만을 선정해 리딩 쇼케이스로 선보인다.

선발된 작품들은 45분 길이의 리딩을 미국과 멤버십에 가입된 전 세계 관계자 및 프로듀서 앞에서 선보이게 된다. 직접 참관하여 리딩 쇼케이스를 지켜보니 작품의 핵심을 충분히 전달하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으로 여겨졌다.

NAMT의 주요 목적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적인 뮤지컬 작품을 발굴하고 이를 프로듀서들과 연결하는 데 있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작품들이 더 큰 무대에서 공연될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NAMT에서 발굴된 작품으로는 얼마 전 한국에서도 공연된 <컴프롬어웨이 Come From Away>(Ontario, 2013)를 포함해 다수의 작품이 있다.

BEAM은 2년 주기로 열리는 영국 뮤지컬 쇼케이스 플랫폼으로, 영국 내 새로운 뮤지컬 작품 발굴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쇼케이스는 영국 전역의 뮤지컬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다양한 지역과 배경을 가진 '영국'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BEAM은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약 30편을 선보이는 영국 최대 규모의 신작 뮤지컬 쇼케이스다.

BEAM의 선발 과정은 여타의 쇼케이스에 비해 독특한 편이다. 영국 전역에서 약 20회의 피칭 데이를 통해 300여 개의 작품 중 약 30편을 선발한다. 선발된 작품들은 10-25분 길이의 발체 공연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관계자들에게 소개된다. 이 형식은 작품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다양한 작품을 소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EAM의 주요 목적은 영국 내 새로운 뮤지컬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있다. 영국 국적 참여자가 50% 이상 있어야 한다는 제한 사항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전 BEAM에서 소개된 작품의

60% 이상이 실제 공연으로 이어지거나 추가 개발 지원을 받았다고 하며,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London, 2019)과 <투 스트레인저스 Two Strangers>(Ipswich and Northampton, 2019) 등 현재 웨스트엔드에서 활발하게 공연 중인 작품들이 이 프로세스를 통해 발굴되었다.

<NAMT와 BEAM 비교>		
항목	NAMT	BEAM
지역적 범위	미국 중심이나 전 세계 창작자에게 오픈	영국 중심, 창작자 중 50%는 영국인 필수
개최 주기	매년	2년
규모	8개 작품 쇼케이스	30-40개 작품 쇼케이스
선발 과정	전 세계에서 접수된 약 600개 작품 중 선발	영국 전역 피칭 데이를 통해 300개 작품 중 선발
쇼케이스 형식	45분 길이의 공연	10-25분 길이의 발체 공연, 프레젠테이션
주요 목적	미국 및 국제적 뮤지컬 작품 발굴, 프로듀서 연결	영국 내 새로운 뮤지컬 발굴 및 개발, 프로듀서 연결
특징	국제적 무대 제공	영국 뮤지컬 산업 특화
성과	<Come From Away>, <The Drowsy Shapron>, <It Should Been You> 등	<Operation Mincemint>, <Two Strangers> 등

한국 뮤지컬 창작 프로세스 제언

1. 접근성 높은 초기 피칭 단계 도입

현재 한국의 뮤지컬 공모전은 전막 대본과 5곡 이상의 음악을 요구하여 초기 창작자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프로 창작자들에게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BEAM의 가벼운 접근 방식을 참고하여 초기 단계에서는 10분 내외의 간소화된 피칭 세션을 도입하는 프로세스 단계 혹은 플랫폼이 생긴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세션에서는 작품의 주제, 핵심 아이디어, 간단한 시놉시스, 그리고 작품을 대표하는 한 곡 정도만을 선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창작자가 부담 없이 자기 아이디어를 피칭할 수 있으며, 업계 전문가들의 초기 피드백을 받아 작품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굴과 함께 창작자들의 점진적인 성장을 도모할 기회가 될 것이다.

2. 탈서울 피칭 데이 진행

현재 한국 뮤지컬 시장은 서울 중심으로 공연과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유사 플랫폼을 운영 중이나 전국적 규모의 다양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피칭 데이를 개최하는 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제작 극장, 문화재단, 예술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뮤지컬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의 창작자들이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피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국 단위의 피칭 세션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등 지역 창작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나아가 선별된 작품의 전국 순회 쇼케이스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양한 지역 창작자들의 창의적인 작품이 전국적으로 소개될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단계별 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협의

현재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개발 프로그램이 일정 기간의 디벨롭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전막 또는 1막 리딩 쇼케이스로 진행되는 획일화된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플랫폼은 초기 아이디어 발전에 집중하고, 다른 플랫폼은 테이블 리딩 단계까지의 극작을 지원하며, 또 다른 플랫폼은 전막 개발과 쇼케이스를 담당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워크숍이나 트라이아웃 단계까지 지원하는 플랫폼도 있다면 금상첨화겠다.

이러한 다양한 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자들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 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 뮤지컬 시장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영국 뮤지컬 산업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실행 사례 연구

워크숍 전 영국에서 유학 중인 지인의 페이스북에서 본 한 장의 사진 덕에 다양한 관객층을 포용하려는 정부와 극장의 노력에 대해 생각하게 된 적이 있었다. 그 이미지를 통해 어느 특정 그룹만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예술을 향유케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영국 공연예술계 안에서는 어느 지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도 적용할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크게 소재, 캐스팅, 관객 문화 및 접근성 이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출처 : English National Opera 페이스북

1. 소재

(1) <식스 Six>(Edinburgh, 2017)

헨리 8세의 6명의 전(前) 부인들을 현대적 팝 아이콘으로 재해석한 뮤지컬로,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면서, 여성 권한 강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역사적 인물을 연기하는 '컬러-블라인드 캐스팅'을 적용하여 인종적 다양성도 반영했다고 평가받는다.

(2) <제이미 Everybody's Talking About Jamie>(Sheffield, 2017)

이 작품 역시 같은 해인 2017년에 초연된 작품으로, 10대 드래그 퀸(Drag queen)을 꿈꾸는 게이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뮤지컬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경험을 주류 무대에서 다루며 성 정체성, 자아 발견, 사회적 편견 극복 등의 주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3) <캐롤라이나, 혹은 변화 Carolina, or Change>(2003)

이 작품은 <캐롤라이나, 혹은 변화 Carolina, or Change>(2003)라는 제목의 뮤지컬로 토니 쿠시너(Tony Kushner)가 대본을, 지닌 테소리(Jeanine Tesori)가 음악을 맡았다. 1963년 루이지애나를 배경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정부와 그녀가 일하는 유대인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인종차별, 경제적 불평등, 사회 변화 등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미국 남부 사회를 섬세하게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둔다.

(4) <프롬 The Prom>(Georgia, 2016)

미국에서 만들어진 작품이긴 하지만 영국에서도 공연된 적이 있기에 소개하자면 소도시 레즈비언 고등학생의 프롬 참석에 관한 뮤지컬이다. 이 뮤지컬은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험과 사회적 수용 문제를 중심 주제로 삼아 세대 간 갈등, 편견 극복, 포용성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성소수자 권리 옹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 <리어 King Lear>(London, 2007)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버전으로 주인공인 리어를 청각장애인으로 설정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과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수화와 음성 언어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공연을 만들어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험을 주류 무대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받는다.

(6) <앤줄리엣 & Juliet>(Manchester, 2019)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로미오의 서사보다 줄리엣의

시선에서 스토리가 진행된다. 여성 주인공의 자아실현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인종과 성 정체성을 가진 캐릭터들을 포함했다. 또한 젠더 고정관념을 깨는 캐스팅과 스토리라인을 채택하여 다양성의 가치를 무대에서 구현했다.

(7) <라이프 오브 파이 Life of Pie>

연극의 사례로는 얀 마텔(Yann Martel)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라이프 오브 파이>를 들 수 있는데 인도 청년 파이의 생존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배가 침몰한 후 호랑이와 함께 구명보트에서 표류하는 파이의 모험을 그리면서 종교, 믿음, 생존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제공한다. 특히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캐릭터들을 통해 종교적 다양성을 다루고 있다.

위 작품들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인종, 종교, 장애 등 다양성의 여러 측면을 무대에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 전통적으로 소외되거나 주목받지 못했던 그룹(여성, 성소수자, 다양한 인종 및 종교를 가진 자 등)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빔 쇼케이스 담당자는 세션 진행 시 자신의 단체에서도 영국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소재의 작품을 찾고 있으며, 최종 선발된 작품도 이러한 측면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밸런스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영국 공연예술계에서의 이러한 흐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관객들에게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캐스팅

<인종 다양성 사례>

(1) <해밀턴 Hamilton>(2015)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다룬 이 작품은 의도적으로 유색인종 배우들을 주요 역할에 캐스팅하였고, 런던 공연에서도 이 전통을 이어받아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다.

(2) <식스 Six>(Edinburgh, 2017)

컬러 블라인드 캐스팅 제도를 이용해 역사적으로 백인이었던 헨리 8세의 왕비들을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연기하게 했다. 주요 역할들은 흑인이 맡았으며, 영국에서는 아니지만 브로드웨이에서는 아시아계 배우도 출연했다. (필리핀계 캐나다인 안드레아 맥카셋(Andrea Macasaet)이 앤 불린 역을 맡음)

(3)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London, 1986)

2021년 공연 때 루시 세인트루이스(Lucy St. Louis)가 크리스틴을 맡아 이 역할을 연기한 최초의 흑인 배우로 기록되었다.

(4) <코러스라인 A Chorus Line>(1975)

2021년 런던 공연에서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캐스팅되었으며 특히 아시아계 배우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영국 공연의 사례는 아니지만 뮤지컬 <하데스타운 Hadestown>(Barre, 2006)은 2021년 브로드웨이 공연에서 밴드, 브로드웨이 뮤지션 고용에 있어 인종 및 성별 다양성 추구하는 공정성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하데스타운 밴드는 백인 음악가들, 특히 백인 남성이 브로드웨이에서 누려온 특권적 지위를 인정합니다.
- 브로드웨이 공연 재개 시, 5명의 대체 연주자 중 최소 2명을 유색인종으로, 그중 1명은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임명할 것을 약속합니다.
- 각 단원은 최소 2명의 여성을 선택할 것입니다.
- BIPOC(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음악가들에게 브로드웨이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다른 브로드웨이 오케스트라들도 이를 따르고, 음악 코디네이터들이 50% BIPOC 인사를 고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아직은 그리 많지 않지만 이러한 작은 발걸음이 백인 위주의 시장에서 실력 있는 여러 다인종 예술가가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의 배우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관객에게는 더 풍부한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장애 배우 캐스팅 사례>

(1) <더리틀빅딩스 The Little Big Things>(London, 2023)

CJ ENM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작품에서는 휠체어를 타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다. 이는 3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2) <스프링 어웨이크닝 Spring Awakening>(2006)

2015년 영국 데프 웨스트 시어터(Deaf West Theatre)에서 공연된 작품에는 벤들라, 모리츠 등의 주요 배역을 청각장애인 배우가 연기하고, 각 캐릭터의 목소리는 비장애인 배우가 연기한 사례가 있다.

(3) <하데스타운 Hadestown>(Barre, 2006)

현재 영국에서 공연 중인 <하데스타운 Hadestown>을 관람했을 때 일꾼 중 하나로 출연한 여자 배우 한 명이 한쪽 팔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엔 인지하지 못했다가 춤추는 장면에서 발견한 뒤부터는 더 세심하게 보았다. 장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최선을 다해 무대 위에 서 있는 그녀를 보니 왠지 뭉클했다. 누구나 설 수 있는 곳이 바로 무대이기에 더욱더 응원하게 되었다.

3. 관극 문화 및 접근성

런던과 브로드웨이 모두 한국과는 다르게 비교적 자유로운 관극 경험을 허용하는 편이다. 특히 런던 웨스트엔드의 주요 공연장에서는 관객의 편안함과 공연 몰입을 중시하면서도, 관객이 공연을 즐기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객이 공연 중간에 자리를 떠나거나 돌아다니는 것에 큰 제재가 없고, 공식적으로는 공연 중 사진 촬영이 금지되지만, 대놓고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보였다.

또한 인터미션에는 간단한 스낵이나 음료, 술을 사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극 <기묘한 이야기 Stranger Things: The First Shadow>(2023)를 보러 갔을 때는 팝콘도 판매하고 있어 집중이 필요한 순간 팝콘 봉지의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아그작 씹는 소리 모두를 감내하며 관람하기도 하였다. 사실 웨스트엔드에서도, 브로드웨이에서도 이러한 자유로운 관극 문화가 일반적이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충성도 높은 마니아층이 등장하면서 관극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소위 시체 관극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개요에서 언급하였듯 영국의 릴렉스드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2000년대 초반,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주로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과 학습 장애, 감각 처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연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사항부터 조명과 음향을 조정하여 덜 자극적인 환경을 만든다거나 관객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도 무방한 관극 환경 조성을 포함한다. 때때로 조용한 공간이 제공되어 필요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Royal Shakespeare Company)에서는 정기적으로 릴렉스드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고, 웨스트엔드의 <라이온 킹 The Lion King>(Minneapolis, 1997), <위키드 Wicked>(San Francisco, 2003), <마틸다 Matilda the Musical>(Stratford-upon-Avon, 2010) 같은 뮤지컬 공연에서도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에서도 아주 적은 수의 일부 회차에서만 가능했으며 다양한 단체의 후원과 기부로 좀 더 저렴하게 티켓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접근성에 관해서도 짧게 이야기해 보자.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에서 접근성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벨우드(David Bellwood)와의 미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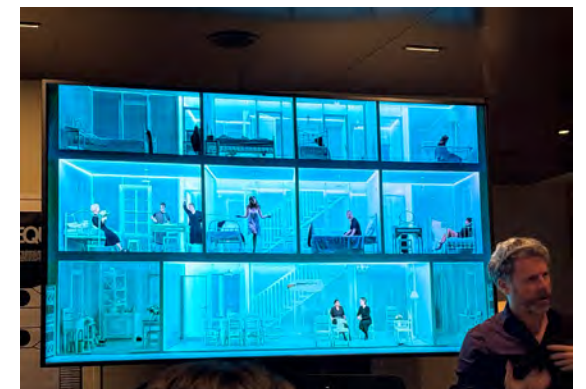
- 극장에 온라인 관객을 포함해 연간 7,150만 명이 방문하는데 그중 20%가 장애인 관객. 온라인으로 접속한 장애인 관객까지 포함하는 디테일에 놀람.
- 극장의 어원이 '보다, 듣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사람도 극장에 올 수 있는가?
-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는 대상은 관객뿐 아니라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 배우, 공연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임. 단순히 관객뿐 아니라 극장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함에 2차 놀람.
- NT의 접근성은 2010년에 발제가 이루어진 영국의 평등법에 근간을 두고 있고, 이 카테고리들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의 주요 핵심임.
- 그리하여 국립극장에서는 의학적인 기준에서의 장애가 아닌 사회적인 정의에서의 장애를 바라봄. 아래는 영국에서 말하는 장애의 정의임.

You're disabled under the Equality Act 2010 if you have a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that has a 'substantial' and 'long-term' negative effect on your ability to do normal daily activities.

2010년 평등법에 따르면, 당신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상당한' 그리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있는 경우 장애인으로 간주합니다.

- 언어가 장벽이 될 수도 있고 의사소통 부재나 난독증 같은 것도 장애가 될 수 있음. 또한 제도적으로도 태도적으로도 진입 장벽이 발생한다고 함.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들 같은 것들도 포함됨.
- 그리하여 접근성 매니저는 진입 장벽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임.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질문하면서 접근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갇혀있던 나의 사고를 확장해 주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미팅이었다.



마무리

공연예술 산업에서 '다양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가 인종, 성별, 계층, 능력 등에 있어 다양성을 더욱 중시하는 추세이며, 이에 맞춰 공연계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다양한 관객과 창작진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포용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또한 창의성과 신선함 제고를 위해서도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동질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작품의 소재와 표현 방식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고 이러한 다양성은 공연 콘텐츠에 신선한 시각을 불어넣는다. 관객들이 다양한 작품을 더욱더 선호하는 추세이며 같은 소재라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재해석한 작품에 열광하는 현상도 관찰된다.

또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 측면이 있다.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 좀 다른 경향이 있지만 과거의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에서는 특정 인종, 성별, 신체 조건을 이유로 출연이나 창작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양성 추구는 이러한 차별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객 저변 확대 및 상업적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배경의 관객을 공연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양성 확대는 예술성, 공정성, 상업적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작금의 공연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하려는 영국 공연예술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런던에서 지켜본 바로는 여러 공연에서 여전히 흑인 여주인공과 백인 남주인공의 조합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무대 뒤 스태프나 제작진 역시 여전히 백인 중심의 커뮤니티 같다는 인상을 받아 이러한 다양성을 위한 노력이 형식적인 구색 갖추기에 그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다.

모든 것이 단번에 바뀔 수 없기에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 중이라고 믿고 무대 위의 다양성뿐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듯싶다.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 공연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과제이다. 프로듀서 커뮤니티가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실현되는 공연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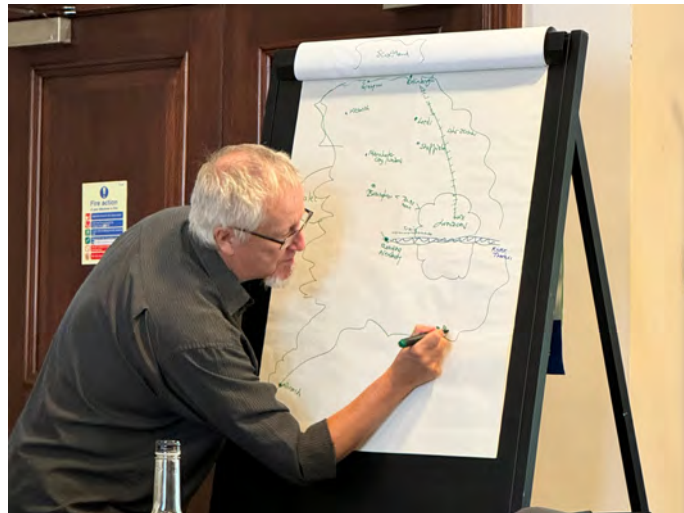
김민형

엠제이플래닛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웨스트엔드와 멀어지고 가까워지기

영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한국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웨스트엔드에서 공연 중인 대표적인 뮤지컬로는 <라이온 킹 The Lion King>(Minneapolis, 1997), <위키드 Wicked>(San Francisco, 2003), <겨울왕국 Frozen>(2018)처럼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을 다녀온 후 생각이 바뀌었다. 그곳에서 작게나마 국내 뮤지컬 작품의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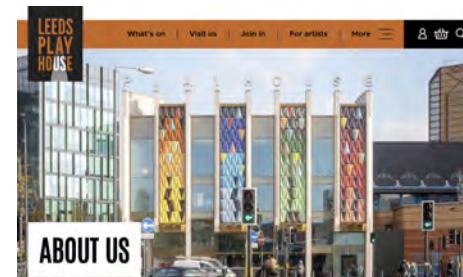
영국 웨스트엔드 외 지역 특성을 설명하는 크리스 그레디(Chris Grady)

많은 극장이 밀집해 있는 웨스트엔드 거리를 걷다 보면 '이곳에서 무대를 올리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절로 떠오른다. 대부분 이름만 들어봐도 아는 유명 공연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창작뮤지컬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커다란 사인 위에 'A New Musical'이란 타이틀이 붙은 공연들이 생각보다 쉽게 눈에 띄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London, 2019)이다. 이 작품은 오프 웨스트엔드에서 시작해 웨스트엔드까지 진출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원작인 제2차 세계대전의 <민스미트 작전> 때문일까 추측해 보았지만, 실제로 영화가 그만큼 인기를 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답변을 데이비드 브라운리(David Brownlee)로부터 받았다.

이미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영국 공연 업계에 어린이와 가족 대상 뮤지컬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웨스트엔드와 멀어지는 것이다. 크리스 그레디(Chris Grady)의 설명에 따르면 잉글랜드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의 찰필드(Charfield) 같은 지역에는 충성 관객이 존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 근처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기 시작하며 저녁시간 동네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이 증가한 탓이다. 조니 댄시저(Jonny Danciger) 또한 웨스트엔드 극장과 지역 극장 간의 관객 연령 차이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Regional houses will have a much closer relationship with specific, regular theatre-goers from their local area. They tend to buil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ir local family audiences via their pantomime at Christmas, and use this relationship to encourage them to general family shows throughout the rest of the year. Regional houses will also tend to programme for a wider age range of children, including early years, whereas parents are less likely to bring very young children to see a show in a large West End thea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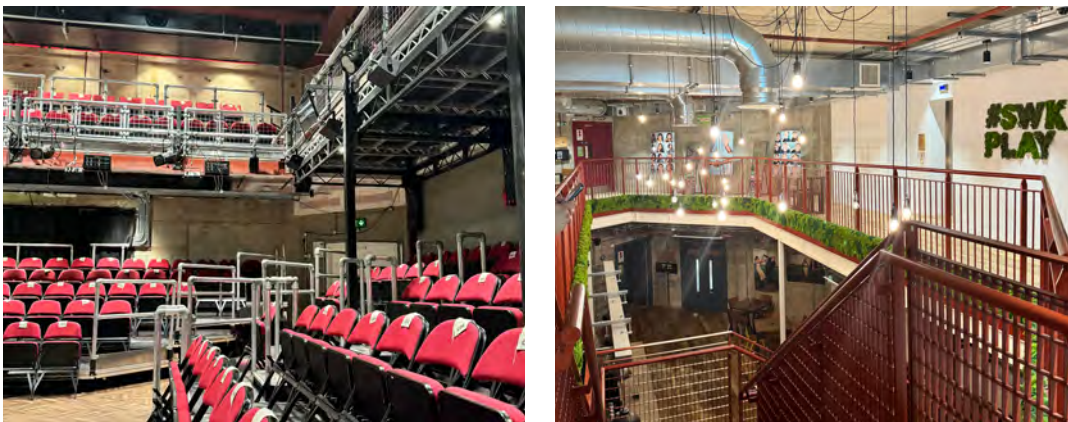
이처럼 지역 극장은 관객과의 긴밀한 교류 아래 더 넓은 연령대의 관객을 만나고 있다. 반면 웨스트엔드 극장은 가족 관객에게 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좌) ©Leeds Playhouse 공식 웹사이트 (우) ©THEATRE BY THE LAKE 공식 웹사이트

따라서 공연과 제작을 함께하는 리즈 플레이하우스(Leeds Playhouse)나 공동제작이 활발한 시어터 바이 더 레이크 케스윅(Theatre by the Lake Keswick)과 같은 곳에 접근해 보는 것이 좋다. 다만 1~2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계획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리시빙 시어터(Receiving Theatre)의 투어 공연에서 어린이 공연과 인기극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 초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웨스트엔드와 가까워지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공연된 뮤지컬 <식스 (Six)>(Edinburgh, 2017)는 런던에 방문했을 때 티켓이 없어 관람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이 공연은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Fringe)에서 시작된 후, 웨스트엔드의 아트 극장(Arts Theatre)에서 공연되었으며 2019년에는 본격적인 영국 투어를 시작했다. (이 작품처럼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해 시작하는 경로도 적극 추천한다.)



서더크 플레이하우스(Southwark Playhouse Elephant) 극장 모습

만일 웨스트엔드에서 바로 시작하고 싶다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업에 주목하거나 신작 쇼케이스를 연 극장을 찾아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이번에 방문했던 서더크 플레이하우스 엘리펀트(Southwark Playhouse Elephant)는 이런 점에서 무척 흥미로운 극장이었다. 예술감독 크리스 스미르니오스(Chris Smyrnios)는 극장 곳곳을 설명하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물론 당연히 대관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지리적으로 웨스트엔드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큰 장점이다. 그러나 그 모두에 앞서 왜 이 공간에서 이 공연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앞으로도 영국 관객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관찰하겠다.

해외 관객과 뮤지컬이 효과적으로 만나는 방법

-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외의 모습을 보인 영국 시장

관객이 이야기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것은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스토리에 공감하거나 스토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공감함으로써 관객은 선택하게 된다. 이 공감 포인트를 생각하며 영국에서 발견한 모습을 적어본다.

소속되어 있는 엠제이플래닛(MJ Planet)은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 기획하는 곳이다. 가족 뮤지컬 <캔터빌의 유령 The Canterville Ghost>(Seoul, 2018)과 <사슴 코닥코의 재판 The Trial of the Deer Kodakko>(Seoul, 2021)이 그 대표적인 예다. <캔터빌의 유령>은 영국을 배경으로 한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원작 소설이 있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했으며 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간이 피칭을 통해 작품을 소개한 결과 크리스 그레디(Chris Grady)를 포함한 웨스트엔드 프로듀서들은 <캔터빌의 유령>보다 <사슴 코닥코의 재판>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이유를 들어보니 <캔터빌의 유령>은 이미 영국에서 여러 차례 공연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접해 본 이야기인 반면 <사슴 코닥코의 재판>은 한국 전래동화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흥미롭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의외의 현장 반응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작품으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해 보게 되었다.

한국문화원에서 짧은 만남을 가진 조니 댄시저(Jonny Danciger)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같은 관객을 만나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어린이와 가족 뮤지컬을 제작하면서 비슷한 관객을 대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반가웠다. 그렇다면 영국에서는 어떻게 어린이 및 가족 관객과 소통하고 있을까? 두 가지 작품을 통해 이야기해 보겠다.



유니콘 시어터(Unicorn Theatre)에 공연을 관람하러 온 관객들



<패딩턴 베어 익스피리언스 The Paddington Bear Experience> 공연 시작과 끝 공간



유니콘 시어터(Unicorn Theatre)에서 관람한 <사자 안 The Lion Inside>(London, 2019)은 레이첼 브라이트(Rachel Bright)와 짐 필드(Jim Field)의 책을 기반으로 만든 어린이 공연이다. 유니콘 시어터는 어린이 관객을 위한 전용 극장으로, 한국의 종로 아이들극장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이곳에는 다른 극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유모차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로비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원작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다.



©Unicorn Theatre 공식 웹사이트

객석과 큰 단차 없는 무대에서 인형이 등장하며 3명의 배우가 여러 역할을 맡아 60분간 열심히 공연했다. 티켓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극장에 방문하는 주요 연령층은 3세부터 6세까지라고 한다. 평일 점심시간 전후로 2회 공연을 진행하는데도 가족 단위 객석이 가득 차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두 번째로 관람한 작품은 <패딩턴 베어 익스피리언스 The Paddington Bear Experience>(London, 2018)였다. 런던 사우스뱅크의 카운티 홀(London Southbank County Hall)에서 공연 중이었는데, <모노폴리 라이프사이즈드 Monopoly Lifesized>(London, 2019)를 제작한 줄리 포센(Julie Posen)의 추천으로 관람하게 되었다. 모노폴리 공연보다 좀 더 공연 형식을 갖춘 이 작품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초대장을 받아 패딩턴의 집에 방문해 축제 현장으로 떠나는 코스를 경험한다. 집 안에는 방마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미션이 있고,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진행 아래 미션을 수행한다. 놀이동산의 한 공간처럼 느껴지는 이 작품이 시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놀랍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두 작품을 관람하며 만약 한국 뮤지컬이 영국에 진출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준비된 어린이, 가족 관객에게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영국 권역 연구 보고서

**K-MUSICAL
PRODUCERS'
WORKSHOP
IN NYC/LONDON
2024**

김소희

(주)더웨이브 대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새로운 도전과 혁신

2024년 여름, 방문한 런던은 여전히 활기차고 역동적인 문화 중심지의 모습이었다. 그 속에서 우리 뮤지컬 <마리 퀴리 Marie Curie>(Seoul, 2020)를 만난 경험은 더욱 의미 깊었다. 여러모로 알찬 시간 속에서 영국 내 다양한 예술 분야 종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접한 영국 뮤지컬 시장의 오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웨스트엔드는 팬데믹과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혁신을 꾀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다섯 가지의 주제로 나눠 정리해 보았다.

1. 브렉시트 이후의 공연산업

브렉시트 이후 타 유럽 국가에서 런던을 방문하는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유럽 관객의 감소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티켓 판매 수익 감소와 관객층의 축소로 이어져 공연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공연산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 관광객이 줄어들면 티켓 판매와 관객층의 다양성도 감소하며, 공연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객의 변화된 공연 소비 패턴

전문가들은 관객이 공연을 즐기는 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전체적인 극장의 수익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관객의 숫자는 확연히 줄었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소규모 공연을 여러 번 관람하던 관객들이, 이제는 더 큰 금액을 투자해 검증된 작품을 한두 차례 선택해 보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프로듀서들도 안전한 선택을 선호하게 되었다.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공연은 더

쉽게 매진된다. 예를 들면 방문 당시 톰 홀랜드(Tom Holland)가 출연한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은 이미 한 달간의 공연이 전석 매진된 상태였다.

3. 디지털 마케팅의 부상: 관객 유치의 새로운 전략

관객들의 소비 패턴 변화, 관객 감소와 맞물려 공연 제작자들은 디지털 마케팅의 비중을 늘리며 새로운 관객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뮤지컬의 티켓 가격대가 높아 웨스트엔드 관객층 나이가 높았었는데, 팬데믹 이후 연령대가 높은 관객들이 다시 극장으로 돌아오는 속도보다 젊은 신규 관객 유입수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뮤지컬이 더 넓은 범위의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특히 틱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이 젊은 세대와 글로벌 관객을 타겟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뮤지컬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마케팅에서 과감히 벗어나 모든 마케팅 예산을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하며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예를 들어 <퀸카로 살아남는 법 Mean Girls>(Washington, 2017)은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를 끌며 뮤지컬 팬덤을 넓히고 온라인에서 형성된 팬덤이 실제 티켓 판매로 이어진 좋은 사례다.

4. 창작 활동의 위축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

최근 몇 년간 영국 정부의 예술과 문화 분야 예산 삭감으로 인해 창작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신작 개발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투자가 많이 감소했다. 특히 소규모 제작사들은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신작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그 성공 가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예산이 줄어들면 창작자들의 활동이 위축되며 결과적으로 공연시장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신작 개발의 어려움과 정부 지원 문제는 현지 종사자들이 직면한 중요한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다수의 프로듀서가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5. 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한 혁신적 작품들의 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뮤지컬 시장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인종 문제, 산업 내 편견, 성 정체성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작품들이 웨스트엔드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여기서 파생되는 사회적 복잡성을 가감 없이 반영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작자들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그들의 시각과 경험이 작품에 더 많은 깊이와 신선함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인트 투 프라우드 Ain't Too Proud>(Berkeley, 2017)는 흑인 음악가들의 성공과 그들이 겪은 인종적 편견을 중심으로 다루며, <스탠딩 앳 더 스카이스 엣지 Standing at the Sky's Edge>(London, 2019)는 영국 셰필드(Sheffield) 지역의 사회적 계층과 세대 간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들 작품은 모두 다양한 배경과 새로운 목소리를 반영하며 웨스트엔드 무대의 포용성과 창의성을 잘 보여준다.

한편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London, 2019)과 같은 혁신적인 작품들도 주목받고 있다. 이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정보국의 기만 작전을 유머와 서스펜스로 풀어내며 역사적 사건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

상업적 안정성을 선호하는 관객층과 새로운 형식의 창작물을 선호하는 관객층이 공존하는 현재의 영국 뮤지컬 시장. 프로듀서들은 이러한 양쪽의 요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해 일면 곤란할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영국 뮤지컬 시장의 미래를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다.

한국 뮤지컬의 현지화

한국의 창작뮤지컬 시장은 매우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풍부한 창작 인프라와 정부의 지원 덕분에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시장의 사회적 이슈나 정서적 차이에 대한 현지 적응과 재정적 리스크 관리 모두가 필수적인 도전 과제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현지 프로듀서와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특히 런던 시장에서는 프로듀서가 공연 투자, 대관, 그리고 마케팅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공연의 성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현지 프로듀서는 시장의 흐름과 관객의 기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의 네트워크와 문화적 이해가 한국 뮤지컬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고 현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다. 향후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K-뮤지컬 국제마켓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현지 프로듀서들과의 네트워크를 활발히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국 뮤지컬의 글로벌 확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수익성 중심의 웨스트엔드 대관과 제작

- 나이맥스 시어터스(Nimax Theatres)의 비즈니스 모델

나이맥스 시어터스(Nimax Theatres)는 2005년 니카 번스(Nica Burns)와 맥스 바이첸호퍼(Max Weitzenhoffer)가 설립한 회사로, 앤드류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가 소유하고 있던 4개의 극장(Apollo, Duchess, Garrick, Lyric)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현재는 7개의 극장을 운영하는 극장 그룹이자 제작과 투자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상업적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나이맥스가 프로듀싱한 <제이미 Everybody's Talking About Jamie>(Sheffield, 2017)는 영국에서 초연된 후, 여러 나라에서 투어 공연을 진행했으며 한국에서도 라이선스 공연된 적이 있다. 나이맥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대관'과 '제작'으로 나뉜다. 그중 대관의 수익 구조와 대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1. 대관

나이맥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중심으로 하며, 이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대관 계약은 경험과 평판이 있는 프로듀서와 스타 캐스팅을 통한 마케팅 모두를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

1)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품인가

기획자이자 대관을 담당하는 극장의 소유주라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작의 흥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소재가 보편적인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이미 큰 인지도와 선호도를 갖고 있는 작품인지 판단해야 한다.

2) 경험이 많고 평판이 있는 프로듀서가 참여하고 있는가

현지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경험과 평판이 있는 프로듀서의 참여는 작품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극장 대관 시에도 능력 있는 프로듀서의 참여는 공연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끌어내 공연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연의 퀄리티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프로듀서가 한 작품의 성공을 이끌어내면 극장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3) 캐스팅

런던은 스타마케팅을 활용하는 무대 공연이 많지 않아 배우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고 생각했는데, 상업 시장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스팅을 주요한 흥행 이슈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배우의 이름만으로도 흥행이 보증될 만한 스타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나이맥스를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가 한국의 연극/뮤지컬 팬덤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영국 내 매체 활동 배우들은 매체와 무대를 병행하면서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는 것을 선호하고, 최근 스트리밍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무대 진출이 더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단 아무리 대단한 스타가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제작비에서 배우 개런티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2. 대관 수익 구조

1) 대관료 및 콘트라(Contra)

극장을 대관하는 동안 대관료와 함께 콘트라를 청구한다. 콘트라에는 극장 스태프의 인건비, 수도세, 전기세 등 기본적인 운영 비용이 포함된다. 콘트라로 충당되지 않는 고정지출은 대관료에서 추가로 충당된다. 리미티드 런(Limited Run)의 경우 10주~14주 정도 계약을 진행하기도 하며 장기 공연의 경우 8년에서 10년까지 공연하는 사례도 있다.

2) 부가 수익 모델

극장의 부가 수익원으로는 식음료와 MD 판매가 있다. 이는 공연 중간에 관객들에게 제공되는 바(Bar) 서비스와 함께 극장 수익을 높이는 주요한 요소다. 또한 전통적으로 극장에서 약 £4.5에 판매되는 컵 아이스크림의 원가는 약 £0.70으로, 상당한 이윤을 남긴다. 대관 공연 시에도 MD 판매는 극장에서 직접 지원하며 이 경우 극장이 약 25%의 수익을 가져간다. 이는 극장 측에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극장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3) 티켓 판매 수익과 예매 시스템

극장을 통해 판매되는 티켓 수수료도 수입원 중 하나이다. 나이맥스는 자체 예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존 극장들은 티켓 오픈 시 좌석을 예매처에 할당해 주고, 공연이 임박하면 미판매된 좌석들을 다시 극장으로 반납하는 형태였지만 나이맥스는 자체 연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예매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것을 프로듀서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고 메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예매자가 잔여석을 많이 볼 수 없도록 30%의 좌석만 오픈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심리적 마케팅 기법도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티켓 판매를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이맥스의 경우 예전에는 극장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티켓 판매율이 25~30%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5%로 증가했다.

4) 단기성 공연 대관

나이맥스는 오픈런 공연 외에도 휴관일을 이용해 콘서트나 팟캐스트 녹음 등 단기성 행사를 위한 대관도 제공한다. 특히 여름과 크리스마스 같은 성수기에는 가족 대상 공연을 추가로 진행해 극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5) 부대시설

나이맥스가 운영하는 극장 중 소호 플레이스를 제외한 극장은 무대 대관만을 제공하며,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은 별도로 이루어진다. 나이맥스의 극장들은 조명, 음향에서 최신 장비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대관료와 마찬가지로 장비도 주 단위로 임대료를 책정한다. 12주 이상의 장기 렌탈 시 비용이 할인될 수 있으나 흥행 여부에 따라 단기 렌탈이 더 유연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극장의 장비가 아닌 별도 렌탈 장비를 반입해도 된다.

3. 대관 신청

1) 제작사 피칭

나이맥스의 대관 시스템은 제작사 피칭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작사는 웨스트엔드에서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피칭하며, 이를 통해 대관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후 극장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

2) 작품 제안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중이거나 영국 지역 극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품을 직접 소싱하여 웨스트엔드로 가져온다.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Harry Potter Cursed Child>의 경우, 작품의 프로듀서가 먼저 극장 답사를 요청했으나 나이맥스는 타 극장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이 작품의 대관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3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극장 투어를 진행하며, 원작자와 창작자를 대상으로 피칭을 진행했다. 나이맥스는 자신들의 극장에서 공연할 경우 다른 극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대관을 성사시켰다.

3) 자체 제작

연간 자체 제작 비율은 약 25%다.

* 나이맥스는 웨스트엔드 내에서도 손꼽히는 상업적인 회사이지만 상업성만을 좇는 것은 아니다. 팬데믹 기간 멈췄던 극장에 대형 공연을 올리는 데 큰 부담이 있었던 나이맥스는 신작 개발과 젊은 프로듀서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Rising Stars Festival”을 개최했다. 이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공연이 무대에 올랐으며 <데스 드롭 Death Drop>(London, 2020)과 같은 작품도 다시 선보였다. 또한 <더 그루팔로 The Gruffalo>(London, 2001)처럼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한 작품을 리릭 시어터(Lyric Theatre)에서 지속적으로 공연하며 가족 관객층을 확대하기도 했다.

* 참고자료 나이맥스 소유의 극장

1) 아폴로 시어터(Apollo Theatre)

위치: Shaftesbury Avenue
규모: 약 775석

2) 더치스 시어터(Duchess Theatre)

위치: Catherine Street
규모: 약 476석

3) 개릭 시어터(Garrick Theatre)

위치: Charing Cross Road
규모: 약 732석

4) 리릭 시어터(Lyric Theatre)

위치: Shaftesbury Avenue
규모: 약 915석
참고: 웨스트엔드에서 오래된 극장 중 하나. 현재 <식스 Six>(Edinburgh, 2017) 공연 중.

5) 팔라스 시어터(Palace Theatre)

위치: Shaftesbury Avenue
규모: 약 1,400석
참고: 웨스트엔드에서 가장 큰 극장 중 하나. 현재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Harry Potter and the Cursed Child> 공연 중.

6) 보드빌 시어터(Vaudeville Theatre)

위치: Strand
규모: 약 690석

7) 소호 플레이스(@sohoplace)

위치: Tottenham Court Road
규모: 602석
참고: 50년 만에 웨스트엔드에 새로 지어진 극장. 인 더 라운드(in the round) 형태.

영국 권역 연구 보고서

**K-MUSICAL
PRODUCERS'
WORKSHOP
IN NYC/LONDON
2024**

김아름

우리별이야기 과장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웨스트엔드 공연, 그리고 뮤지컬 <마리 퀴리 Marie Curie>에 담긴 다양성과 포용성

한국의 창작뮤지컬은 오랜 시간 다양한 형태로 해외진출 방향을 모색해 온 결과 일본, 중국,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권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정의 최종 진출 목적지는 미국과 영국, 세계적인 뮤지컬을 배출하고 있는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가 아닐까 생각한다.

웨스트엔드의 공연시장은 급변하는 사회적, 문화적 흐름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시도하고 있으며 관객들의 기대 역시 더 넓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영국의 다양한 공연 트렌드 중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웨스트엔드 공연의 주요 트렌드 중 하나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강조이다. 다양성과 포용성은 최근 몇 년간 공연계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성별, 인종, 성적 지향성, 장애,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과 경험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늘고 있고, 사회적 불평등이나 소수자의 권리 같은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관객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공연 업계에서 발견되는 다양성과 포용성은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종의 다양성, 포용성이다.

과거 웨스트엔드 공연에서는 전통적으로 백인 배우들이 주로 주연을 맡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인종의 배우가 주연을 맡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흑인, 아시아인, 중남미 등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주류 작품에서 주연으로 캐스팅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해밀턴 Hamilton>(2015)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미국의 건국 역사를 다루면서 역사적 인물들을 비백인 배우들에게 맡기는 혁신적인 캐스팅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두 번째는 젠더의 다양성, 포용성이다.

전통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 배우들이 맡았던 역할을 반대로 캐스팅하는 방식이 도입되며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있으며, 관객들로 하여금 더 폭넓은 캐릭터 해석을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다. 런던에서 관람했던 뮤지컬 <하데스타운 HadesTown>(Barre, 2006)에서도 이런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세 명의 여신을 연기했던 배우 중 한 명이 남성이었다. 이 배우의 연기는 극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으며 세 여신 중에서도 중성적인 매력을 뽐내며 돋보이는 효과가 있었다.

세 번째는 여성 중심의 서사와 페미니즘이다.

한국에서 발견되는 이 현상은 영국 웨스트엔드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여성 중심의 서사와 강력한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작품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을 중시하는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젠더 불평등이나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기도 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공연된 뮤지컬 <식스 Six>(Edinburgh, 2017)는 헨리 8세의 여섯 왕비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역사적으로 억압받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강조하며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네 번째는 문화적 다양성, 포용성이다.

다양한 국가와 배경을 담아낸 이야기와 캐릭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공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영국 내 다문화 사회를 투영한다. 뮤지컬 <알라딘 Aladdin>(Seattle, 2011)은 아랍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가 바탕이 되며 <라이온 킹 The Lion King>(Minneapolis, 1997)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자연과 문화를 반영한 작품이다.

뮤지컬 <마리 퀴리 Marie Curie>의 다양성과 포용성

웨스트엔드 공연에서 특별했던 것은 라이브(주)에서 제작하고 웨스트엔드 채링 크로스 시어터(Charing Cross Theatre)에서 공연한 뮤지컬 <마리 퀴리 Marie Curie>(Seoul, 2020)였다. 이 작품은 과학계에 큰 업적을



© 라이브(주)

남긴 여성 과학자 마리 퀴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성 중심의 서사와 다양성, 포용성을 논한 작품이다.

작품의 핵심 서사는 여성 과학자 마리 퀴리의 업적과 도전이다. 마리 퀴리는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최초의 인물로, 당시 여성으로서 과학계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과 편견을 극복해 낸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 뮤지컬은 여성의 지적 능력과 강인함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연스럽게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에 대한 공감을 끌어낸다. 이처럼 마리 퀴리의 삶은 여성의 권리와 기회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녀가 마주했던 사회적 도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논의되는 중이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여성 배우들이 주도적으로 캐릭터를 이끌어가며, 여성의 다양한 삶과 경험, 도전을 이야기한다. 과학적 발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간적인 측면과 감정적 여정도 함께 다루어 여성 중심의 서사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폴란드 출신의 마리 퀴리는 당시 프랑스에서도 연구를 이어 나갔다. 이로 인해 작품 안에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 문화적 갈등, 정체성의 문제도 녹아들어 있다. 폴란드인의 정체성과 프랑스에서의 삶.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논의되는 국가 이주 및 정체성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웨스트엔드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해 공부하며 자료를 찾아보고, 라이브(주)에서 제작한 뮤지컬 <마리 퀴리 Marie Curie>를 관람했을 때, 다양성과 포용성 문제를 가장 잘 다룬 공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성차별에 맞서 싸운 여성 과학자의 이야기, 젠더 불평등, 가족과 사랑, 문화적 정체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를 한 편의 뮤지컬로 잘 소화해 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웨스트엔드에서 일어나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시도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다양한 삶의 경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 이런 포용적인 가치관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넘어 웨스트엔드의 상업적 성공과 글로벌 영향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라이브(주)



© 라이브(주)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 My Bucketlist> 영미권 진출을 위한 준비

한국의 대표적인 창작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 My Bucketlist>(Seoul, 2014)는 2015년 초연 이후 2017년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다.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 My Bucketlist>의 주제는 삶과 죽음, 우정이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지닌 두 인물이 함께 성장하고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전달되는 감동적인 메시지는 단순한 청춘의 이야기를 넘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강구와 해기의 이야기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관객들로 하여금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이 작품은 작은 규모의 소극장 무대에서 시작했지만 보편적이고 감동적인 주제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일본과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깊이 있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은 이 작품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음악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영국 웨스트엔드 진출의 첫 단계, 대본 현지화 작업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 My Bucketlist>가 영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영어권 관객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영어 번역 과정을 통해 문화적인 맥락과 감정이 관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현지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적인 요소와 정서가 담긴 스토리와 설정이 영국 관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되 작품의 독창성과 고유성은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작품의 강점 및 고유성 강조

<마이 버킷리스트 My Bucketlist>는 감동적인 서사와 보편적인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은 글로벌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이다. 죽음과 우정을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스토리는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공감을 얻는 주제이기도 하다.

세 번째, 문화적 차별성 강조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K-Pop, K-드라마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의 문화가 곳곳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문화의 고유성은 K-Musical을 하나의 장르로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성공으로 인해 아시아 문화나 글로벌 콘텐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서도 한국적인 배경이나 관습을 글로벌 관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요소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거나 스토리텔링 방식에 변화를 주어 한국적인 문화에 친숙해지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번째, 영국 프로덕션과의 협력

웨스트엔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영국 현지 프로듀서, 극장, 에이전트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영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있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 홍보, 배급, 투자 유치 등의 중요한 부분을 진행할 수 있다. 현지 프로덕션과 공동제작을 진행하면 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현지 프로덕션의 네트워크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지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관객의 취향과 시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진출 전략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앰배서더 시어터 그룹 프로덕션(ATG Production)

웨스트엔드에서 가장 큰 극장을 운영하는 제작 회사 중 하나로 글로벌 콘텐츠에 열려있으며, 아시아 공연예술 시장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극장 인프라와 제작 경험을 갖춘 ATG는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다.

2. 내셔널 시어터(National Theatre)

영국의 내셔널 시어터는 새로운 작품과 국제적인 협업을 장려하는 곳으로 다양한 문화와 장르가 결합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에 관심이 많다. 한국 콘텐츠가 지닌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감성, 문화적 경험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것이다.

3. 아리아 엔터테인먼트(Aria Entertainment)

신작 뮤지컬과 독립적인 작품을 지원하는 제작사로, 뮤지컬 <마리 퀴리 Marie Curie>의 현지 프로덕션을 담당한 회사이다. 새로운 이야기와 참신한 아이디어에 개방적이며 작은 프로덕션으로 시작해 웨스트엔드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회사이기에 <마이 버킷리스트 My Bucketlist>처럼 감성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다.

4. 로얄 코트 시어터(Royal Court Theatre)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연극과 뮤지컬을 주로 다루며, 국제적인 협업을 장려하는 단체다. 한국 콘텐츠가 지닌 문화적 감성을 무대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 이 단체는 사회적 메시지, 정서적 깊이가 있는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마이 버킷리스트 My Bucketlist>의 인간적인 면모와 삶과 죽음을 마주하는 두 주인공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해외 시장을 위한 쇼케이스 공연

국제적인 페스티벌이나 쇼케이스 참여를 통해 작품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Fringe)이나 대규모 국제 공연을 통해 작품을 선보여 웨스트엔드 제작사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공연된 <식스 Six>(Edinburgh, 2017)는 소규모 프로덕션에서 시작되어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거쳐 웨스트엔드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공연이다.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 웨스트엔드 중심부에 자리 잡기까지 한 단계씩 천천히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인

(주)쇼노트 팀장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누군가 극장의 과거와 현재를 묻는다면 고개를 들어 영국을 보게 하라. 기나긴 시어터 역사에서 영국은 부정할 수 없는 전통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가장 뜨거운 실험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곳도 영국이다. 지역 극장부터 런던 교외, 내셔널 시어터, 그리고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까지. 수없이 많은 신작이 태어나고, 실험되고, 공연된다. 그리고 그 모든 가능성을 갖춘 신작이 마지막으로 시장성을 검증하기 위해 웨스트엔드로 몰려든다. 그 어떤 종류의 장르든 이야기든 볼 가치가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 영국은 그런 희망을 품게 만드는 곳이다. 심지어 브로드웨이에 비해 제작비가 1/10이라고 하니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뮤지컬 제작사라면 누구나 1순위로 고려해야 할 시장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몇몇 영국 관계자들은 예전에 비해 신작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고 말한다. 원래는 저렴한 가격으로 도전적인 작품을 '발굴'하듯 3~4편씩 보던 관람객들이 이제는 비싼 가격이라도 확실한 만족감을 줄 대형 작품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거 어딘가 익숙하다. 팬데믹 이후 갑작스럽게 성장한 한국의 뮤지컬 시장도 같은 현상을 보이지 않는가? 한국의 뮤지컬 시장에서도 어떤 무대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마찬가지로 해외진출을 노린다면 영국의 현재 신작 트렌드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1. 새로운 연출과 스타 캐스팅을 결들인 리바이벌(Revival) 공연

그렇다면 어떤 신작이 팬데믹 이후 영국 관객의 선택을 받고 있을까? 처음부터 신작을 웨스트엔드에 선보이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 안정적인 선택은 고전을 리바이벌하는 쪽이다. 그러나 시어터만큼 동시대성이 중요한 문화 산업이 또 없지 않은가? 그렇기에 영국 제작사가 선택한 방법은 현대적인 연출로 작품성을 보강하고, 스타 캐스팅으로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2024)
사진: 마크 브레너(Marc Brenner)



<카바레 CABARET at the Kit Kat Club>(London, 2021)
사진: 마크 브레너(Marc Brenner)

앞서 작품에 대한 리뷰 및 흥행을 동시에 챙긴 더 좋은 사례가 있다. 바로 에디 레드메인(Eddie Redmayne)과 함께 이머시브(Immersive) 형식을 도입해 돌아온 <카바레 CABARET at the Kit Kat Club>(London, 2021)다. <카바레 CABARET at the Kit Kat Club>는 이제까지 수없이 리바이벌되었지만, 이번처럼 압도적인 호평을 받은 건 이례적이다. 그 배경에는 에디 레드메인의 스타성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이번 리바이벌의 컨셉 때문이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고전 프로시니엄(Proscenium) 극장을 개조해 내부에 작은 원형 무대를 두고 객석 앞쪽을 테이블 석으로 만들어 진짜 '카바레' 클럽을 구현했다. 배우들은 로비에서부터 프리쇼를 벌이고 공연 중에도 끝없이 관객석을 오가며 소통한다. 관객들은 술과 음식을 곁들이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원형 무대에 걸맞은 안무와 연출, 현대적이면서도 화려한 의상, 즐기다 보니 어느새 1930년대 2차 세계대전의 독일로 빠져들게 만드는 연출까지. 관객 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카바레 CABARET at the Kit Kat Club>는 웨스트엔드를 넘어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스타 캐스팅에만 의존해서는 이를 수 없는 성취를 컨셉과 작품성으로 극복해 낸 것이다.

2. 영상 매체 원작의 브랜드성을 내세운 신작

모든 웨스트엔드의 시어터가 스타를 캐스팅할 수는 없다. 이러한 스타 캐스팅을 대체하는 것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영화, 애니메이션, 넷플릭스 등 원작의 브랜드성이다.



<기묘한 이야기 Stranger Things: The First Shadow>(2023)
사진: 마누엘 할란(Manuel Harlan)

지금의 넷플릭스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기묘한 이야기>의 스핀오프 연극 <기묘한 이야기 Stranger Things: The First Shadow>(2023)는 원작 팬들뿐만 아니라 <기묘한 이야기>를 모르던 관객들에게도 충분한 만족감을 준다. 화려한 쇼, 영상과 음악, 무대의 절묘한 시너지, 회전 무대를 이용한 연출의 탁월함도 볼거리를 선사하지만, 어린 시절 얻게 된 초능력으로 혼란을 겪던 소년이 끝내 빌런으로 흑화하는 스토리는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이런 인물과 그가 겪는 과거의 사건들이 시리즈 전체 스토리를 관통하고 엔딩에서는 시리즈의 주인공까지 등장하니 팬들로서는 이만큼 짜릿한 이벤트가 또 없다. 단순히 원래의 시리즈를 짜깁기한 것이 아니라 작품성을 갖춘 하나의 완전한 스핀오프(spin-off)로서 극장에 모인 한정된 관객에게 선보여지니 인기는 두말할 것도 없다.



<스피리드 어웨이 Spirited Away>(Tokyo, 2022)
사진: 요한 페르손(Johan Persson)

영화 원작의 각색 작품 중 영국에서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큰 인기를 얻은 작품이 있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공연화한 <스피리드 어웨이 Spirited Away>(Tokyo, 2022)다. 심지어 일본 오리지널을 그대로 가져와 웨스트엔드의 가장 큰 극장에서 일본어로 공연하는데도 남녀노소 모든 인종으로 극장이 꽉 차 티켓을 구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영국에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원작의 감성적인 음악, 일본의 전통적인 목제 가옥,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신(神)들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퍼펫까지. 원작의 팬이라면 애니메이션의 장면이 그대로 눈앞에 재생되는 것만 같은 환상을 느낄 수 있고, 원작을 모르는 관객이 보더라도 섬세한 감성과 함께 대규모로 펼쳐지는 무대 연출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Harry Potter Cursed Child>(2016) 이후, 영상 매체를 각색하거나

스핀오프 하여 무대화한 작품들이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원류는 단연 '디즈니 시어터'일 것이다. 영상으로만 보던 작품을 눈앞에서 보는 경험은 앞으로도 관객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한 큰 무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3. 새로운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다양한 오리지널 신작

그렇다면 스타도 없고, 원작도 없는 진짜 신작 뮤지컬은 설 자리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예전에 비해 진입하기가 어려워졌을 뿐이지 여전히 영국에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작품성으로 승부하는 오리지널 작품들이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London, 2019)
사진: 매트 크로켓(Matt Crockett)

그중 하나가 2024년 로렌스 올리비에상(Laurence Olivier Awards) 작품상을 받은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London, 2019)이다. 2019년 초연 이후 신작 개발의 명가로 불리는 런던 외곽의 서더크 플레이하우스(Southwark Playhouse)에서 여러 차례 선보인 이후, 마침내 투자자들의 눈에 들어 웨스트엔드로 옮겨왔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절묘한 코미디 호흡, 빠르고 유쾌한 전개로 차츰 입소문이 돌더니 로렌스 올리비에상(Laurence Olivier Awards)을 차지한 후에는 티켓을 구하기 어려워졌을 정도다. 단 5명의 배우와 간단한 무대로 얻은 성과이니 그야말로 언더독(underdog)의 반란이다.



<스탠딩 앳 더 스카이스 엣지 Standing at the Sky's Edge>(London, 2019)
사진: 제이슨 로우(Jason Lowe)

지역 극장에서 개발되어 작품성으로 호평을 받은 작품도 있다. <스탠딩 앳 더 스카이스 엣지 Standing at the Sky's Edge>(London, 2019)는 셰필드 크루시블 시어터(Sheffield Crucible Theatre)에서 최초로 개발 및 초연되었고, 내셔널 시어터로 옮겨가 엄격한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 관객들의 취향을 사로잡았으며, 이후 웨스트엔드로 넘어가 일반 관객에게도 큰 호평을 받았다. 셰필드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3가구의 이야기가 1960년대부터 3개의 시간대를 옮겨가며 진행된다. 지역색이 강하고, 연극적인 진행에, 음악까지 일반적인 뮤지컬과는 괴리가 있다. 그러나 압도적인 작품성으로 큰 감동을 자아냈다.

이 외에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Fringe)의 작은 극장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식스 Six>(Edinburgh, 2017)처럼 대형 자본으로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디어와 새로움으로 무장해 웨스트엔드의 새 지평을 연 작품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4. 한국 뮤지컬의 해외진출 방안

앞서 소개한 뮤지컬들이 영국 관객의 호평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선제 조건이 있다. 그건 스타 캐스팅이나 원작의 브랜딩이 아닌, 작품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탁월함이다. 현대적인 연출이든, 이머시브 컨셉이든, 절묘한 코미디 호흡이든, 작품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관객이 다른 문화 예술에서 맛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인원이 얼마나 나오든, 소재가 무엇이든, 무대가

얼마나 화려하든 작품성이 선재되지 않으면 관객에게 외면받고 조기 폐막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뮤지컬이 지닌 경쟁력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드라마와 음악에서 빚어지는 감정의 폭발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관객은 다른 무엇보다 무대 위의 인물과 함께 웃고 울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정서는 전 인류적으로 통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제될 필요가 있다. 감정은 충분하니 스타일과 컨셉을 정리하고 빠른 템포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국내 콘텐츠가 외국인의 입맛에 맞춰서만 제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이 지닌 보편적인 정서에 외국인이 받아들일 만한 스타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기에 통할 수 있었다. 한국의 뮤지컬 또한 이러한 탁월함을 갖출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 영국은 충분한 개발 과정을 통해 작품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많은 국내 창작자와 제작자가 역량과 경험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 뮤지컬이 웨스트엔드에서 크게 호평을 받아 전 세계로 뻗어나갈 날만을 고대한다.

영국 신축 공연장의 주요 특징

- 가변형 극장(Flexible Theatre)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웨스트엔드 공연장이 한국에 새로 지어진 극장에 비해 작고 낡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건물의 노후화로 항상 안전 문제가 재고되고, 객석에서 무대 일부가 보이지 않는 일은 다반사다. 2022년에 오픈한 소호 플레이스(@sohoplace)가 웨스트엔드에서 50년 만에 등장한 신축 극장이니 말 다했다. 건물의 역사성이나 시내 중심부라는 위치, 투자 대비 경제성 등의 이유로 재건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웨스트엔드를 차지한 대부분의 극장이 이러한 낡은 프로시니엄(Proscenium) 무대이니 이를 겨냥한 작품 또한 전통적인 일면 무대를 상정하고 제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大)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시대가 아닌가. 영화나 TV를 비롯한 영상 매체와 시어터와 같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차이는 분명하다며 생생한 현장성을 어필해 왔지만, 영상 매체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극장의 현장성을 압살할 만한 콘텐츠를 내놓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극장을 잊고 화면에 빠져든 관객들을 다시 극장으로 불러오기 위해선 이전과 차별화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제작자들은 일찌감치 시어터만의 새로운 경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프로시니엄을 깨부수고 관객에게 더 가까운 현장성을 선사하는 이머시브 시어터(Immersive theatre)를 고안해 냈다. 단순히 배우가 프로시니엄에서 나와 객석과 호흡할 뿐만 아니라 객석을 부수거나 뒤바꾸기도 하고, 아예 객석을 없앤 채 관객이 직접 공간 전체를 탐험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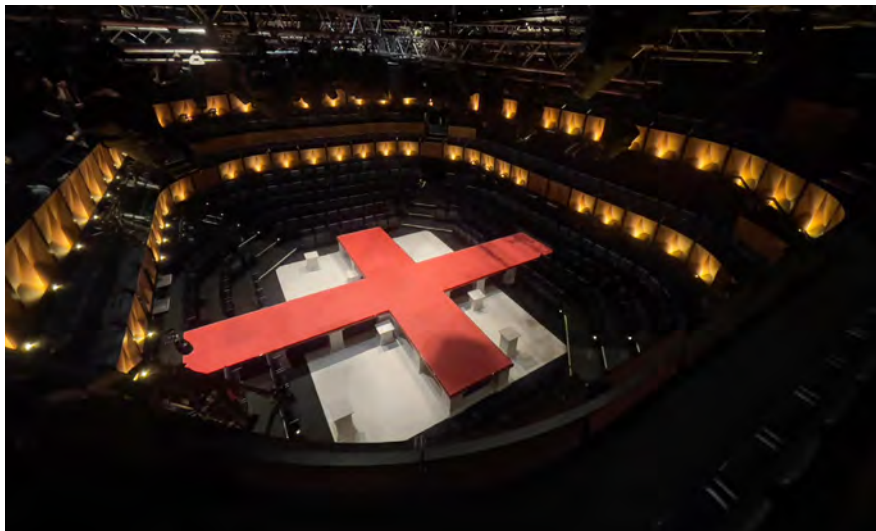
이를 위해 선재되어야 하는 것이 새로운 극장 공간이었다. 전통적인 프로시니엄에 한계를 느낀 것이다. 이 때문에 소호 플레이스를 비롯한 신축 공연장은 다른 형태의 무대를 디자인하고 있으며 <카바레 CABARET at the Kit Kat Club>(London, 2021)와 같은 작품은 전통적인 공연장을 전부 뜯어고치기까지 했다. 공연장이 아닌 건물을 직접 개조해 공간 전체를 공연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영국은 대부분의 공연장을 제작사가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의 장기 공연을 지향하므로 큰 자본을 들여 직접 공연장을 개조하거나 디자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의 공연장이 공공 문화회관이거나 공연을 직접 제작하지 않는 민간 자본이 소유하고 있으며, 3~4개월의 단기 공연만이 사업성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라 작품을 위해 극장을 신축하거나 개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몰입형 공연이 전 세계 시어터의 보편적인 경향성이 된다면 한국의 극장 또한 이에 대비해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에도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극장이 지어지길 바라며, 영국에서 신축된 공연장의 특징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1. 소호 플레이스 (@sohoplace)

전술한 바와 같이 소호 플레이스는 2022년 10월 개장하였으며, 웨스트엔드 지역에서는 50년 만에 신축된 공연장이다. 런던과 교외 지역을 잇는 철도 사업인 엘리자베스 라인의 '토타넘 코트 로드 역 (Tottenham Court Road Station)' 부근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되었다. 놀랍게도 공공 자본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세워졌는데, 웨스트엔드에만 7곳의 극장을 소유한 극장주이자 공연 제작사이기도 한 나이맥스 시어터스(Nimax Theatres)가 운영하고 있다.



소호 플레이스(@sohoplace)에 설치된 <잉글랜드의 죽음 Dead of England>(London, 2020) 무대

소호 플레이스의 특징은 약 600석의 객석이 모두 모듈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객석을 떼어내거나 추가로 설치해 무대와 객석을 연출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 360도로 배열된 객석

중앙에는 원하는 형태의 무대를 세울 수 있으며, 한쪽 벽의 객석을 떼어내고 전통적인 프로시니엄 무대를 구현할 수도 있다. 방문했을 당시, <잉글랜드의 죽음 Dead of England>(London, 2020)의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잉글랜드 국기를 상징하기 위해 4면 무대로 천장에 설치된 조명을 비추면 유니언 잭(Union Jack)이 되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독특한 무대 연출이 필요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바로 이전에 공연한 <헤더스 Heathers>(2010)처럼 프로시니엄 뮤지컬 또한 공연할 수 있다.

신축 극장인 만큼 웨스트엔드의 여타 노후한 극장과 달리 관객의 편의성도 챙겼다. 박스-인-박스(box-in-box) 형태로 외부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고 더 효과적인 음향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3층까지 관람에 문제가 없도록 시각선을 고려해 객석을 디자인했다. 난간에 기대어 관람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언제나 '난간에 기대지 말라'는 안내를 들어온 한국인으로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나이맥스의 관계자는 민간 자본으로 이와 같은 극장을 건축한 것은 도전적이었으나 혁신적인 디자인의 극장으로서, 앞으로 업계에서 전통적인 프로시니엄보다 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2. 브릿지 시어터(Bridge Theatre)

웨스트엔드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2017년에 개장한 극장이 하나 더 있다. 내셔널 시어터(National Theatre)에서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던 인물들이 개발한 브릿지 시어터(Bridge Theatre)다. 타워 브리지(Tower Bridge) 바로 인근에 위치해 웨스트엔드와 조금 거리가 있을 뿐이지 접근성도 매우 훌륭하다. 소호 플레이스와 흡사한 모듈형 극장이며 객석 수는 약 900석 규모이다. 1층의 객석을 모두



브릿지 시어터(Bridge Theatre)에 설치된 <아가씨와 건달들 Guys and Dolls>(1950) 무대

덜어내고 스탠딩 공연으로 기획하면 최대 300명의 스탠딩 관람객을 포함해 약 1,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

해당 공연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Guys and Dolls>(1950) 리바이벌은 관객이 스탠딩으로 공연을 관람하며 무대 바닥의 크고 작은 리프트가 오르내리며 무대를 꾸민다. 배우가 관객 옆을 스쳐 지나가거나 관객을 무대 위에 올리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각도로 관람할 수도 있다. 이런 장치들은 관객에게 경험해 본 적 없는 몰입감을 선사하며 이미 수없이 리바이벌된 <아가씨와 건달들 Guys and Dolls>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브릿지 시어터의 객석은 프로시니엄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는데, 해당 극장의 개관작이었던 <젊은 마르크스 Young Marx>(London, 2017)가 완벽한 프로시니엄 무대로 공연된 전력이 있다. 관계자는 이러한 가변형 극장이 생기면서 제작자가 더 다양한 형식의 공연을 기획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레이트 코멧 Natasha, Pierre & the Great Comet of 1812>(2012) 무대
제공: 쇼노트

3. 가변형 극장(Flexible Theatre)이 필요한 콘텐츠

한국에 가변형 극장이 생기더라도 이를 활용할 만한 작품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그러나 공간만 있다면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 전술한 것과 같이 원래의 프로시니엄 극장을 개조해 몰입형 공연으로 리바이벌한 <카바레 CABARET at the Kit Kat Club>(London, 2021)의 경우, 작은 원형 객석을 둘러싸고 테이블과 객석을 설치해 진정한 카바레 클럽을 만들었다. 이러한 컨셉에 힘입어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공간이 없어 제작이 요원하다. 작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히어 라이즈 러브 Here Lies Love>(2013) 또한 기존 프로시니엄 극장의 1층 객석을 모두 들어내고 클럽 형태의 스탠딩 공간을 만들었다. 영화 <위대한 쇼맨 The Greatest Showman>의 음악과 서커스를 접목한 라이브 쇼 <컴 어라이브! Come Alive!>(London, 2024)는 360도 객석을 위한 공간을 새로 건축했다.

<그레이트 코멧 Natasha, Pierre & the Great Comet of 1812>(2012), <알 앤 제이 Shakespeare's R&J>(1997), <금란방>(Seoul, 2018) 등 국내 창작진이 연출한 작품도 가변형 무대를 사용했다. 객석에 무대석을 설치하거나 원래의 객석을 뜯어내고 무대를 확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레이트 코멧 Natasha, Pierre & the Great Comet of 1812>의 경우, 더욱 몰입감 있는 무대를 위해 1층 객석의 앞줄을 뜯어내야 하는데 그러한 공사가 가능한 극장이 거의 없었다. 공연장 입장에서는 고작 3~4개월 공연할 작품을 위해 대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세종문화회관 세종S씨어터나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등과 같이 다수의 블랙박스 시어터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 규모가 매우 작고 여러 층의 객석을 설치할 수 없어 상업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이러한 형식의 콘텐츠와 공간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 또한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라이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만한 공간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변형 극장은 예술성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향후 신규 설립될 공연장 중에 이러한 대규모의 가변형 극장이 생겨나기를 기대한다.

영국 권역 연구 보고서

**K-MUSICAL
PRODUCERS'
WORKSHOP
IN NYC/LONDON
2024**

서윤미

(주)컴인컴퍼니 대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영국의 신작 개발

지난 7월, 뮤지컬 전문 프로듀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공연 관계자들을 만나 영국 공연계의 현주소에 대해 듣고, 직접 여러 극장을 방문해 시장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한 런던 웨스트엔드 공연계의 흐름을 키워드 중심으로 나누고, 한국 뮤지컬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요소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소재 선정 경향 및 관객 선호도

최근 영국 뮤지컬 신작 개발의 흐름은 크게 '탄탄한 기존 브랜딩 개발' 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Low Risk High Return)' 작품 투자로 나뉘볼 수 있다. 결국 안정적인 시장이 확보돼야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 데는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

팬데믹은 영국 공연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불황기를 지나온 터라 대형 프로덕션들은 대부분 산업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보수적인 개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브랜드 가치가 확보된 콘텐츠들을 기반으로 개발하여 안전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었다. 가수 티나 터너(Tina Turner)의 일대기를 뮤지컬화한 <티나 Tina - The Tina Turner Musical>(London, 2018),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기묘한 이야기 Stranger Things: The First Shadow>(2023)(올해 브로드웨이에서도 공연 예정) 등이 대표적인 예다.

동명의 영화를 기반으로 한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 The Musical>(Manchester, 2020)에서는 영화의 기존 틀을 가져가되 시의성을 고려했을 때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교체하고, 뮤지컬 문법에 있어서 더 적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약간의 각색을 가미했다. 아직까지도 대중문화계에서 아이코닉한 캐릭터로 남아있는 닥 브라운(Doc Brown) 역에는 뛰어난 연기력과

캐릭터 소화력으로 유명한 로저 바트(Roger Bart)를(현재는 브로드웨이 프로덕션에 출연 중) 캐스팅하였으며, 주인공인 마티 맥플라이(Marty McFly)를 맡은 배우는 영화에 출연한 배우의 악센트 및 목소리와 거의 일치하는 싱크로율을 보여주며 기존 영화 시리즈 팬은 물론, 새로운 뮤지컬 팬 모두를 사로잡는 데 성공하였다.

또 다른 기존 브랜딩 케이스로는 대표작 <슬립 노 모어 Sleep No More>, <더 번트 시티 The Burnt City> 등으로 '이머시브(Immersive)의 대가'라고 불리게 된 펀치드링크(Punchdrunk)의 신작 <비올라의 방 Viola's Room>이 있다. 이미 뉴욕과 상하이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2025년 한국에서도 <슬립 노 모어 Sleep No More>의 공연이 예정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컴퍼니 자체에 대한 두터운 팬층이 있는 컴퍼니가 개발한 신작이 기대를 모으는 브랜딩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좌석형 극장에서 벗어나 직접 감각하고 소통하는 이머시브 공연은 경험을 통해 수동적인 관객에서 주체적인 경험의 '선택자'로서의 전환이 콘텐츠에 생명력을 부여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끈 컴퍼니가 자체 브랜딩 되어 신작 개발에도 많은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팬데믹 이후 뮤지컬 시장의 관객 수는 회복되었으나 소비층의 연령 변화는 두드러졌다. 클래식 기호의 노령 관객에게서 젊은 계층으로 관객층이 바뀐 상태다. 이러한 추세는 대형 고전 공연의 리바이벌보다 신작의 개발이 우선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삼분의 일 정도가 투어 리스트였던 과거와 달리 젊은 로컬 관객들의 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는 대형 프로덕션을 제외한 젊은 프로듀서들에게도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할 기회의 장이 되기도 했다. 코미디, 송스루, 주크박스 등의 안정적인 프로듀싱에서 새로운 소재의 북 뮤지컬 위주의 공연 개발이 이루어지는 추세다. 방법적인 면에서도 젊은 관객층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택하는 성향이 두드러졌는데 <식스 Six>(Edinburgh, 2017)의 예처럼 틱톡 등의 SNS에서 후크송을 바이럴하며 인기를 끌고, 이러한 인기가 신작 성공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팬데믹은 공연계의 많은 것을 바꿨다. 제작비는 상승했으나 영국예술위원회와 지역 정부의 지원금은 상당히 줄었으며, 평균 티켓 가격 역시 줄어 50파운드 이내가 되었다. 연극은 대부분 흥행에 실패하고 있고 관객들은 여러 작품에 대한 도전적인 관람을 즐기지 않는다.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기보다는 확실한 재미나 볼거리, 감동 등이 보장되는 공연에만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추세다.

장르 면에서는 스릴러 등이 흥행 스코어가 높은 편이다. 일본 공연의 경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모티브로 한 <스피리티드 어웨이 Spirited Away>(Tokyo, 2022)를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Royal Shakespeare Company)에서 제작했으며 <이웃집 토토로 My Neighbour Totoro>(London,

2022)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영국 창작진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스피리트드 어웨이 Sprited Away>는 큰 흥행작 중 하나가 되었다. 일본 문화를 향유해 보고자 하는 도전적인 관람 목적보다는 지브리가 가지고 있던 브랜딩 파워와 작품 자체의 퀄리티 우수성이 만들어 낸 결과다. 현지화하며 지브리 감성의 아이덴티티를 함부로 변형하지 않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그대로 담아내 호평과 흥행의 대성공을 이뤄냈다.

2. 신작 개발 프로세스

신작 개발에 있어서 영국 공연계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Low Risk High Return)’의 개발 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다. 웨스트엔드 극장으로 바로 가기에는 금액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에 최근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프로세스를 통해 신작을 개발하는 편이다.

첫 번째, 지역 극장에서의 초연

영국의 2~30개 주요 도시마다 지역 사회에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지역 극장들이 존재하는데, 이곳에서는 직접 공연을 제작한다. 만약 상업극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바로 런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도시의 지역 극장에서 하나의 프로덕션을 ‘완성’한 후, 이를 프로듀서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프로듀서들은 디벨롭 과정이 아닌 완성 단계의 공연을 보며 확인할 수 있기에 위험부담이 줄어든다. 창작자들은 웨스트엔드에서의 개발에 필요한 엄청난 금액을 아낄 수 있고 지역 극장 역시 로열티를 나눌 수 있으니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도 무대에 올랐던 뮤지컬 <제이미 Everybody's Talking About Jamie>(Sheffield, 2017)와 로렌스 올리비에상(Laurence Olivier Awards)에서 베스트 뮤지컬을 수상한 <스탠딩 앳 더 스카이스 엣지 Standing at the Sky's Edge>(London, 2019) 등의 공연이 탄생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서더크 플레이하우스(Southwark Playhouse)를 들 수 있다. 많은 제작사가 이 극장에서 선보이는 신작에 주목하는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London, 2019), <타이타닉 Titanique>(1997), 로렌스 올리비에상(Laurence Olivier Awards)을 받은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London, 2019) 등이 이 극장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성공했기 때문이다.

나이맥스(Nimax)처럼 6개의 극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기업도 앤드류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로부터 인수한 4개의 극장을 시작으로, 공연장을 소유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공연을

제작한다. 이들은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Harry Potter Cursed Child> 같은 공연을 장기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더 플레이 댓 고우즈 룬 The play that goes wrong>(2012)처럼 프린지 등에서 직접 프로듀싱할 공연을 찾아보기도 하므로, 서더크 플레이하우스 혹은 런던 시내에서 멀지 않은 지역 극장 등에서 개발된 공연을 시연하고 웨스트엔드에 대형 극장을 소유한 제작사가 프로듀싱을 맡으며 극장을 변경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오프 웨스트엔드와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한 공연 개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Fringe)에는 신작 발굴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공연을 관람하는 프로듀서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본격적인 프로덕션 진행에 착수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 루트를 통해 뮤지컬 <식스 Six>(Edinburgh, 2017), <제리 스프링어 더 오페라 Jerry Springer: the Opera>(Edinburgh, 2002),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London, 2019) 등의 작품이 발굴되어 흥행에 성공했다.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영미권 허브로서의 영국 시장

결국은 매력적인 작품이 승부수가 된다.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K-콘텐츠가 글로벌화를 위해 수없이 고민하며 세계화의 문을 두드렸지만 좀처럼 열리지 않았던 세계가 ‘시기의 도래’로 인해 쉽게 문이 열렸다. 낙수가 바위를 뚫을 때처럼 타이밍이 찾아온 것이다. 개인용 매체의 보급과 확산이라는 세계적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는 K-콘텐츠 세계화의 촉매제가 되었다.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영국 공연시장에서 굳이 K-뮤지컬에 관심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무관심은 역설적으로 폐쇄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의미도 된다. 영국 공연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Low Risk High Return)’의 개발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경종을 따지자면 “로우 리스크”에 더 무게가 실려있다.

만약 ①제작 개발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②세계인의 보편적 정서를 공유해 공감을 획득할 수 있는 스토리이며 ③하이 리턴으로 갈 수 있도록 (투어와 라이선스 수익 공유 포함) 대형 극장 또는 다양한 공간에서의 확장 기회가 있는 콘텐츠라면 가능성이 있다.

현지 공연계 인사들의 영향력이 지각 변동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작품들이 시도되고 있고, 이러한 변혁기는 곧 기회가 된다. 변동기는 유연하기 때문에 폐쇄적이지 않다. 이때 매력을 장착한 콘텐츠가 있다면 한국의 작품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흐름 속에 비교적 쉽고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매력과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콘텐츠 자체의 우수성은 당연히 장착한 상태에서 차별화된 특색이 더해지는 유니크함. 영국의 많은 공연 관계자는 바로 그 매력이 ‘한국적’ 스타일에 있다고 말했다.

많은 현지 공연 관계자가 말하는 라이선스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요약하자면 ①한국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인물이나 사건이 아니면서 ②자신들이 쉽게 기획할 수 있는 영미권의 인물이나 사건이 아닌 ③전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④흥미롭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지닌 ⑤‘한국적’ 매력이 장착된 콘텐츠라고 한다.

위 요소는 하나로 연결되기에 모순을 가진다. 보편적이면서 독특하고, 쉬우면서 깊고 풍성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양질의 콘텐츠지만 ‘한국적’이라는 표현은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번역’된 표현이란 사실을 고려해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다. ‘바다’가 생성하는 ‘기의’를 푸르고 커다란 물에만 국한해 생각하면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창작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한국적’이라는 의미 역시 조금 더 열어두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①번부터 ⑤번이 모순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할 ‘한국적’ 요소 또는 ‘한국성’이란 무엇일까. 이는 전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동시대적으로 세계인과 소통하고 있는 것 중에도 숨 쉬고 있을지 모른다. 한강에서 돛자리를 깔고 앉아 맥주와 치킨을 먹는 것, 똥똥한 바나나 우유에 작은 빨대를 꽂아 마시는 것, 찜질방에서 모두 같은 잠옷을 입은 것처럼 나란히 앉아 수건으로 양 머리를 한 채 식혜를 마시고 계란을 먹는 것,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 등 이 모두가 한국의 이미지로 세계인에게 보여지고 각인된다.

이렇게 “바지런하게” 삶을 영위해 가는 한국인의 모습과 정서들은 이미 글로벌화된 K-콘텐츠 곳곳에 스며들어 매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적’인 기의로 발현될 수 있다. 다양한 SNS 채널, 유튜브, OTT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한국적’의 의미 역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적’인 것이 결국 과거의 것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사고의 폭을 넓혀 본다면 결국엔 현재의 한국 역시 전통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사고방식 등도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한국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이 만들어 낸 ‘한국성’이 잘 스며든 작품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매력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다.

한국 뮤지컬이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현지화” 과정을 거쳐 외국 창작진의 손에서 2차 창작으로 재탄생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럼에도 이 과정을 ‘한국’이 주체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보편성을 검토하고 확보하면서도 작품의 아이덴티티를 보존하고 작품만의 매력 요소를 잃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 흥행한 작품이 한국에서 성공하는 경우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기준을 한국에 두고 개발할 수는 없듯이 영국 시장이 글로벌 라이선스의 허브임을 인식하되 작품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주체적으로 지키며 다양한 반응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 작품을 기획·개발할 때 역시 마찬가지다. 라이선스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세계인의 공감을 살 만한 보편성이 확보된 이야기를 소재로 하면서도 작가의 세계관으로 주제를 구체화하고 동시대적이고 독창적인 해석을 지녀야 할 것이다.

영국 시장은 글로벌 라이선싱 허브이지 최종 종착지가 아니다. 현지화는 보편성과 독특함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영국의 신작 개발 프로세스 중 목적성을 확고히 가진 프로듀서가 프린지나 지역 공연장에서 작품을 찾는 것처럼, 한국으로 직접 공연을 보러올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영국 시장에서 성공한 신작으로 손꼽히는 <앤줄리엣 & Juliet>(Manchester, 2019), <식스 Six>(Edinburgh, 2017)는 고전에 기반하면서도 고전의 스토리를 나열하지 않고 재해석한다. 여성과 젠더에 대한 담론을 주고받으며 작품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있다. 대중에게 쉽게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이야기로 패키징했지만, 작가의 세계관으로 구축된 스토리텔링이 있다. 세계인이 동일한 콘텐츠들을 빠르게 공유하며 공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 영국 시장과 동등하게 “교환”할지 유연하게 시각을 열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

성재준

컴퍼니 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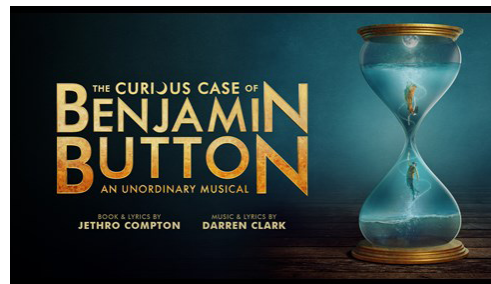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2024년의 영국 웨스트엔드는 코로나 이후 지속되어 온 보수적인 작품 제작 성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웨스트엔드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들은 대략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뮤지컬화



www.atgtickets.com



www.atgtickets.com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Manchester, 2020), <겨울왕국 Frozen> (2018), <미세스 닌아웃파이어 Mrs. Doubtfire>(Seattle, 2019), <물랑루즈! Moulin Rouge!>(Boston, 2018) 등 이미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뮤지컬 버전이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하반기에 공연 예정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The Devil Wears Prada>(Chicago, 2022), 영국 버전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London, 2019)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 클래식 뮤지컬 재공연



<지붕위의 바이올린 Fiddler On the Roof>
www.openairtheatre.com



www.atgtickets.com

<헬로 돌리! Hello, Dolly!>(1964), <지붕위의 바이올린 Fiddler On the Roof>(1964), <아가씨와 건달들 Guys and Dolls>(1950), <카바레 CABARET at the Kit Kat Club>(London, 2021) 등 오래된 고전에 속하는 클래식 뮤지컬들 또한 웨스트엔드로 돌아오고 있다. 나이맥스(Nimax)의 극장 체인을 운영하는 로렌스 밀러(Laurence Miller)는 코로나 이후 젊은 관객층이 극장으로 빠르게 복귀한 데 반해 노령층의 경우는 돌아오지 않아 클래식 뮤지컬이 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려는 듯 <아가씨와 건달들 Guys and Dolls>, <카바레 CABARET at the Kit Kat Club>는 관객 참여, 몰입형 무대로 새롭게 작품을 재단장하여 고전 뮤지컬에 젊은 층의 관객 또한 흡수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3) 주크박스 뮤지컬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음악으로 만든 <엠제이 MJ The Musical>(2021), 티나 터너(Tina Turner)의 음악으로 만든 <티나 Tina - The Tina Turner Musical>(London, 2018), 더 포 시즌스(The Four Seasons)의 음악으로 만든 <저지보이스 Jersey Boys>(San Diego, 2004) 등 글로벌 히트 뮤지션들의 음악으로 만든 작품들이 웨스트엔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www.atgtickets.com

이렇게 성공이 보증된 콘텐츠를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는 보수적인 제작 방식에 벗어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작품은 2023년에 웨스트엔드에서 오픈한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London, 2019)이다. 2023년 로렌스 올리비에상(Laurence Olivier Awards)에서 베스트 뉴뮤지컬상과 남우조연상을 받은 이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실행된 군사 작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영국 정보부는 가짜 서류를 지닌 시신을 이용해 독일군을 속이고 연합군의 침공 위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다. 다섯 명의 배우가 여러 캐릭터를 절묘하게 표현해 내고 음악적 완성도도 뛰어나 웨스트엔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스피리드 어웨이 Spirited Away>
www.spiritedawayuk.com



<기묘한 이야기 Stranger Things: The First Shadow>
www.thephoenixtheatre.co.uk

여기에 연극 작품이지만 일본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원작인 <스피리드 어웨이 Spirited Away>(Tokyo, 2022)의 성공적인 웨스트엔드 입성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례적으로 일본어 대사에 영어 자막을 통해 공연이 진행되에도 불구하고, 영국 관객들에게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글로벌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지브리의 콘텐츠와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1985)의 연출가 존 케어드(John Caird)의 훌륭한 연출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넷플릭스 시리즈를 기반한 <기묘한 이야기 Stranger Things: The First Shadow>(2023)도 오리지널 팬층을 열광시킬 만한 영리한 프로덕션을 선보였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오리지널 영상 작품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뮤지컬보다 연극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 전략은 웨스트엔드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현재 영국 뮤지컬의 시장 트렌드를 통해 확인했듯 새로운 오리지널 스토리만으로 승부수를 띄운 작품은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에 불과하다. 영국 뮤지컬 시장 내부에서 오리지널 스토리가 성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 한국의 창작뮤지컬도 같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구조상 영국의 공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창작진(작가, 작사가, 작곡가) 중에 절반 이상이 영국 거주자여야 하므로 혹 영국의 제작사와 협업을 한다고 해도 한국의 창작자로서는 공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다른 영국의 창작 작품에 비해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다.

이런 불리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한국 뮤지컬을 영국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영국 프로듀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쇼케이스 리딩,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여, 개별 제작사 피칭 등을 노려봐야 한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경우, 사전 홍보 전략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천 개의 공연 속에 파묻혀 존재감조차 드러낼 수 없기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웨스트엔드에 처음부터 도전하는 것보다는 지역 극장과의 협업을 통해 작품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초기 기획 단계라면 지브리의 작품처럼 글로벌 흥행을 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뮤지컬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을 통한 한국 뮤지컬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연구

이번에 필자가 만난 공식 프로그램 연사들은 공통적으로 뮤지컬 <식스 Six>(Edinburgh, 2017)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제2의 <식스 Six>를 찾고 있다는 코멘트와 함께 말이다. 왜 영국의 관계자들은 최근작도 아닌 2019년 웨스트엔드 초연작인 이 작품에 대해 유독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



<식스 Six>
www.nimaxtheatres.com

그 답은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에서 언급했듯 영국 웨스트엔드의 흥행 현상 유지는 보수적인 작품 선정 방식이라는 데 근거한다. ①성공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뮤지컬화 ②클래식 뮤지컬의 재공연 ③주크박스

뮤지컬. 그러나 <식스 Six>는 이런 세 가지 공식을 모두 뛰어넘고 심지어 유명 캐스팅 없이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해상같이 등장하여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까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작사들에게는 환상적인 작품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작품이 현재 영국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식스 Six>를 주로 이야기한다.

이렇듯 영국 내부에서도 오리지널 스토리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뮤지컬이 영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앞서 제시했던 리딩 쇼케이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개별적 피칭, 지역 극장과의 연합, 글로벌 콘텐츠로 접근 등의 일반적인 시도를 고려해봐야겠으나 좀 더 근본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과거에 비해 영국 공연 관계자들도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성장에 관해 잘 인지하고 있다. 영국의 뮤지컬들이 라이선스로 많이 진출되고 있는 상황이기엔 한국과의 작업도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 중 한국 뮤지컬을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다.

K-드라마의 전 세계적인 성공에는 글로벌 OTT의 기여가 컸다. 언제든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핸드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K-뮤지컬이 아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제작사 간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데 있다. 자국에서 2시간 정도만 비행하면 한국의 다양한 뮤지컬을 볼 수 있기에 직접 극장에서 현장감을 느끼며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 뮤지컬의 아시아 시장 진출에 큰 몫을 담당했다. 나이맥스(Nimax)의 극장 체인을 운영하는 로렌스 밀러(Laurence Miller)도 극장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극장의 공연들을 보러다닌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뮤지컬은 그 기회를 얻기 힘들다. 강연 한번 잡기도 어려운 그가 한국의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는 14시간 30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최소한 1시간 30분은 차로 움직여야 공연장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뮤지컬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영국의 제작사와 관객이 한국 뮤지컬을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영상 매체를 활용해 꾸준히 한국 뮤지컬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주영한국대사관이나 한국 뮤지컬 영상 페스티벌을 기획하는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K-드라마와 K-영화의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은 다양한 플랫폼을 토대로 해외 관객이 완성도 있는 한국 작품을 직접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팬층이 형성되며 시작됐다. 이제 한국 뮤지컬계에도 그러한 전략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영국 권역 연구 보고서

**K-MUSICAL
PRODUCERS'
WORKSHOP
IN NYC/LONDON
2024**

이성모

콘티 대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들로 가득한 '뮤지컬 테마파크'

영국에 있는 동안 크고 작은 다양한 공연장에서 총 8개의 작품을 보면서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부러움'이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진 객석 모습이 부러웠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성인들은 맥주나 위스키를 마시며 공연을 즐기는 모습들이 부러웠다. 멋진 공연을 통해 눈과 귀, 마음뿐만 아니라 입안까지도 달콤함으로 채워지고 있는, 공연장에서의 기억과 추억이 즐거움과 감동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상적인 아래의 조건들이 무척이나 부러웠다.

신-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시장

1985년 초연된 뮤지컬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1985)은 여전히 성업 중에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최근 개발된 뮤지컬 <위키드 Wicked>(San Francisco, 2003)와 <라이온 킹 The Lion King>(Minneapolis, 1997)도 연일 매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롭고 신선한 작품들로 인해 뮤지컬의 감동을 느낀 젊은, 그리고 점차 성숙해지는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으로,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로 넘어오며 신-구 작품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 갖추어졌다. 그 사이에서 트렌디한 신규 작품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치열한 분석과 작품성으로 무장하여 다양한 집단과 기관의 검증, 검토를 통해 웨스트엔드에 입성하는 모습이었다. 안정적인 공연 회차를 확보하며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 활동이 전개되는 토대 위에서 순항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뮤지컬 라인업

현장에서 관람한 <엠제이 MJ The Musical>(2021)는 미국의 레전드 팝 가수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을 소재로 한 뮤지컬이다. 2009년에 세상을 떠난 마이클 잭슨을 어린이와 10대 청소년들이 잘 알고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공연장에는 무대극으로 새로 태어난 마이클 잭슨을 추억하러 온 내 또래 40대부터 마이클 잭슨과 동시대를 살아온 6~70대로 보이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이 가득했다. 물론 그들의 자녀들도 함께였다. (3대가 함께 온 관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내 자리 앞쪽에도 옆쪽에도 뒤쪽에도 있었으니까.) 그러니 인터미션 시간에는 그야말로 가족들 간 대화의 장이 열렸다.

"아빠! 마이클 잭슨은 내 나이였을 때 이미 무대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 그러니까 너도 지금처럼 열심히 플루트를 연주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아마도 꼬마 아이가 플루트를 배우고 있었나 보다.)

"할아버지도 스타를 좋아했어요?"

"너는 저스틴 비버를 좋아했지? 내가 네 나이일 때 내가 좋아했던 스타가 바로 마이클 잭슨이란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앞, 뒤, 양옆 관객들의 흥얼흥얼 노랫소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노래를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와 그 눈물을 닦아주는 어린 소녀의 모습은 작품 외에도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감동이었다.

친숙한 원작들에 기반한 작품들






원작을 토대로 한 작품이 많기에 공연장 건물의 간판들과 거리의 홍보물 게시대의 포스터들이 낯설지 않았다. 어린이가 좋아하는 <라이온 킹 The Lion King>(Minneapolis, 1997), <겨울왕국 Frozen>(2018), <스피리티드 어웨이 Spirited Away>(Tokyo, 2022)가 무대극으로 되살아나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애니메이션 속 신비한 장면들을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궁금한 어린이의 보호자들도 누군가의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작품을 즐기려는 관객의 모습이었다. 작품의 메시지가 따스하고 교훈적이며 변하지 않을 소중한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는다면 지금의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이나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처럼 스테디셀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과거 8~90년대에 영화로 접했던 <시스터 액트 Sister Act>(Pasadena, 2006)와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 The Musical>(Manchester, 2020)의 경우 지금의 부모들이(30~40대) 자녀 세대와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때 당시 그렸던 미래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며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 간 대화할 요소들이 생성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예상되는 작품이었다.

아래와 같이 원작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의 공통점은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데 있다. 원작이 친숙하고 주제나 메시지가 보편적이며 전 세계에서 흥행했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어 현재와 견주며 무언가를 배울 만한 교훈적 성격이 있다는 점, 따스한 인간애나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인성과 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또한 공통으로 발견되는 특성이었다.

<지금도 흥행 중인 가족 타깃 웨스트엔드 뮤지컬>

no	공연 포스터	공연명	원작
1		뮤지컬 위키드 Wicked	그레고리 맥과이어(Gregory Maguire)의 소설 "위키드"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작품이다.
2		연극 기묘한 이야기 Stranger Things: The First Shadow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제작된 연극이다.
3		뮤지컬 시스터 액트 Sister Act	1992년 개봉된 조셉 하워드(Joseph Howard)의 영화 <시스터 액트>를 기반으로 제작된 뮤지컬이다.
4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	가스통 루르(Gaston Leroux)의 소설 『오페라의 유령』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다.
5		뮤지컬 마틸다 Matilda the Musical	로알드 달(Roald Dahl)의 소설 『마틸다』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다.

no	공연 포스터	공연명	원작
6		뮤지컬 미세스 닷아웃파이어 Mrs. Doubtfire	1994년 개봉되었던 영화 <미세스 닷아웃파이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7		뮤지컬 라이온 킹 The Lion King	1994년에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을 원작으로 제작된 뮤지컬이다.
8		뮤지컬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소설 『레 미제라블』을 바탕으로 제작된 뮤지컬이다.
9		뮤지컬 겨울왕국 Frozen	2014년 개봉된 동명의 애니메이션 원작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10		뮤지컬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	1987년 영화 <백 투 더 퓨처>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 외에도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가수 아바(ABBA)의 곡을 기반으로 제작된 뮤지컬 <맘마미아 Mamma Mia>(London, 1999), 전설적인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의 노래와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엠제이 MJ The Musical>도 상연되고 있으며, 일본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 <스피리티드 어웨이 Spirited Away> 또한 활발하게 공연되고 있었다.

웨스트엔드 뮤지컬의 기획을 닮아가기 위해 내딛는 한 걸음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 Your Lie in April>(Tokyo, 2022)을 보며 부러움과 안도감이 함께 들었다. 일본 배우들이 (유창하지는 않지만) 영어 대사를 숙지해 연기하고 노래하는데 다양한 국적의 관객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했다. 앞서 언급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복수의 작품이 웨스트엔드에 진출해 관객을 만나고 있는 현실이 그저 부러웠다. 그러면서도 안도감이 들었던 이유는 국내 창작뮤지컬이 이 작품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는지가 중요하다. 웨스트엔드를 찾는 관객들은 '독특하다'(unique)고 한다. 분명 새로운 작품들을 갈망하면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유행과 너무 크게 동떨어진 주제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 외면한다고 했다. (데비 브리지 Debbie Bridge, 배우)

이러한 측면에서 피칭 때 내가 언급했던 우리 회사 작품, 뮤지컬 <1976 할란카운티>(Busan, 2019)는 흥미롭게 들렸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분명히 한국 창작뮤지컬임에도 미국 광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할란카운티 USA Harlan County U.S.A.>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등 사회적인 이슈가 접목되어 있는데다, 무엇보다 희생과 헌신, 윤리 등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뮤지컬 <1976 할란카운티>(Busan, 2019)
극작·연출: 유병은, 작곡: 강진명, 안무: 홍유선, 제작: 콘티(Con.T)

국내 공연의 영국(웨스트엔드) 진출을 위한 전략 연구

- 연극 <인계점>을 중심으로

금번 '뮤지컬 프로듀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래의 두 가지는 반드시 얻고 오겠다는 명확한 목표와 의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웨스트엔드에서 공연 중인 작품들을 분석하고 공통점을 스스로 찾아내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웨스트엔드 공연시장과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Fringe)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고 그 둘의 접점을 발견하는 일이었다.

이 두 가지를 위해 부단히 질문하며 때로는 집요하게 직접적인 조언을 듣고자 노력했다. 감사하게도 웨스트엔드에서 오랫동안 프로듀서로 활동한 크리스 그레디(Chris Grady, 이하 크리스)와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에 대한 '단독 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내가 택한 전략은 '현재 내가 가진 계획을 모두 다 오픈하고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받고 평가 받아보기'였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참가 계획과 목표를 브리핑했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로 '경험'을 쌓고자 한다

- (웨스트엔드에 진출하기 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해 참가함으로써 작품의 가능성을 타진해 봄과 동시에 작품의 수정 방향이나 추가해야 할 장면과 삭제해야 할 장면을 도출해 본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전제부터 '틀렸다'고 평가받았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참가 목표가 '경험(experience)'이어서는 안된다는 게 요지다. 유료 관객을 만나는 프로젝트를 '경험'으로만 치부하기엔 이곳 영국, 그리고 에든버러에서의 시간은 적지 않은 금전적 비용 지출을 수반한다. (그 비용을 어딘가에서 후원 또는 지원받는다 할지라도 말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잘 관리하여 흥행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에든버러에 진출한 수많은

작품이 수천 편에 달하는 작품 속에 묻혀 커다란 손실을 보기도 한다고 했다. 그렇기에 현지 프로모터 또는 프로듀서들과 작품에 대한 사전협업망(pre-collaboration network)을 조직하여 작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며 준비하되, 소수의 필수 인원만 참여해 체재비에 대한 비용적 부담을 반드시 줄일 것을 조언받았다. 이 체재비에 대한 비용적 부담을 줄여 그 비용의 일부를 현지 마케팅 전문가와 홍보 전문가에게 보다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공연이 가지고 있는 주제와 메시지에 대하여

- 한국 사회에서 독특하게 발견되는 현상일 것이다. 후진국처럼 보일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국만이 가진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 대한민국의 외상외과 의사들이 아주 힘든 상황이다. 작품 <인계점>은 이 외상외과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단 한국 사람들은 '헬기 소리'를 싫어한다.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소리일 텐데 소음으로 여기며 병원에 헬기 날리지 말라고 민원을 하는 상황이다. 이게 말이 되나? 이 작품으로 전 세계의 관객들에게 우리 의료 사회의 실상을 알리고 작품의 메시지에 대해 공감받길 희망한다.

이에 대한 크리스의 답변은 간단명료했다.

주제가 아주 좋아. (The topic is really good.)

그리고 본인도 헬기 소리를 싫어한다고 했다. (I don't like the sound of helicopters either.) 이어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아마 영국 사람들도 헬기 소리 싫어할걸. 그러나 그들은 병원에 민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아마도 그건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일 거야. (I bet people in the UK dislike it too. However, they probably wouldn't file a complaint with the hospital. That's because Koreans tend to be more proactive in asserting their rights.)

그러니 '한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한 이야기야. 너희들 모두 다 헬기 소리를 싫어하잖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영국에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사회 문제'를 다룬 공연에 대해 얼마나 호기심을 가질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는 주제에 더욱더 호기심이 생긴다고 했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 시 프로덕션 구축 방안

- 우선 5인의 배우, 무대감독과 오퍼레이터, 다양한 역할을 겸할 PD 1~2인 정도, 총 9~10명 정도를 예상한다.

내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야기했다.

인원이 너무 많아! (It seems like there are too many people involved.)

추가로 준비한 공연의 소개 자료와 부가 설명을 들은 크리스는 반드시 5명이 출연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러면서 연극 <프리마 페이스 Prima Facie>(2019)라는 작품을 아느냐고 물었고 알고 있었기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날카로운 조언들이 이어졌고 난 지극히 공감했다.



<프리마 페이스 Prima Facie>(2019) 1인극 작품이다.

- 작품의 주제나 메시지를 유지하면서 1인극으로 각색해 보면 어떨까?
- 연극보다는 뮤지컬로의 전환은 어떨까? (1인 뮤지컬을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
- 배우 1인,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스태프 1인과 당신(나), 그리고 연출가 이렇게 넷이 에든버러로 향하는 방법을 추천해.
- 당신과 연출가는 각각 음향, 조명 오퍼레이터로 함께할 생각을 가지고 와야겠지.
- 음향과 조명에 대한 세팅과 메모리 등은 걱정하지 마. 여기 현지에도 충분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이들의 참여 비용은 한국의 전문가가 와서 작업해 놓은 후 한국으로 복귀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절감돼.

에든버러 또는 웨스트엔드에서 공연하고자 한다면 불변의 진리나 가치(universal truth, immutable values)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일 수 있다.

더 멋진 음악과 예술가들의 표현력과 연기력, 예술가의 인지도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아마 BTS 같은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웨스트엔드에서 오랫동안 공연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단 작품의 주제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 작품의 주제와 메시지가 지속성을 갖는가.
- 한때 반짝할 일시적인 트렌드나 현상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았나.
- 한국 작품이라고 너무나 한국적인 (외국인에게 친숙하지 않은) 문화적 특성을 작품의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가.

크리스는 위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물론 한국의 아티스트, 대중문화 예술 콘텐츠 중에 전 세계적으로 인지된 원작 또는 인물, 음악, 미술 등의 예술 작품 등에 기반한 작품이라면 시도해 볼만 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내게 물었을 때 난 당연히 그렇다고 답하지 못했다.

웨스트엔드로 가기 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를 목표로 하는 작품 <인계점>은 위의 참가 목표, 주제와 메시지, 프로덕션 구축 방안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하며 현지 프로모터, 프로듀서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다양한 리스크를 줄이는, 즉 변수를 상수로 바꿔낼 수 있는 전략 수립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현재 5인이 연기했던 연극 <인계점>을 1인이 연기하는 뮤지컬 <Helipad>로 장르 및 제목을 수정하고, 대본 수정과 곡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느끼고 배운 대로 계획·수립하고 실행하여 보다 완성도 있는, 그러면서도 독특하게 표현되어 예술적 재미를 가진,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한 좋은 주제와 메시지를 담은 공연으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를 잘 준비하고자 한다.

이 예 지

프리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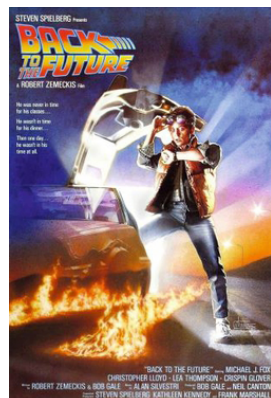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영국 공연 트렌드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융합, 사회적 메시지의 강화, 그리고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웨스트엔드 무대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 공연예술계에서 두드러지는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트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원작 콘텐츠의 뮤지컬화

소설, 영화, TV 시리즈 같은 기존 콘텐츠를 뮤지컬로 각색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검증된 이야기와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며 경제적 성공 가능성도 크다.

예를 들어 영화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는 뮤지컬로 제작되어 무대에서 시간여행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기술적 요소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겨울왕국 Frozen> 역시 애니메이션의 성공을 바탕으로 무대에서 환상적인 특수 효과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다.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 영화 포스터
출처 : en.wikipedia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 The Musical>(Manchester, 2020)
뮤지컬 공연 사진
출처 : backtothefuturemusical.com/london



<겨울왕국 Frozen> 영화
포스터
출처 : en.wikipedia



<겨울왕국 Frozen>(2018) 공연 사진
©photo by JOHAN PERSSON

2. 다양성과 포용성 강조

최근 영국 공연계에서는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무대에 오르며 포용성을 강조하는 작품이 증가하고 있다. <해밀턴 Hamilton>(2015)은 흑인과 히스패닉 배우들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연기하며 전통적인 캐스팅 규범을 깨뜨렸고 <제이미 Everybody's Talking About Jamie>(Sheffield, 2017)는 젠더 다양성, 자기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이야기한다. 특히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식스 Six>(Edinburgh, 2017)는 헨리 8세의 여섯 아내의 이야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페미니즘과 여성의 목소리를 강조하며 다양한 인종의 배우를 캐스팅해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해밀턴 Hamilton>(2015) 포스터 & 공연 사진
출처 : en.wikipedia.org & ©photo by Danny kaan



<제이미 Everybody's Talking About Jamie>(Sheffield, 2017) 포스터 & 공연 사진
출처 : en.wikipedia.org & © photo by Matt Crockett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London, 1986) 공연 포스터 & 공연 사진
출처 : www.theatre crafts.com & ©Photo by Johan Persson



<식스 Six>(Edinburgh, 2017) 포스터 & 공연 사진
출처 : en.wikipedia.org & officialtheatre.com/lyric-theatre

3. 고전의 현대적 재해석

셰익스피어와 같은 고전 작품들이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되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가고 있다. 현대적 연출과 의상, 그리고 현재의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각색은 고전을 새로운 세대의 관객들에게 매력적으로 전달한다.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오페라의 유령』, 『레 미제라블』 같은 클래식 작품들이 다양한 프로덕션의 손길을 거쳐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4. 혁신적인 무대 기술의 도입

첨단 무대 기술을 활용해 시각적 경험을 극대화하는 작품들이 많다. LED 스크린, 프로젝션 매핑 (Projection Mapping), 증강현실(AR)과 같은 기술은 무대에서의 몰입감을 높이고, 관객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Harry Potter Cursed Child>(2016)는 무대 위에서 마법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으며, <스타라이트 익스프레스 Starlight Express>(London, 1984)는 배우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무대를 질주하는 독창적인 무대 기술을 활용하는 등 무대 전환과 역동적인 연출이 주목받고 있다.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Harry Potter Cursed Child>(2016) 공연 사진



출처 : palacetheatre.co.uk



<스타라이트 익스프레스 Starlight Express>(London, 1984) 공연 사진



출처 : starlightexpresslondon.com

5. 이머시브(Immersive) 및 인터랙티브(Interactive) 공연

'좌석에 앉아 감상하는' 전통적인 형식을 넘어 관객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이머시브 공연이 인기를 끌고 있다. 관객은 공연의 일부가 되어 무대 위 캐릭터들과 상호작용하거나 공연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2022)는 관객이 1920년대 파티 게스트로 참여하는 형태로, 극 중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펀치드링크(Punchdrunk)의 <슬립 노 모어 Sleep No More>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기반으로 한 이머시브 공연으로, 관객들은 가면을 쓴 채 여러 층으로 구성된 무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관찰할 수 있어 매번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6.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작품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다룬 작품들이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 인권, 성평등, 환경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반영한 뮤지컬과 연극들이 웨스트엔드 무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1985)은 여전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디어 에반 헨슨 Dear Evan Hansen>(Washington, 2015)은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나 난민 문제와 같은 이슈를 다룬 작품들도 주목받고 있다.



<디어 에반 헨슨 Dear Evan Hansen>
(Washington, 2015) 공연 사진
출처 : londontheatredirect.com

7. 오리지널 신작과 실험적 작품의 증가

전통적인 뮤지컬과 연극 외에도 실험적 형식으로 제작된 오리지널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독창적인 연출과 파격적인 스토리라인을 통해 웨스트엔드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중이다.

특히 소규모 극장에서는 이런 실험적 작품들이 활발히 제작되며 공연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탐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공연 트렌드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공연예술이 관객과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웨스트엔드 트렌드를 반영한 작품:

<스탠딩 앳 더 스카이스 엣지 Standing at the Sky's Edge>(London, 2019)는 현대 영국 공연의 주요 트렌드를 반영한 작품이다. 영국 셰필드(Sheffield)의 파크힐 아파트에서 살아온 3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탐구하며 사회 주택 문제, 도시 개발, 계층 간의 불평등, 지역 공동체의 붕괴 같은 주제를 다룬다.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을 통해 각 세대의 경험을 보여주며 포용성과 사회적 다양성을 강조한다. 또한 리차드 하울리(Richard Hawley)의 록, 인디, 포크, 블루스 음악을 결합해 각 세대의 분위기와 캐릭터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처럼 영국 공연계의 트렌드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객과의 깊은 소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 작품이 웨스트엔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국 공연계의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한국만의 독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 사회적 메시지와 주제의 선택

현대 사회의 이슈를 다룬 작품이 웨스트엔드에서 주목받는 만큼, 한국 작품도 글로벌 관객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인권, 성평등, 환경문제와 같은 세계적인 사회적 이슈를 다루되 한국적인 요소를 적절히 결합해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는 작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를 다루거나 전통과 현대화의 충돌을 주제로 삼아 현대적 감각을 더한다면 충분히 관객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다.

2. 다양성과 포용성 강화

다양한 인종, 성별, 성적 지향을 반영한 캐스팅과 스토리라인을 통해 포용성을 강조하고 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3. 장르의 융합과 기술적 혁신

전통적인 뮤지컬 형식을 넘어서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결합한 실험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해 독창적인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거나 시각적 효과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무대의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문화적 교류와 협업 강화

한국과 영국의 제작 협업을 통해 두 문화의 특성이 잘 결합된 작품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적인 요소에 글로벌한 감각을 더한 작품을 통해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시킨다면 한국 공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글로벌 마케팅 전략과 현지화

웨스트엔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수적이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 뮤지컬의 매력을 홍보하고 현지 관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야 한다.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강조하되 영국 관객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적절히 현지화된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6. 한국적인 콘텐츠와 영국 트렌드의 균형

한국적인 매력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영국 공연계의 트렌드를 반영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국의 전통 설화나 역사적 인물을 다루되 이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영국 관객에게도 친숙하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민속 설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에 현대적 요소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결합해, 현재 웨스트엔드에서 인기 있는 스타일과 결합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을 듯하다.

이런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 작품이 웨스트엔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영국 공연계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반영하되 한국만의 독창성과 매력을 살린 작품을 통해 한국 공연예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고 웨스트엔드에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영국 공연장의 수익 구조와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연구

영국의 공연장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술적 성과를 이루며 다양한 실험적 작품과 흥행성을 겸비한 공연들로 많은 관객을 유치하고 있다. 공연장은 규모, 운영 방식, 제작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각각의 특성과 수익 창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영국 공연장의 유형과 수익 창출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된 공연시설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1. 영국 공연장의 유형

영국의 공연장은 크게 웨스트엔드 극장, 영국 국립극장 및 공공극장, 지역 극장, 독립 극장 및 실험 극장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 표는 각 공연장의 유형별 특징과 대표 극장을 정리한 것이다.

공연장 유형	규모	운영 방식	제작 방식	주요 수익원	대표 극장
웨스트엔드 극장 (상업 극장)	대극장 (500명 이상)	민간 소유, 상업 극장	유명 배우와 저명한 창작진 기용	티켓 판매, 기념품 및 굿즈 판매, 바와 레스토랑 운영, 스폰서십 등	히즈 메저스티스 시어터(His Majesty's Theatre), 손드하임 시어터(Sondheim Theatre) 등
국립극장 및 공공극장	중대극장 (300~1,000명)	공공기관, 자선 단체 운영	자체 레퍼토리 시스템 운영	정부 보조금, 기부금, 티켓 판매, 디지털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수익 등	영국 국립극장 (National Theatre),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Royal Shakespeare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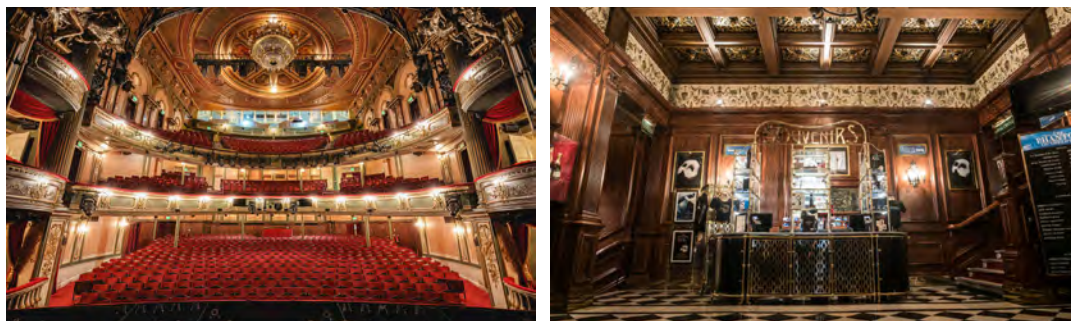
공연장 유형	규모	운영 방식	제작 방식	주요 수익원	대표 극장
지역 극장	중소극장 (200~800명)	자선 단체 또는 지역 자치 단체 운영	지역 특성에 맞춘 작품 제작	보조금, 기부금, 티켓 판매,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극장 대여	셰필드 크루시블 시어터(Sheffield Crucible Theatre), 로열 익스체인지 시어터(Royal Exchange Theatre)
독립 극장 및 실험 극장	소극장 (50~200명)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으로 운영	신진 아티스트의 실험적 작품 상연	티켓 판매, 기부금, 카페 및 바 운영, 교육 프로그램 및 극장 대여	서더크 플레이하우스 (The Southwark Playhouse), 부시 시어터(The Bush Theatre)

1) 웨스트엔드 극장(상업 극장, Commercial Theatres)

영국의 상업 극장은 공연을 상업적으로 제작하고 배급하는 극장으로, 특히 런던의 웨스트엔드 지역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 극장들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며 관객을 유치하고 티켓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다. 상업 극장에서 주로 상연되는 작품은 대중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뮤지컬, 인기 드라마, 고전 작품 등이다.

상업 극장은 인기 있는 작품을 장기간 공연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공연은 수년간 계속되며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 이들은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와 기업 후원자를 모집하며 성공적인 작품은 다른 지역으로 투어를 떠나거나 브로드웨이와 같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도 한다.

영국의 상업 극장은 글로벌 공연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많은 해외 작가와 감독들이 영국에서 작품을 발표하기 원한다. 이처럼 상업 극장은 공연예술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통해 관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히즈 메저스티스 시어터(His Majesty's Theatre) 출처 : palacetheatre.co.uk



(좌, 중) 손드하임 시어터(Sondheim Theatre) (우) 빅토리아 팰리스 시어터(Victoria Palace Theatre)

출처 delfontmackintosh.co.uk

2) 국립극장 및 공공극장(제작 극장, Producing Theatres)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과 공공극장은 300명에서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중대형 극장으로, 제작 극장(Producing Theatres)으로도 분류된다. 이 극장들은 공공기관, 자선 단체 또는 비영리 조직이나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된다.

이들은 자체 레퍼토리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고전극과 현대극을 교차 상연하며 창작극 및 실험적인 작품에도 도전한다. 예술성과 사회적 공헌을 중시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수익원으로는 보조금, 기부금, 티켓 판매 등이 있으며 공연장 내 부대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대표 극장으로는 영국 국립극장과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가 있다.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

©본인 촬영

로열 셰익스피어 시어터(Royal Shakespeare Theatre)

출처 <https://www.rsc.org.uk/your-visit/royal-shakespeare-theatre>

Photo by David Tett©R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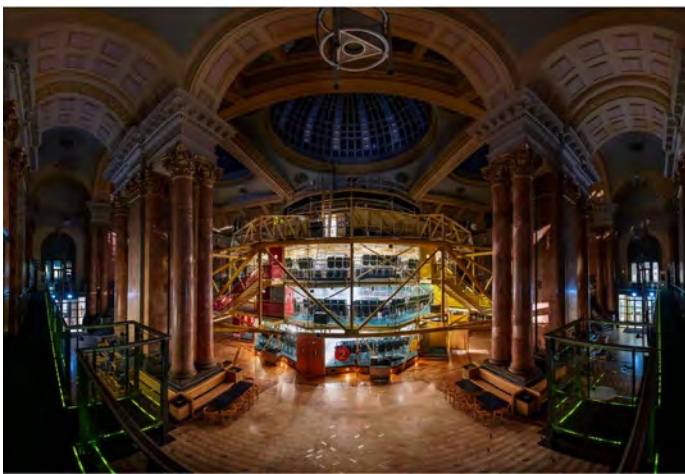
3) 지역 극장(Regional Theatres)

지역 극장은 200명에서 8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중소형 극장으로,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운영된다. 이들 극장은 자선 단체나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운영되며 주로 로컬 아티스트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춘 공연을 제작한다.

각 지역 극장은 그 지역에서 중요한 문화적 중심지로 기능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공연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주요 수익원인 보조금과 기부금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극장 대여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



셰필드 크루시블 시어터(Sheffield Crucible Theatre)
출처 en.m.wikipedia.org



로열 익스체인지 시어터(Royal Exchange Theatre)
출처 <https://www.royalexchange.co.uk/about-us/our-history/>

4) 독립 극장 및 실험 극장(프린지 극장, Fringe Theatres)

'주류의 가장자리'라는 뜻의 프린지 극장(Fringe Theatres)은 상업 극장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소규모 극장이다. 보통 50석에서 200석 사이의 규모로,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의 창의적인 공연이 이루어진다.

프린지 극장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덕션보다는 배우의 연기와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둔다. 신진 작가, 배우, 연출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며 경력을 쌓는 장소로,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 차후 주류 극장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

런던의 프린지 극장은 소규모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신진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주류 상업 극장과는 달리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올라오며, 예술적 도전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런던에는 이러한 프린지 극장이 많이 존재하는데 극장마다 독특한 분위기와 운영 방식으로 예술가와 관객을 맞이한다.

2. 영국 공연장의 주요 수익원

수익원	설명
티켓 판매 (Ticket Sales)	공연장의 기본적인 수익원
푸드 & 음료 판매 (Food & Beverage)	공연장 내 바, 카페, 레스토랑에서 음료와 간단한 음식 판매
기념품 및 상품 판매 (Merchandising)	공연 관련 굿즈(프로그램 북, 포스터 등) 판매
공연장 대관 및 행사 (Venue Hire & Events)	공연장 대여와 외부 행사를 통한 수익 창출
스폰서십 및 후원 (Sponsorship & Partnerships)	기업의 스폰서십 및 후원을 통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
공공 지원 및 기부 (Public support & Donations)	정부 기관의 지원 시스템이나 기부 시스템을 통한 재정 지원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Training & Workshop)	지역 커뮤니티와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콘텐츠 및 스트리밍 (Digital Content and Streaming)	온라인 스트리밍이나 디지털 콘텐츠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영국 공연장은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수익원은 공연장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수익원은 **티켓 판매**로, 공연 관람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며 다양한 가격대의 티켓을 통해 폭넓은 관객층을 유치한다. 특정 공연의 인기나 평판에 따라 이 수익은 크게 변동할 수 있다.

또한 **푸드&음료(F&B) 판매**는 공연장 내 바, 카페, 레스토랑에서 음료와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이 높은 이유는 관객들이 공연 전후 또는 중간 휴식 시간에 음식을 소비하며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 규모가 커질수록 F&B 판매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기념품 및 상품 판매 또한 공연장의 주 수익원으로 볼 수 있다. 관객들이 공연을 기념하기 위해 이러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연장 대관 및 이벤트는 외부 행사 개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기업 이벤트나 사회적 행사도 공연장 대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스폰서십 및 후원(Sponsorship & Partnerships)은 기업 후원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공연장과 협력하는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특별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공공 지원과 기부는 중소규모 극장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적 자원으로, 국립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와 같은 정부 기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공 기금은 공연장 유지 및 작품 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극장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극장은 커뮤니티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기부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 자금을 모금한다. 기부자들에게는 특별한 감사의 표시로 우선 좌석 예약, 무대 뒤 투어, 배우와의 만남 등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여 기부 참여를 장려한다. 이를 통해 공공극장은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예술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은 지역 커뮤니티와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기적인 수익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관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디지털 콘텐츠 및 스트리밍 서비스는 여러 극장과 공연 단체들이 적극 활용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관객에게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은 “National Theatre

Live”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영화관과 “National Theatre Live at Home” 플랫폼에서 공연을 스트리밍하여 현장 방문이 어려운 관객이 집에서 공연을 즐기도록 한다.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Royal Shakespeare Company)는 “RSC Live”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주요 셰익스피어 작품을 글로벌 관객에게 제공하며, 셰익스피어 글로브(Shakespeare's Globe) 극장도 “Globe Player”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최신 공연과 아카이브된 셰익스피어 작품을 스트리밍하고 있다. 또한 새들러스 웰스(Sadler's Wells)의 “Digital Stage”와 올드 빅(The Old Vic)의 “In Camera” 프로그램을 통해 무관중 공연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공연 단체들이 새로운 관객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국의 극장들은 각기 다른 성격과 운영 방식을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양한 부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관객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 카페 운영, 기념품 판매, 공간 대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원 및 멤버십,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제공은 극장의 재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관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3. 공연장 운영 방안 제언

수익원	설명
다양한 수익원 개발	티켓 판매, F&B, 기념품, 디지털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한 수익의 다각화
디지털 콘텐츠 활용	온라인 공연 중계 및 디지털 형식 공연 판매를 통해 관객층 확대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교육	지역 사회 참여 유도 및 공연장에 대한 친밀감 형성, 장기적인 관객층 확보
협력과 후원 유치	기업 후원 및 광고 수익 유치, 지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상호 이익 도모
프로그램의 다양성	여러 장르와 스타일의 공연을 상연하여 다양한 관객층 확보
최신 기술의 접목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시각적 경험 강화 및 공연의 퀄리티 향상
투어 프로그램 운영	공연장 투어를 통한 극장 공간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경험 제공, 극장과 관객 사이의 관계 강화

영국의 공연장들은 다양한 수익 구조를 통해 예술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공연장도 이를 참고하여 운영 모델을 개선할 수 있다.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하는 것은 공연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티켓 판매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대시설 운영, 기념품 판매, 디지털 콘텐츠 및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수익 모델을 도입하여 재정 기반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공연을 중계하거나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된 공연을 판매하는 것은 더 많은 관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한 전략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연장에 대한 친밀감과 연대감을 높여 장기적인 관객층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업 후원 및 광고 수익을 유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지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장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공연을 통해 여러 유형의 관객을 유치하고 이들을 통해 다양한 관객층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관객들에게 독특하고 풍부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고 관객의 몰입도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공연장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투어 프로그램은 관객에게 공연 이외에도 극장 공간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극장과 관객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영국의 공연장들이 채택한 다양한 운영 전략은 예술적 성장과 재정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공연장도 이러한 사례를 통해 관객층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기회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과의 관계를 심화해야 한다.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유형의 관객을 유치하고 기업 후원 및 지역 사회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공연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통해 공연장이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최종혁

(주)네버엔딩플레이 대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트렌드는 항상 변한다. 한국도, 영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국과 영국의 트렌드 변화 양상은 확연하게 달랐다. 대체 무엇이 트렌드를 만들고 이끄는 것일까? 한국의 네버엔딩플레이는 여성 서사 공연을 연달아 올렸다. 뮤지컬 <브론테>(Seoul, 2022)를 시작으로, 젠더 프리(Gender Free)로 진행한 뮤지컬 <수레바퀴 아래서>(Seoul, 2023), 뮤지컬 <제시의 일기>(Seoul, 2023), 뮤지컬 <카르밀라>(Seoul, 2024), 얼마 전 막을 내린 뮤지컬 <접변 蝶变>(Sanghai, 2023)까지. 창작뮤지컬 시장에서 유일하게 여성 서사에 집중하여 공연을 제작했다. 2022년 말에 시작한 <브론테>를 필두로 최근 여성 서사 작품이 많아지고 관객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다. 관계자들은 '여성 서사'가 트렌드가 되었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영국의 트렌드는 달랐다. 사실 영국은 무엇을 트렌드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들의 트렌드는 어떤 이야기나 컨셉이 아닌 '다양성'이었다.



기존에 공연되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London, 1986),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1985)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한국에서도 사랑받는 뮤지컬 <하데스타운 HADESTOWN>(Barre, 2006) 등 인기 뮤지컬은 여전히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실화를 바탕으로 유쾌하게 만들어진 뮤지컬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London, 2019), 톰 홀랜드(Tom Holland)에게 이목이 집중됐으나 그와 단 한 명의 백인 배우를 제외하고 모두 흑인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한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런던에서 가장 좋은 위치의 극장에서 영어가 아닌 일본어로 공연하는 연극 <스피리티드 어웨이 Spirited Away>(Tokyo, 2022) 등의 공통점은 흥행 중이라는 것 외에도 모두 다른 이야기와 컨셉을 지닌 다양한 작품들이라는 사실이다.

영국 공연계 근처에 흐르는 이 '다양성'이라는 트렌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뮤지컬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시로 연극 <스피리티드 어웨이 Spirited Away>의 경우에는 일본 배우가 일본어로 공연하기 때문에 양쪽에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자막과 함께 공연을 감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함에도 많은 영국의 관객들은 기꺼이 감수한 채 공연을 즐긴다. 심지어 <스피리티드 어웨이 Spirited Away>는 티켓 가격이 20만 원이 넘지만 남은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흥행 중이다. 우리는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도 해외에서 사랑받은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 콘텐츠가 많다. 이 점을 활용하여 영국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거나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영국 시장에 도전해야 한다.

영국의 관계자들과 미팅할 때 자주 들은 이야기가 있다. 한국의 K-POP은 이미 세계적인데 왜 한국의 뮤지컬은 영국으로 오지 않고 있는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 한국만이 가진 고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국에 진출하지 않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물론 해외에서 작품을 올린다는 것은 펀드레이징(fundraising)부터 시작해 많은 제약이 있다. 그러나 영국 공연시장의 트렌드인 다양성에 집중해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고,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글로벌한 이야기로 영국에 진출한다면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영국 해외 개발과정에 대한 연구

- 한국 창작뮤지컬 개발 사례와 비교를 통하여

영국 해외 창작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 창작뮤지컬의 개발 사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여러 방법으로 창작뮤지컬을 개발한다.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을 개발해 쇼케이스를 진행한 뒤, 본 공연화한다. 네버엔딩플레이도 개발 프로그램인 <NEPFLIX - 넵플릭스>를 통해 작품을 쇼케이스로 관객에게 선보인 뒤, 본 공연화를 결정한다. 반면 영국은 좀 더 다양한 개발 사례가 있다.

1. 지역 극장 지원을 통한 개발: 뮤지컬 <제이미 Everybody's Talking About Jamie>

영국 정부는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는 지역 극장에 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역 극장에서는 지원을 받아 작품을 자체 제작하거나 상업 프로듀서와 함께 공동 창작하여 작품을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된 작품은 발전과 보완을 거쳐 웨스트엔드로 진출한다. 이러한 개발 방식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뮤지컬 <제이미 Everybody's Talking About Jamie>(Sheffield, 2017)이다. 셰필드 크루시블 극장(Sheffield Crucible Theatre)은 정부 지원을 통해 뮤지컬 <제이미 Everybody's Talking About Jamie>를 선보였고, 성공을 거두면서 웨스트엔드 극장과 공동제작을 거쳐 웨스트엔드로 진출했다. 그리고 2020년, 한국에서 아시아 초연을 올리며 글로벌 뮤지컬로 거듭났다. 뮤지컬 <제이미 Everybody's Talking About Jamie>는 셰필드를 배경으로 하기에 셰필드 지역민들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지역 극장 지원을 통한 개발 방식은 지역 문화 진흥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내에서도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 소멸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립극단의 지역 공연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뮤지컬 시장에서도 지역 공연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 더해 영국 셰필드 지역 극장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국내 지역 극장에 자본 지원과 더불어 상업 프로듀서와의 공동제작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 제작 극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우수한 작품을 개발해 지역 문화 진흥을 일궈낼 수 있다는 기대점이 있다.

2. 비영리 단체 지원을 통한 개발: 뮤지컬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

지역 극장 지원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영리 극단을 지원해 작품을 개발한 사례로는 영국 내에서 화제가 된 뮤지컬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London, 2019)이 있다. 비영리 극단인 '스핏립(Spitlip)'에서 개발한 작품으로, 영국의 BEAM 쇼케이스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아 추가 개발을 거쳐 웨스트엔드로 진출했으며 영국 내에서 창작뮤지컬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단계별 개발 방식을 통해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관객 환류를 통해 작품성을 더욱 끌어올린 사례다.

국내의 경우 극단이나 제작사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작품을 지원하는 방식에 더욱 치중되어 있다. 공모를 통해 완성된 작품을 선정한 후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이를 쇼케이스로 선보인 후 추가 개발하여 본 공연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창작 지원이 이루어진다. 작품 개발보다는 발굴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창작 과정 자체를 지원하고 작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다. 창작 작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창작 자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비영리 단체 지원을 통해 제작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창작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점이 있다.

3. 페스티벌을 통한 발굴: 뮤지컬 <식스 Six>

<식스 Six>(Edinburgh, 2017)는 케임브릿지 대학의 두 학생이 프린지를 위해 만든 뮤지컬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Fringe)에서 첫선을 보였다. 페스티벌을 통해 발표된 후 오프 웨스트엔드와 웨스트엔드를 거쳐 브로드웨이에 진출했고, 현재는 투어 공연을 올리는 등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웨스트엔드 진출을 위한 테스트 시장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식스 Six>처럼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해 작품을 알리고 런던에 진출하게 된 사례가 많지는 않다. 콘서트 형식과 강력한 음악으로 젊은 관객에게 큰 사랑을 받은 만큼, 현대적이고 신선한 창작뮤지컬로 자리매김한 <식스 Six>는 페스티벌을 통해 발굴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작품들이 공개된 후에도 추가로 지속적인 개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발표의 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신진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공개할 수 있는 주요 기회 중 하나다. 비슷한 사례로 BEAM 쇼케이스도 있다. 뮤지컬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 역시 이 쇼케이스를 거쳐 추가 개발을 거듭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쇼케이스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쇼케이스 페스타'처럼 다양한 행사와 지원사업을 통해 작품을 공모하여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각 제작사에서 개발한 창작뮤지컬이 해외로 진출할 때도 해외 쇼케이스를 거친다. 이처럼 쇼케이스를 통해 우수한 작품이 발표되고 추가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창작 작품을 탄생시킴으로써 향유자 확대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영국의 순차적인 개발 과정은 작품을 더 밀도감 있게, 탄탄하게 빚어간다. 위에 언급한 사례들처럼 탄탄한 개발 과정은 웰메이드(Well-Made) 작품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홍지원

프리랜서

영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2024년 영국 뮤지컬 시장의 현재

영국의 극장 현황

다채로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영국의 극장은 그 모양새만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지만 그중 주요한 극장들은 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극장, 상업 극장, 비극장 공연 장소 등으로 나누거나 제작 여부에 따라 제작 극장과 대관 극장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웨스트엔드를 중심으로 웨스트엔드 극장과 오프 웨스트엔드, 오프오프 웨스트엔드 극장, 지역 극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공극장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극장으로, 런던 소재의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과 스코틀랜드 국립극장(National Theatre of Scotland) 등이 있다. 상업 극장의 경우 말 그대로 기업이나 개인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연장들로, 우리가 웨스트엔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뮤지컬 극장들이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극장 중에도 일부는 영국 위원회 자금과 같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그 외에는 티켓 수익과 바와 굿즈 샵 등의 운영 수익, 후원금, 기부금, 투자금, 대관료 등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영국 내 다수 극장을 운영하는 극장 그룹 나이맥스(Nimax)가 있는데 '해리포터 극장'으로 알려진 팰리스 시어터(Palace Theatre), 최근 뮤지컬 <식스 Six>(Edinburgh, 2017)의 성공으로 알려진 보드빌 시어터(Vaudeville Theatre), 연극 <더 플레이 댓 고우즈 룽 The play that goes wrong>(2012)을 10년 이상 무대에 올리고 있는 더치스 시어터(Duchess Theatre), 50년 만에 웨스트엔드에 신식으로 지어진 대형 극장 소호 플레이스(@sohoplace)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이맥스는 일부 공연은 직접 제작하고 일부 공연은 대관만 해주는 방식으로 극장을 운영하기에 티켓 수익과 대관료, 바 수익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제작 여부에 따라 제작 극장(Producing venues)과 대관 극장(Presenting venues/ Receiving venues/Non-Producing venues)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제작 극장은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과 리즈 플레이하우스(Leeds Playhouse), 드루리 레인 왕립극장(Theatre Royal Drury Lane)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국립극장의 경우 대표적인 제작 극장으로, 1년 내내 대관 없이 자체 제작한 신작과 레퍼토리 공연을 올리고 일부 공연의 경우 외부 극장을 대관해 제작하기도 한다. 전문 예술 단체이면서 전문 예술 극장이기도 한 셈이다. 공연 제작은 물론 세트와 소품, 의상, 가발까지 모두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극장 내에 무대 제작소 및 보관소, 소품 제작소, 의상/가발 제작소 등이 모두 따로 있다.

반대로 대관 극장은 자체 제작을 하지 않고 제작사나 프로듀서를 대상으로 공연장을 대관해 주며 운영하는 극장이다. 웨스트엔드 내 뮤지컬 전용 극장이나 지역 극장의 대부분에 해당하며 대관료와 기부금, 바 수익 등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위치의 특성으로도 극장을 나뉘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웨스트엔드 극장'은 말 그대로 웨스트엔드라는 런던 중심부의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웨스트엔드 극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은 약 40개에 불과하다. 그중 1663년 5월에 개장한 드루리 레인 왕립극장(Theatre Royal Drury Lane)은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자 웨스트엔드의 대표 극장이며, 2022년 개장한 소호 플레이스(@sohoplace)는 웨스트엔드 중심부에 50년 만에 지어진 대규모 웨스트엔드 극장이다.

오프 웨스트엔드(Off-West End)는 웨스트엔드 극장보다 규모가 작은 극장들을 가리키며 런던 전역에 분포해 있는 다양한 독립 극장을 뜻한다. 웨스트엔드 극장이 대규모 상업 극장이라면 오프 웨스트엔드 극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비상업적 공연이나 실험적인 작품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극장으로는 서더크 플레이하우스(Southwark Playhouse)를 들 수 있는데 런던 남부의 서더크(Southwark) 지역에 위치한 중형 규모의 극장으로, 주로 독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무대에 지속적으로 올려 프로듀서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극장이기도 하다. 이 외에 이슬링턴 지역의 알메이다 시어터(Almeida Theatre), 코벤트 가든의 인기 있는 극장 돈마 웨어하우스(Donmar Warehouse),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연극 작품으로 유명한 영 빅(Young Vic), 로열 코트 시어터(The Royal Court Theatre) 등이 대표적이다.

웨스트엔드 극장들은 일반적으로 500석 이상의 대형 극장이지만 오프 웨스트엔드 극장은 좌석 수가 100석에서 400석 사이인 경우가 많다. 또한 웨스트엔드에서는 주로 상업 뮤지컬이나 대형 프로덕션이 공연되는 반면 오프 웨스트엔드는 연극, 실험극을 포함해 창의적인 독립 프로덕션이 많고 티켓 가격 또한 웨스트엔드에 비해 저렴하다.

오프오프 웨스트엔드(Off-Off-West End)는 웨스트엔드나 오프 웨스트엔드보다 훨씬 더 소규모

극장이나 공연 장소를 지칭하며 독립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오프오프 웨스트엔드는 주류 극장계와는 다른 독립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예술적 표현이 창출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극장이 아닌 펍의 일부 공간이나 오래된 교회를 개조한 공연장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런던이 아닌 다양한 지역 극장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Fringe)이 이루어지는 프린지 극장을 비롯해 브리스톨의 브리스톨 올드 빅(The Bristol Old Vic), 리즈의 리즈 그랜드 시어터(Leeds Grand Theatre), 셰필드의 셰필드 시어터(Sheffield Theatres) 등 주요 지역의 대표 극장들이 있다.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하지만 주요 공연들의 투어 극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연극이나 뮤지컬의 경우 대자본이나 제작사의 영향력으로 바로 웨스트엔드에서 무대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오프 웨스트엔드나 지역 극장에서 먼저 실험적으로 공연한 후 점차 인지도와 제작 경력을 쌓아 웨스트엔드로 진입한 경우도 많다.

코로나 이후 웨스트엔드 공연의 현재

한국 공연산업계가 그렇듯 영국의 공연시장 또한 코로나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객이 많이 몰리는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극장 폐쇄와 제한 정책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지만 2021년부터 점차 회복하여 지금은 예전의 활기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프로듀서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분위기가 이전과 꽤 다르다고 말한다.

먼저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있었는데, 본래 영국 극장의 주요 관객층은 자국 내 중장년층의 충성스런 관객과 관광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이 두 관객층은 더딘 속도로 극장에 돌아오고 있었다. 중장년층 관객의 경우 극장과 같은 다수 인구가 몰리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고, 관광객의 경우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위축된 관광 산업 영향 때문이었다. 따라서 인지도가 높고 역사가 오래된 고전(古典) 공연들이 그야말로 고전(苦戰)하게 되었고, 반대로 온라인 홍보가 용이한 공연과 스타 캐스팅에 성공한 공연들에 관객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는 솟품,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의 마케팅을 활용해 젊은 관객층의 관심을 끌어 성공한 <식스 Six>(Edinburgh, 2017)가 있다. 톰 홀랜드가 출연한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과 같이 무비스타를 캐스팅해 대중의 관심을 받아 성공한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으로 영국 공연시장이 회복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부작용도 많다고 한다. 온라인 마케팅이나 스타 캐스팅에 의존해 성공하는 작품이 늘어날수록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보다는

대자본이나 배우 위주의 공연에 프로듀서나 제작사가 몰리게 되고, 공연시장이 편향적으로 발전되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새롭고 실험적인 다양한 공연에 관객들이 잘 분포되어 방문했다면, 현재는 일부 고가의 성공적인 공연에 대부분의 관객이 쏠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연시장 전체의 수익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연의 다양성은 축소되고 제작사 수익은 일부 대규모 자본을 지닌 제작사가 대부분 가져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2024년 웨스트엔드 뮤지컬 시장을 이끈 공연의 주요 트렌드를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①소규모 극장에서 실험적으로 발표되어 점차 인지도를 올린 공연, ②전 세계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에 대자본이 투입된 공연, ③스타 캐스팅에 성공한 공연이다. 첫 번째는 서더크 플레이하우스(Southwark Playhouse)처럼 소규모 신작을 올리는 극장에서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고 인지도를 점차 얻은 후 프로듀서나 제작사가 붙어 지역 투어를 도는 등의 과정을 통해 웨스트엔드에 입성하게 된 사례다. 대표적으로는 뮤지컬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London, 2019) 이 있다. 두 번째는 뮤지컬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 The Musical>(Manchester, 2020) 나 <스피리티드 어웨이 Spirited Away>(Tokyo, 2022), 연극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Harry Potter Cursed Child>(2016)와 <기묘한 이야기 Stranger Things: The First Shadow>(2023)가 대표적인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기를 끈 적이 있는 콘텐츠에 대규모 자본이나 제작사가 붙어 제작에 성공한 경우다. 세 번째는 앞서 말한 스타 캐스팅 공연으로 영화나 드라마로 이미 이름을 알린 배우를 출연시켜 마케팅 비용은 줄이고 티켓값을 올림과 동시에 인지도를 높여 성공한 경우다.

영국의 극장 접근성 리서치

-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관객을 만나고 있나

2023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집계 국내 장애인 인구수는 2,641,89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에 달한다. 주로 극장을 찾는 10대부터 50대만 따져 본다고 해도 장애 인구 중 33.2%(2023년 보건복지부 집계 기준)로 약 87만 5천 명에 달한다. 지체장애와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인구가 존재하고, 집계가 잘되지 않는 경미한 장애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인구를 고려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권)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행령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의해 우리나라 법은 장애 예술인은 물론 장애인이 문화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극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관객을 만나고 있는가? 단순히 인구통계학적인 측면만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다양한 관객을 수용하는 공연을 만들고 있을까? 우리가 환대하는 관객은 얼마나 많은 조건을 달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관객 친화적인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높게 쌓아버린 문턱 앞에서 늘 만나는 '보통의' 관객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 공연장에서, 공연 기획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충분히 다양한 관객이 접근하고 환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접근성이 뭔데?

접근성의 사전적 정의는 '발생 지역으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성'이며 추가 설명으로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거리, 통행 시간, 매력도 따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거리와

시간이라는 물리적 부분과 매력이라는 감각과 정서적 부분을 수용하고 있다.¹⁾ 또한 영어에서 접근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Accessibility는 장소에 국한되어 물리적 접근성뿐이 아닌 서비스, 장소, 시설 상태, 다양한 환경을 수용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접근성이란 물리적 접근성은 물론 특정 장소에 매력을 느끼거나 활동을 즐기고자 할 때, 이를 이룰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접근성이 높다는 것의 의미는 장소가 주는 매력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장소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가서 매력을 느끼거나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시설의 접근성은 방문객 모두가 찾아온 목적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²⁾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극장 접근성이라는 것은 일부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관객의 신체적 특성이나 다양한 상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극장'이라는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동시에, 극장을 찾는 목적인 '공연'의 매력을 느끼고 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영국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배경

영국에서는 우리나라 법령과 동일한 맥락으로 1995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과 2010년부터 시행된 평등법(Equality Act, 2010) 등에 의해 극장과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이 이용자의 나이, 장애, 성별, 결혼 여부, 인종, 종교 등에 관계없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문화시설에서 이러한 실천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은 국제 장애 예술(Disability Arts International)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과 장애인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 등을 지원하며 관련 연구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공연장 접근성 가이드(A Guide to Theatre Access)를 제공하여 구체적인 공연 접근성에 대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극장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시설이 문을 닫은 시점에도 일부 관객만이 극장으로 돌아올 것을 예견하고 문제시하여 Covid-19 규제가 해제됨과 동시에 장애인 관객의 접근성을 빠르게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21년 6월 영국 정부는 영국 장애 조사(UK Disability Survey)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

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기초연구 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위의 보고서

공공건물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 중 접근성 문제로 자주 참여하지 못한 3대 활동이 공연장과 영화관, 전시 관람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가 장애 전략(National Disability Strategy)을 발표하여 공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영국 전역의 예술을 위한 온, 오프라인 환경이 장애인 관객을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2021년 「공연장 접근성 보고서(Theatre Access 2021)」에서 공연시설, 접근성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국 극장 관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팬데믹 이후 장애인의 극장 접근성 현실을 드러내며,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집하였다.³⁾

영국 주요 사례 1: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

영국 각지의 공공극장을 중심으로 공연 전반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상업 극장도 최소한의 접근성의 기준을 높이고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고 실천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주요 극장들이 '접근성 서비스'를 기획함과 동시에 '어떠한 접근성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온, 오프라인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쉽게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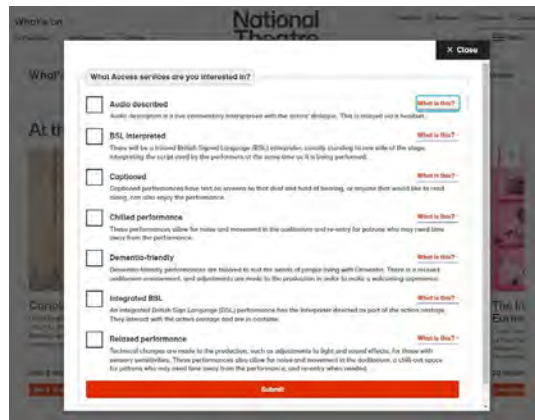


그림 1.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 웹사이트 내 접근성 서비스 검색 필터
(출처: National Theatre 공식 홈페이지)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은 극장 접근성 개선 및 실천에 가장 적극적인 극장 중 하나로, 대부분의 공연에 다양한 접근성 개선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Access(접근성)' 필터 버튼이 상단에 표시되고 해당 필터를 통해 다양한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연 현황을 손쉽게 파악한 후 바로 정보 제공과 티켓 예매로 이어지는 루트가 제공된다.

3. 이음온라인(2021.10.20.), [영국] 2021 공연장 접근성 보고서 발간.
<https://www.ieu.or.kr/user/news/view.do?idx=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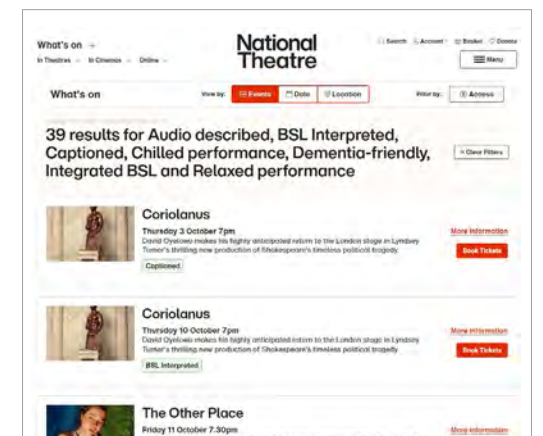
(그림1 참조) 필터에서 관객이 필요한 접근성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연이 소개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연 회차가 안내된다. (그림2 참조)

제공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 **Audio described(오디오 해설):** 헤드셋을 통해 배우들의 대사 사이사이에 해설을 덧붙이는 라이브 설명이 제공되는 공연
- **BSL Interpreted(영국 수화 통역):** 영국 수화(British Signed Language, BSL) 통역사가 무대 한쪽에 서서 공연 중 배우들의 대사를 동시통역하는 공연
- **Captioned(자막 제공):**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자, 또는 자막을 보며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을 위해 극장 내 화면에 자막이 표시되는 공연
- **Chilled performance(칠드 공연):** 공연 내 관객이 내는 소리나 움직임의 허용하며, 공연 중 휴식이 필요한 관객이 자유롭게 퇴장하고 재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연
- **Dementia-friendly(치매 친화적 공연):** 치매를 앓고 있는 관객에게 맞춰 조정된 공연으로, 제작 과정에서부터 치매 관객이 환영받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공연장 또한 관객들을 위해 이완되고 편안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
- **Integrated BSL(통합 수화 공연):** 통역사가 무대 위에서 배우들과 상호작용하며 통역을 진행하는 공연으로, 통역사들이 배우들과 함께 의상을 착용하고 공연의 일부로 연출
- **Relaxed performance(릴렉스드 공연):** 감각 민감성을 가진 관객을 위해 조명과 음향 효과와 같은 부분을 기술적으로 조정한 공연

이외에도 관객이 자유롭게 소리를 내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연 중 휴식이 필요한 관객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과 재입장을 허용하는 공연 등이 있다. 기타 추가적인 접근성 관련 도움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연락해 문의할 수도 있다. 접근성 제도(Access Scheme)라는 회원 제도를 동시 운영해 특정 접근성 서비스가 필요한 관객이 관련 접근성 정보를 주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보 및 뉴스레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국립극장 내 접근성 서비스 제공 회차 안내 페이지 예시
(출처: National Theatre 공식 홈페이지)



또한 극장은 로비와 상점, 객석, 티켓박스 전체에 문턱이 없고 전체 층을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그림2 참조), 입구에서부터 '차별 없는 극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모두를 환영합니다(Everyone is Welcome)'라는 글이 극장 로비에서 눈에 띄는데 '국립극장이 방문하는 목적에 상관없이 자신이 속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영감을 주는 장소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하며 '차별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고, 이러한 경험을 받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립극장은 창의성과 대화, 사고를 위해 존재하고 극장에서 일하거나 방문하는 모두가 존엄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곳에 존재하는 모두가 서로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열려 있고 인내하며 친절할 행동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는 단순히 차별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극장 내 존재하는 모두의 정서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림 3. 문턱이나 단차가 없는 국립극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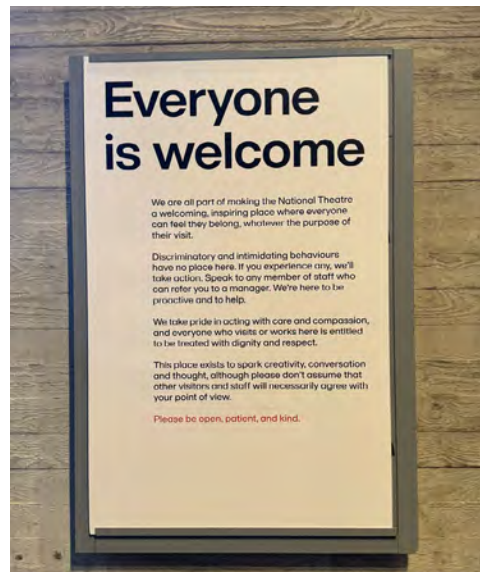


그림 4. 국립극장 내 'Everyone is welcome' 안내문

이러한 다양한 접근성 서비스와 극장 환경 속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것은 객석은 물론 백스테이지 내부에도 곳곳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 둔 것과(그림4 참조) 극장 로비 내에 접근성 데스크를 두고 접근성 서비스가 필요한 관객이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한 것(그림 5 참조), 접근성 팀을 따로 운영하는 것 등이 있었다.

현재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의 접근성 총괄책임자(Head of Access)로 일하는 데이비드 벨우드(David Bellwood)에 의하면 문화부(Culture Department) 내에 접근성 팀이 있고 총괄책임자를 비롯해 부서 직원들이 상주하며 각 공연의 접근성 서비스를 기획 및 개선,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국립극장이 운영하는 공연장들의 공연이 확정되면 접근성 담당자가 해당 공연의 제작팀과 회의를 진행해 어떠한 접근성 서비스를 공연에 접목할 수 있을지 결정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협의하여 준비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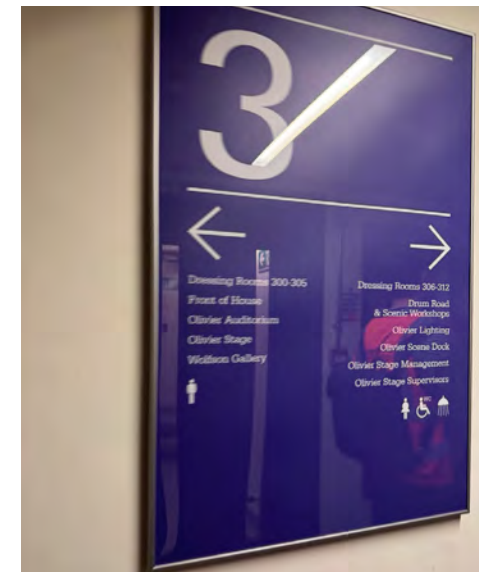


그림 5. 백스테이지 내 층별 장애인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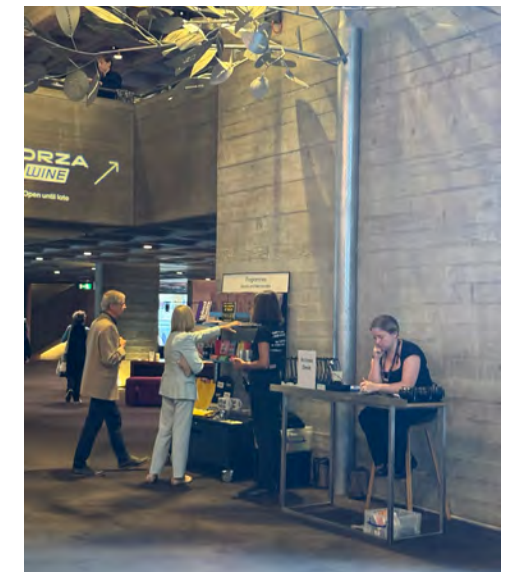


그림 6. 국립극장 내 접근성 데스크(Access Desk)

영국 주요 사례 2: 셰익스피어 글로브(The Shakespeare Globe)

국립극장 외 공공극장이나 상업 극장에서도 접근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관객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글로브 시어터(Globe Theatre)와 샘 워너메이커 플레이하우스(Sam Wanamaker Playhouse)를 운영하는 셰익스피어 글로브(The Shakespeare Globe)는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처럼 각 공연에 가능한 다양한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각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림 7. 글로브 시어터의 터치 투어 장면 예시
(출처: Shakespeare Globe 공식 홈페이지)



그림 8. 글로브 시어터 내 영국 수어 통역 장면 예시
(출처: Shakespeare Globe 공식 홈페이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 **Touch Tour(터치 투어):** 무대 세트와 소품, 의상 등을 공연 전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공연 시작 2시간 전 약 30분가량 진행되며 공연과 터치 투어 내에 음성 해설이 제공됨(그림 7 참조)
- **Audio Introduction(오디오 소개자료) & Live Audio Description(라이브 오디오 해설):** 사전 녹음된 오디오 파일(오디오 해설사들이 세트, 의상, 캐릭터의 세부 사항을 설명)이 공연 페이지 내 제공, 공연장 웰컴 데스크에서 공연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헤드셋과 큰 글자 인쇄물 및 점자 자료를 제공함
- **Relaxed Performances(릴렉스드 공연):** 이완된 극장 환경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공연으로, 자율 출입이 가능한 '오픈도어 정책'과 공연의 시놉시스, 이미지, 트리거 경고, 음향 설명 등이 들어간 공연 정보 팩 제공, 훈련된 FOH(Front of House) 하우스 직원 상주, 휴식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제공, 안전한 출입을 위한 부드러운 조명 사용, 공연 전 미리 공연



그림 9. 글로브 시어터의 자막 제공 및 장애인 예술가 참여 장면 예시
(출처: Shakespeare Globe 공식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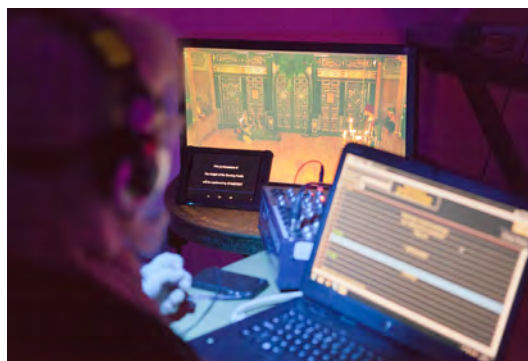


그림 10. 샘 워너메이커 시어터의 자막 제공을 위한 실시간 자막 통역 서비스 장면 예시
(출처: Shakespeare Globe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체험할 수 있는 투어 제공, 추가 직원 배치, 소음 차단용 귀마개 제공, 극장 내 존중과 포용의 태도 및 분위기 조성 등 서비스가 포함됨

- **BSL Interpreted(영국 수화 통역):** 영국 수화(British Signed Language, BSL) 통역이 제공되는 공연으로(그림8 참조), 해당 통역을 잘 볼 수 있는 좌석도 자동으로 추천함, 글로브 시어터의 경우 통역사가 보통 무대 오른쪽 하단, 플레이하우스의 경우 공연에 따라 통역사의 위치가 달라지며 일부 공연은 통역과 자막을 동시 제공하기도 함
- **Captioned Performances(자막 제공):** 공연의 내용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공연으로, 글로브 시어터의 경우 자막 장치가 갤러리 B박스와 P박스에 걸쳐 있고 플레이하우스의 경우 특정 좌석에서 개별 태블릿을 사용하여 자막을 제공함

영국 주요 사례 3: 티켓 예매 사이트와 극장 그룹 '나이맥스(Nimax)' 외

웨스트엔드 내 뮤지컬 공연을 위주로 하는 크고 작은 상업 극장들도 극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실천하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습이 보인다. 뮤지컬 정보 사이트나 극장 관련 정보 사이트 등에서도 접근성 관련 정보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가령 웨스트엔드의 공연 정보를 제공하고 예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 중 하나인

'웨스트엔드시어터닷컴(westendtheatre.com)'에는 웨스트엔드 내 극장들의 접근성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접근성 가이드(Access Guide)' 페이지가 따로 있다. (그림 11 참조) 접근성 가이드에 대한



그림 11. 웨스트엔드시어터닷컴 내 접근성 가이드 페이지
(출처: westendtheatre.com 공식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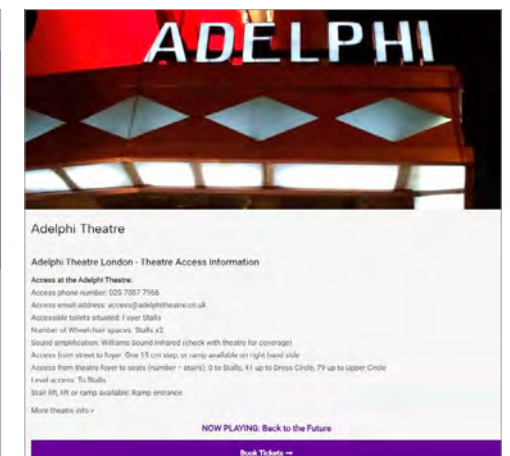


그림 12. 웨스트엔드시어터닷컴 내 극장 접근성 정보 자료 예시
(출처: westendtheatre.com 공식 홈페이지)

설명뿐만 아니라 주요 극장들의 접근성 담당 부서 연락처 및 제공 서비스 안내, 음향시스템 현황, 휠체어 좌석 현황, 거리에서부터 로비까지의 접근 방법, 각 객석 층의 계단 수, 엘리베이터 현황 등을 제공하는 것이 인상 깊다. (그림 12 참조)

영국 내 대표적인 극장 그룹인 나이맥스(Nimax)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사가 보유한 극장들의 접근성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접근성 서비스별 가능 공연 안내' 페이지(그림 13 참조)와 '극장별 접근성 서비스 현황 안내' 페이지(그림 14 참조)를 동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관객은 본인이 필요한 접근성 서비스를 선택하여 어떤 공연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 어떤 회차를 볼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특정 극장에 가려고 할 때 해당 극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영국 내 극장을 방문해 보면 휠체어 이용 관객이 안정적으로 극장 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이나 단차 없는 로비와 객석, 자동 비상 출입구, 큰 입구 시설, 장애인 화장실, 전용 엘리베이터, 비상시 포함 휠체어 이동 경로 구비 등(그림 15~18 참조)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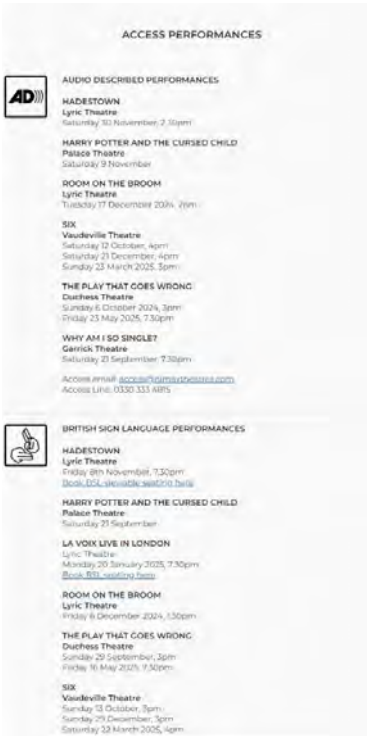


그림 13. 나이맥스 극장의 각 접근성 서비스 운영 현황 안내 페이지 예시 (출처: Nimax 공식 홈페이지)



그림 14. 나이맥스 보유 극장 중 아폴로 시어터의 접근성 서비스 안내 페이지 예시 (출처: Nimax 공식 홈페이지)



그림 15. 극장 내 장애인 화장실 예시 (런던 소재 서더크 플레이하우스 로비 내)



그림 16. 극장 내 자동 출입구 및 장애인 화장실 예시 (런던 소재 피닉스 시어터 로비 내)



그림 17. 극장 내 장애인 비상시 도움 요청 버튼 예시 (에든버러 소재 더스튜디오 로비 내)



그림 18. 극장 내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예시 (에든버러 소재 더스튜디오 로비 내)

우리 극장의 현재는?

그렇다면 한국의 극장과 공연은 어떠한가? 우리도 장애인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접근성 개선에 관심이 있지만 극장의 경우 다양한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매우 제한적이거나 여전히 최소한의 접근성 개선만을 이뤄낸 경우가 대다수다. 근래 지어진 극장들이나 대규모 극장의 경우 그나마 장애인 화장실이나 휠체어 이동 경로 등을 확보하고 있지만 오래전 설계되었거나 대학로 소규모 극장 등의 경우 그나마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근래에는 크고 작은 극장들 내에 휠체어 좌석이 마련되었지만 휠체어 좌석만 있을 뿐 사실상 휠체어 이용 관객이 극장 전체 공간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지점이 많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 극장이 잘 지어졌다고 해도 극장과 공연 제작사가 접근성 개선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접근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에 영국의 공연시장처럼 장애인 관객이 손쉽게 전반적인 접근성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연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한국 주요 사례: 공연제작소 작작 2024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2024년 초 공연된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의 경우 휠체어 이동 동선 확보가 잘 이루어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CKL스테이지에서 공연되었고, 상업 뮤지컬 분야에서는 이례적으로 접근성 보완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장애인 관객이 공연을 관람한 바 있다. 제공된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 **장애인 화장실:** 공연장 내 장애인 남, 여 화장실 구비
- **휠체어 동선:** 극장 건물 및 로비, 객석, 티켓 박스 등 전체 공간 내 휠체어 이동 경로 확보 및 안내
- **1열 휠체어 좌석:** 전체 공연의 1열에 휠체어 이용 관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객석 공간 마련
- **트리거 안내:** 특정 소재나 장면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관객을 위해 공식 이메일 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소재 사용 배경 및 트리거 사전 안내 (그림 20 참조)
- **접근성 보완 회차 달력:** 예매 페이지 및 극장 내 접근성 회차 달력 제공 (그림 19 참조)
- **수어 통역 회차:** 한국 수어 통역사 4인이 무대 위에서 수어 동시통역을 하고, 로비 내 통역사 2인이 티켓박스 및 MD 부스 및 객석 출입 안내, 수어 통역사 1인이 공연 시작 전 극장 안전에 대해 수어 통역 안내하는 회차 2회 운영 (그림 22, 23 참조)
- **터치 투어 회차:** 공연 내용과 무대 세트, 소품, 의상, 출연진 목소리, 조명 등을 사전 확인할 수 있는 터치 투어 2회 운영. 접근성 매니저와 창작진, 출연진, 스태프가 모두 참여하여 진행. 해당 회차에는 시각 장애인이 파악하기 힘든 특정 장면의 특징을 개방형 음성 해설로 안내 (그림 24 참조)
- **릴렉스드 퍼포먼스:** 지속적으로 공연 관람이 힘들거나 감각 민감성이 있는 관객을 위해 자극적일 수 있는 조명 및 음향 효과를 조정함. 공연 내 관객의 자율 입, 퇴장이 허용되며 해당 입, 퇴장을 도울 추가 인력이 상주함. 공연 중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는 것에 대한 제지를 최소화하고 공연 중 휴식이 필요한 관객을 위해 로비 내 별도 휴식 공간을 제공함. 장난감이나 애착 인형 등을 소지하고 입장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소지가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석 1열 및 무대, 로비 내 인형 배치 (그림 25, 26 참조)
- **사전 대본 열람:** 공연 이해나 접근이 어려운 관객을 위해 공연 시작 전 로비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실물 대본과 음성 변환이 가능한 문자 형식 파일(txt)을 제공하는 회차 6회 운영 (그림21 참조)

또한 공연의 접근성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습 기간 내 전체 배우, 스태프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 개선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접근성 보완 회차 운영을 위한 스태프 회의를 5회 이상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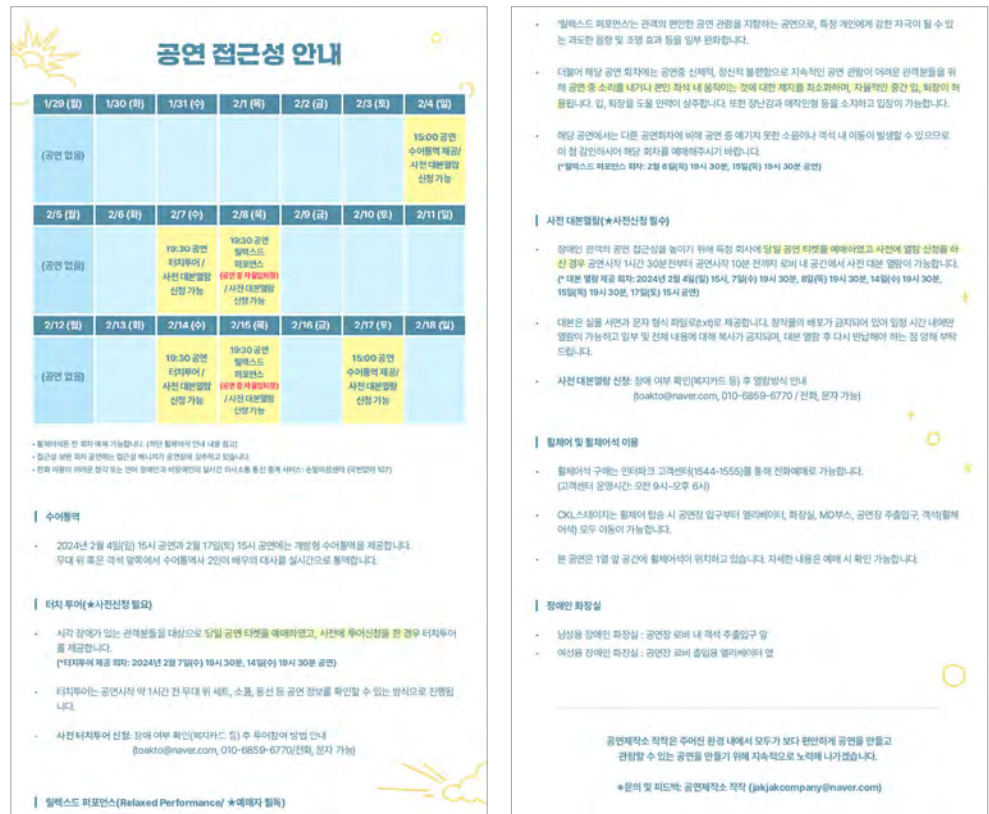


그림 19. 2024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공연 접근성 회차 안내 및 접근성 보완 서비스 안내 페이지 예시 (출처: 공연제작소 작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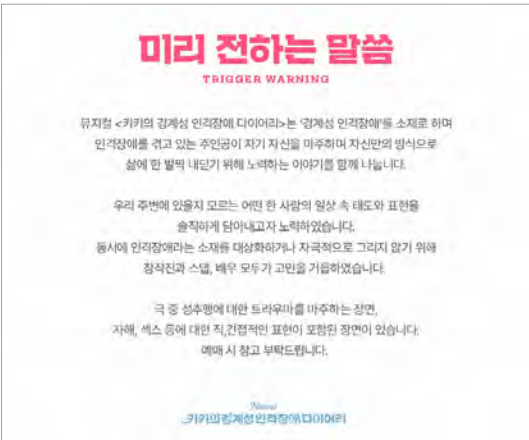


그림 20. 2024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공연 특정 소재 사용 배경 및 트리거 안내 예시 (출처: 공연제작소 작작)



그림 21. ‘사전 대본 열람’ 공간 설치 현장 예시 (출처: 공연제작소 작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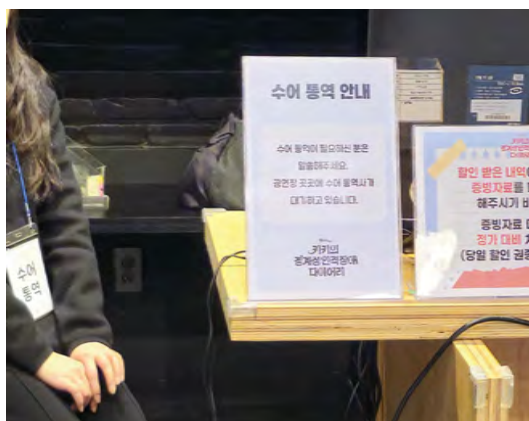


그림 22. 티켓박스 내 수어통역사 안내 현장 예시
(출처: 공연제작소 작작)



그림 23. 공연 중 수어 통역사 4인 동시통역 현장 예시
(출처: 공연제작소 작작)



그림 24. 터치 투어 진행 현장 예시
(출처: 공연제작소 작작)



그림 25. 릴렉스드 퍼포먼스 내 인형 배치 현장 예시
(출처: 공연제작소 작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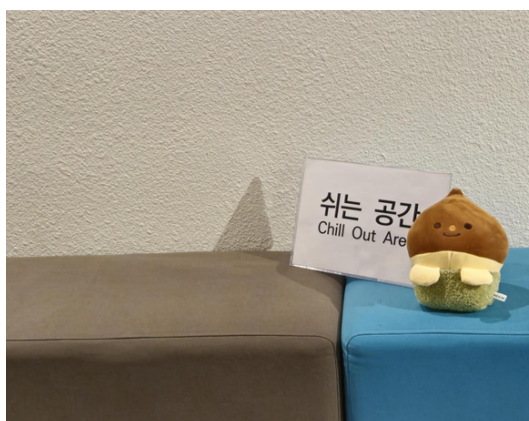


그림 26. 릴렉스드 퍼포먼스 내 휴식 공간(chill out area) 배치 예시
(출처: 공연제작소 작작)



그림 27. 접근성 보완 회차 시작 전 관련 회차에 대한 안내 현장 예시
(출처: 공연제작소 작작)

이렇게 공연제작소 작작이 적극적으로 접근성 보완 회차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제작진과 창작진, 출연진 간 해당 회차의 필요성 및 운영 방식을 충분히 협의했고 이 협의를 바탕으로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예술위원회의 제작비 일부 지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간 지원이 있어 예산과 공간을 운영하기에 용이했던 이유도 있다. 이러한 협조와 지원이 없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것이다.

마치며: 접근성은 하나의 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연극원이 제작한 '배리어프리 연극 제작 매뉴얼'에는 '접근성'이란 하나의 '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우리 극장이 현재의 영국과 같은 접근성 개선을 당장 이뤄내기에는 극장의 설계 문제, 공연 제작의 예산 문제, 제작 절차상의 어려움 등으로 한계가 크다. 그러나 영국이 그러했듯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권고와 제도적 지원, 가이드 제공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각 극장과 제작사 역시 현재의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 이전에 공연을 사랑하는 극장 관계자, 프로듀서, 창작진, 스태프, 관객 모두가 해당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관객과 예술인을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니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가 제작한 공연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너무 많은 입장 조건을 내걸고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문턱을 더 높여가지 않기를. 우선 나부터 더 공부하고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더 많은 관객을 환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감각하는 태도가 당연해지는 그날까지!

미국 권역 연구 보고서

고하나

유인수

이윤희

이응규

조기쁨

조윤지

추은지

미국 권역 연구 보고서

* 본 모음집 내 정보의 정확도, 사실관계 확인 등의 책임은 원고별 각 저자에게 있습니다.
* 별도의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이미지의 저작권은 각 원고 저자에게 있습니다.

고하나	공통 연구 보고서	153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안전을 택한 브로드웨이	
	개별 연구 보고서	비영리 기관을 활용한 한국 창작뮤지컬의 미국 진출 전략
유인수	공통 연구 보고서	163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브로드웨이의 트렌드 변화와 한국 뮤지컬의 전략적 해외진출	
	개별 연구 보고서	연우무대의 해외진출 방안 모색 - <인디아블로그>, <터키블루스>의 영미권 진출을 모색하며
이윤희	공통 연구 보고서	179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개별 연구 보고서	비영리 단체와 인핸스먼트(Non-profit Enhancement) 제작 방식 - 뮤지컬 <라흐 헤스트> 미국 진출을 위한 관점에서
이응규	공통 연구 보고서	189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영화와 소설의 뮤지컬화	
	개별 연구 보고서	한국 뮤지컬의 문화적 현지화 전략 - 브로드웨이 진출의 필요 요소

조기쁨	공통 연구 보고서	205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을 통한 사회적 이슈와 현대적 가치 반영을 중심으로	
	개별 연구 보고서	
	한국 뮤지컬의 글로벌 도약과 브로드웨이 현지화 전략 방향 제시	
조윤진	공통 연구 보고서	217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개별 연구 보고서	
	한국 가족 뮤지컬의 해외진출 가능성	
	- 미국 가족 뮤지컬 조사 및 한국 가족 뮤지컬의 해외진출 방안 연구	
추은지	공통 연구 보고서	231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브로드웨이 뮤지컬 트렌드 분석	
	개별 연구 보고서	
	NAMT의 연례 뮤지컬 페스티벌(Annual Festival of New Musicals)을 통해	
	본 창작뮤지컬 개발 프로그램의 필요성	

미 국 권 역 연 구 보 고 서

**K-MUSICAL
PRODUCERS'
WORKSHOP
IN NYC/LONDON
2024**

고하나

(주)연극열전 차장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안전을 택한 브로드웨이

아직 도전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일까. 최근 브로드웨이는 제작비 회수 확률이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공연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은 IP를 활용하거나 유명 배우 출연으로 흥행을 보증하는 안전 성향의 공연이 주를 이뤘다.

1. 유명 소설, 영화 원작의 뮤지컬화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 혹은 트랜스미디어(Transmedia)된 작품들이 현재 브로드웨이 극장을 가득 채웠다. 연수 당시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New Jersey, 2023), <아웃사이드 The Outsiders>(2019), <워터 포 엘리펀트 Water for Elephants>(Atlanta, 2023)가 성황리에 공연 중이었으며 <스웨프트 어웨이 Swept away>(Washington, 2022)가 최근 개막하여 순항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가장 열기가 뜨거웠던 작품은 <아웃사이드 The Outsiders>(2019)다. S.E. 힌턴(S.E. Hinton)의 1967년 소설과 1983년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Francis Ford Coppola) 감독의 영화를 바탕으로 뮤지컬로 재탄생되었다. 이 뮤지컬은 청소년기의 갈등과 사회적 계층 차이를 그려낸 작품이다. 원작인 소설과 영화를 사랑했던 중장년과 젊은 관객층 모두가 열광한 작품으로 토니상(Tony Awards)에서 베스트 뮤지컬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2. 주크박스 뮤지컬

국내에서도 무대에 올랐던 <몰랑루즈! Moulin Rouge!>(Boston, 2018)처럼 주크박스 뮤지컬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엠제이 MJ The Musical>(2021), <앤줄리엣 & Juliet>(Manchester,

2019)이 장기 공연 중이며 앨리샤 키스(Alicia Keys)의 삶과 히트곡으로 구성된 <헬스 키친 Hell's Kitchen>(2023)이 2024년 4월부터 흥행몰이 중이다. 특히 이 작품은 뉴욕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며 뉴욕 특유의 분위기를 살린 히트곡을 킬링 넘버로 활용해 뉴욕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즐겁게 만든다.

3. 스타 캐스팅

미국 브로드웨이와 영국 웨스트엔드 뮤지컬 시장과 한국 뮤지컬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캐스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다. 캐스팅 변경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되는 한국과 달리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서는 주로 캐스팅을 공연 당일, 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캐스팅 변경에 따른 취소 수수료 면제도 없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스타 배우를 전면에 내세우는 공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제작비도 커지는 것은 당연한 순리일 것이다. 브로드웨이 뮤지컬뿐만 아니라 오프 브로드웨이 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이 출연하는 공연은 다이نام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으로 티켓 가격이 5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4. 새로운 도전도 지속

안전 지향적 프로덕션이 주를 이루는 뮤지컬 시장이지만 새로운 소재와 주제로 관객을 만나려는 시도도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여성 참정권의 역사를 담은 <서프스 Suffs>(2022)가 있다. 여성 참정권론자와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1920년 많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미국 헌법 제19조 개정안이 비준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다. 2022년 4월 오프 브로드웨이 퍼블릭 시어터(Public Theater)에서 초연되었고 2024년 4월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올렸다. 베스트 뮤지컬을 포함하여 토니상(Tony Awards)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베스트 대본, 베스트 음악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더불어 로봇과 AI를 소재로 한 한국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Seoul, 2016)도 최근 개막하여 소재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1) 이야기의 보편성 담보

다양한 주제로 뮤지컬을 만들 수 있지만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이 가장 먼저 담보되어야 한다. 다양한 인종, 성 정체성, 종교 등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고 뉴욕이다. 아무리 한국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한들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정서로는 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2) 단계적 진출

곧장 뉴욕 브로드웨이로 진출할 수도 있겠지만, 막대한 자본과 작품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길이다. 이미 한국에서 개발이 완료된 (=공연을 한) 작품이라고 해도 현지화 작업은 필수다.

<서프스 Suffs>(2022)의 사례처럼 비영리 극장과 협업하여 작품 개발을 완료한 후 뉴욕 외 타지역에서 공연하거나 브로드웨이로 진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비영리 기관을 활용한 한국 창작뮤지컬의 미국 진출 전략

1. 미국 신작 개발 단계

한국에서는 신작 공연 시 '작품 개발→리딩 쇼케이스→보완 후 본 공연' 이렇게 3단계를 거치거나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공연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신작 개발 과정은 뮤지컬 산업의 역사만큼이나 체계적인 동시에 큰 비용이 수반된다. 아래는 간략히 정리해 본 미국 신작 뮤지컬 개발 단계이다.

	29시간 리딩	TIER 1	TIER 2	TIER 3
기간	29시간	최대 2주	최대 2주	2~8주
대본 암기	X	X	X	O
안무	X	X	O	O
무대, 소품	X	X	X	O
발표 횟수	3	4	5	무제한

개발 단계별 예산 규모는 공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국에서는 TIER 1에 해당하는 문예위 창작산실 쇼케이스 시 단체당 3,000만 원이 지원되는 데 비해 미국은 동일한 단계에서 1억~2억 사이가 소요된다고 한다. TIER 3까지의 과정을 모두 거친다면 한국에서 3개월 동안 공연하는 작품의 제작비만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차 속에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돕는 뮤지컬 비영리 기관에 대해 몇 가지 공유하고자 한다.

2. 창작자를 위한 비영리 플랫폼 활용

한국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뮤지컬 창작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아래는 미국의 대표적인 창작자 양성 프로그램 두 가지이다. 이 플랫폼은 한국 뮤지컬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미국 현지 창작자와 초기 개발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고자 할 경우 추천할 만하다.

1) NAMT(National Alliance for Musical Theatre)

전미뮤지컬시어터협회(National Alliance of Musical Theatre, 이하 NAMT)는 미국 뮤지컬 업계의 발전과 홍보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다. 1985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새로운 뮤지컬 작품의 개발과 공연을 지원하고 뮤지컬 극장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① 주요 활동

· 연례 뮤지컬 페스티벌(Annual Festival of New Musicals)

NAMT의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새로운 뮤지컬 작품을 선보이고 지원하는 행사다. 이 페스티벌은 창작자들이 작품을 업계 전문가 및 제작자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새로운 뮤지컬 개발 지원

NAMT는 다양한 펀딩 제도를 통해 새로운 뮤지컬의 창작 및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활용해 창작자들이 작품을 발전시키고 더 넓은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

· 회원 네트워크

NAMT는 30개 이상의 주와 10개국에서 온 극장, 프로듀서, 대학, 작곡가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 교육 및 자료 제공

뮤지컬 업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컨퍼런스, 연구 자료 등을 제공한다.

*홈페이지 : <https://namt.org/>

2) NMTC(National Music Theater Conference)

① 주요 목적

유진 오닐 시어터 센터(Eugene O'Neill Theatre Center)가 지원하는 전미뮤지컬극장컨퍼런스(National Music Theater Conference, 이하 NMTC)는 뮤지컬 창작자들이 작품을 발전시키고 이를 전문가와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개발 단계에 있는 작품을 지원해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② 프로그램 특징

· 워크숍과 리딩

선정된 작품은 전문 배우, 연출가, 음악감독 등과 함께 집중적인 워크숍과 리딩 과정을 거친다. 이 절차를 통해 창작자는 작품의 강점과 개선점을 발견하고 발전시킨다.

· 산업 전문가와의 협업

NMTC는 작가, 작곡가, 그리고 뮤지컬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활용해 참가자들은 업계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업계의 인사이트를 얻는다.

· 관객과의 만남

개발 중인 작품은 NMTC 참가자와 지역 관객에게 공개된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들은 관객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며 작품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https://www.theoneill.org/nmtc>

3. 뉴욕 기반 비영리극장과의 협업

국내 비영리 극장들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반해 미국의 비영리 극장들은 대부분의 예산을 기부를 통해 충당한다. 더불어 신작 개발을 통해 해당 신작이 성공적으로 공연될 경우 발생하는 로열티 역시 운영 자금으로 활용한다.

1) 퍼블릭 시어터(Public Theater)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극장 중 하나로, 연극과 뮤지컬의 창작과 공연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1954년에 설립된 이 극장은 혁신적이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미국 공연예술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① 혁신적인 작품 개발과 지원

퍼블릭 시어터(Public Theater)는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고 기존의 작품을 재해석한다. 특히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연극과 뮤지컬을 자주 무대에 올린다.

· 다양한 프로그램

- 메인 스테이지 프로덕션(Main Stage Production): 시즌 동안 다양한 장르의 연극과 뮤지컬 상연
- 프리 셰익스피어 인 더 파크(Free Shakespeare in the Park): 여름철에 센트럴파크의 델라코트 시어터(Delacorte Theater)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셰익스피어 작품 공연 시리즈로, 대중과 예술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
- 언더 더 레이더 페스티벌(Under the Radar Festival): 전 세계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공연 작품을 선보이는 연례 페스티벌

② 사회적 메시지와 다양성 강조

인종, 성별, 성적 지향, 계층 등 다양한 배경의 목소리를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조명하고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 대표작

- <해밀턴 Hamilton>(2015): 미국 독립전쟁 시대의 정치적 인물을 힙합과 뮤지컬로 풀어낸 작품
- <코러스라인 A Chorus Line>(1975):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품 중 하나로, 배우들의 오디션 과정을 다룬 이야기
- <펀홈 Fun Home>(2013): 앨리슨 벡델(Alison Bechdel)의 자전적 그래픽 노블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로, 성 정체성과 가족관계를 담고 있다.

2) 뉴욕 시어터 워크숍(New York Theater Workshop)

뉴욕시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에 위치한 비영리 극장 단체로, 연극과 뮤지컬의 새로운 작품 개발과 실험적인 무대를 지원한다. 1979년에 설립된 뉴욕 시어터 워크숍(New York Theater Workshop, 이하 NYTW)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을 초연하며 신진 및 기성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 주요 목표와 미션

- NYTW는 새로운 목소리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을 개발하여 무대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연을 통해 현대 사회와 문화에 대한 대화를 끌어내고자 한다.

· 프로그램과 활동

- 프로덕션 시즌: NYTW는 매년 4~5개의 메인 스테이지 작품을 선보이며 새로운 연극과 뮤지컬의 초연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올린다.
- 워크숍과 리딩: 작품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오르기 전,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거쳐 창작자는 작품의 구조와 내용을 다듬고 관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 펠로우십 및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Fellowship & Artist Residencies): 신진 예술가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극작가, 연출가, 배우, 디자이너 등이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개발하고 업계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중시하며 다양한 워크숍, 토론,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힘쓴다.

· 대표작

- <렌트 Rent>(1996): 혁신적인 현대 뮤지컬 작품으로, 브로드웨이로 옮겨간 후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 <하데스타운 Hadestown>(Barre, 2006):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로, 웨스트엔드/브로드웨이로 진출하여 여러 토니상(Tony Awards)과 로렌스 올리비에상(Laurence Olivier Awards)을 수상했다.
- <슬레이브 플레이 Slave Play>(2018): 인종과 성적 정체성 문제를 탐구하는 실험적 연극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미 국 권 역 연 구 보 고 서

**K-MUSICAL
PRODUCERS'
WORKSHOP
IN NYC/LONDON
2024**

유인수

(주)연우무대 대표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브로드웨이의 트렌드 변화와 한국 뮤지컬의 전략적 해외진출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

I. 서론

미국 뮤지컬 시장은 전 세계 공연예술 산업의 중심지로서, 문화적·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다. 본 보고서는 2000년 이전, 2000년에서 2020년 코로나 이전, 그리고 코로나 이후 2024년 현재의 미국 뮤지컬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여 변화와 지속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II. 2000년 이전 미국 뮤지컬 시장

1. 클래식 뮤지컬의 황금기 (1940~1960년대)

스토리 중심의 뮤지컬 포맷을 확립하여 가족 친화적, 보편적 주제를 음악과 서사로 전달하는 작품이 주로 공연되었다. 대중적 성공으로 인해 브로드웨이는 상업적 투자처로 자리 잡았고 공연 문화가 미국 대중문화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이 시기 대표작으로는 <오클라호마! Oklahoma!>(1943), <사운드 오브 뮤직 Sound of Music>(1959),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Westside Story>(1957)가 있다.

2. 혁신과 실험의 시기 (1970~1990년대)

콘셉트 뮤지컬의 등장으로 스토리보다는 주제와 메시지 중심의 작품이 증가하였다. 대표작으로는 <컴퍼니 Company>(1970), <시카고 Chicago>(1975) 등이 있으며 이후 웅장한 무대 장치와

대규모 프로덕션, 그리고 글로벌 성공을 목표로 메가 뮤지컬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메가 뮤지컬 시대의 대표작으로는 <캣츠 Cats>(London, 1981),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1985),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London, 1986) 등이 있다. 또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인종, 정치, 사회적 이슈를 다룬 실험적인 작품 역시 증가하는 시기였다.

III. 2000년~2020년 코로나 이전 뮤지컬 시장

1. 대중성과 창작성의 균형

영화와 팝 음악의 영향으로 디즈니 뮤지컬 <라이온 킹 The Lion King>(Minneapolis, 1997), <알라딘 Aladdin>(Seattle, 2011)처럼 대중성 강한 작품이 등장하며 젊은 세대와 비전통적 관객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미국 창작뮤지컬의 전성기로, 전통적인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위키드 Wicked>(San Francisco, 2003)와 힙합과 랩을 통해 역사적 인물을 현대적 방식으로 표현한 뮤지컬 <해밀턴 Hamilton>(2015) 등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형식이 도입된 창작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에 더해 기술의 도입과 무대 혁신으로 LED 화면, 프로젝션 맵핑 등 무대 장치의 기술적 진보로 프로덕션 규모가 커지면서 시각적, 청각적 경험을 강화하는 등 브로드웨이 시장이 전성기를 맞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2. 사회적 이슈 반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젠더와 다양성을 주제로 성소수자, 인종 다양성을 다룬 작품이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뮤지컬 <펀홈 Fun Home>(2013), <킹키부츠 Kinky Boots>(Chicago, 2012) 등이 있다.

3. 브로드웨이의 경제적 성공

티켓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관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본격적인 해외 라이선스 및 투어링 공연을 통한 글로벌 확장기였다.

IV. 코로나 이후~2024년 현재 뮤지컬 시장

팬데믹 이후 미국 뮤지컬 시장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며 다양한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작품의 주제, 형식, 기술 활용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주목받는 작품들을 통해 이러한 트렌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이슈와 다양성 반영

최근 작품들은 사회적 이슈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공감을 위한 현대적 이야기나 인클루시브 캐스팅(Inclusive casting),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스토리를 강조하는 등 새롭게 시도하는 실험적 작품들이 공연되고 있다.

- **<식스 Six>(Edinburgh, 2017):** 헨리 8세의 여섯 왕비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팝 음악과 결합하여 각자의 관점에서 서사를 풀어낸다.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재해석해 여성의 목소리를 강조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앤줄리엣 & Juliet>(Manchester, 2019):**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재해석해 줄리엣이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팝 음악과 결합하여 젠더와 자아 발견 등의 현대적 주제를 다룬다.

2. 기술 융합과 몰입형 경험

기술의 발전은 뮤지컬의 형식과 관객 경험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기술 융합을 통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술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몰입형 공연(Immersive Experience) 역시 확대되고 있다.

3. 소규모·실험적 작품의 부상

대규모 프로덕션의 위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는 작으나 창의적인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 **<하데스타운 Hadestown>(Barre, 2006):** 그리스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작품은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시작해 브로드웨이로 진출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결과 독립적인 창작물이 주류 시장에서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 **<컴프롬어웨이 Come From Away>(Ontario, 2013):** 9·11 테러 당시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 비행기가 착륙하며 벌어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소규모 캐스트와 심플한 무대라도 깊은 감동을 전하며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4. 온라인 플랫폼과 스트리밍의 활용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연 제공이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유통 채널로 자리 잡게 되었다.

- **<해밀턴 Hamilton>(2015):**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스트리밍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뮤지컬의 새로운 관객층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전략적 접근

I. 서론

한국 뮤지컬은 독창적인 서사와 음악적 완성도를 통해 국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뮤지컬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참고해 한국 뮤지컬의 해외진출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보겠다.

II. 한국 뮤지컬의 강점과 도전 과제

1. 한국 뮤지컬의 강점

한국 고유의 역사와 정서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은 문화적 독창성이 우수하고 음악적 역량이 뛰어나 K-POP과의 융합 가능성이 크다. 또 첨단 무대 기술과 섬세한 연출 등 제작 기술 능력 역시 뛰어나다.

2. 도전 과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부족하고 언어 장벽 및 문화적 차이가 확연히 존재한다. 해외 유통 및 마케팅 경험 부족으로 인한 해외진출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IV.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1. 콘텐츠 전략 : 주제와 스토리의 현지화

보편적 주제를 담은 스토리 개발로 가족, 사랑, 희생, 역사 등 글로벌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현지화와 번역을 거쳐 대상이 되는 시장의 언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반영하고 지역별 캐스팅을 통해 현지 관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2. 기술 활용 전략

AR/VR, 프로젝션 맵핑 등 첨단 기술 접목으로 관객 경험을 강화하고 소규모 몰입형 공연을 통해 관객 참여를 유도한다. 스트리밍 플랫폼을 활용해 디지털 공연과 스트리밍 서비스로 글로벌 관객에게 접근한다.

*OTT 플랫폼과의 협업(예: Netflix, Disney+)

3.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K-컬처와 연계하여 K-POP과 K-드라마의 글로벌 인기를 뮤지컬 홍보에 활용하거나 K-콘텐츠와 협력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시킨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Fringe), 뉴욕 뮤지컬 페스티벌(New York Musical Theatre Festival) 등 국제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언론과 평단의 주목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

4. 제작 및 유통 모델 다각화

인기 작품의 해외 라이선스 및 리메이크 라이선싱 방식과 해외 제작사와의 공동제작으로 현지 시장 이해도 및 진입 장벽을 극복하는 협업 프로덕션 방식이 있다. 그리고 한국 오리지널 팀의 주요 글로벌 도시 투어링 공연을 통해 관객 접점을 확대할 수도 있다.

5.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무대에 적합한 배우, 제작자, 연출자 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외 프로듀서,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해외 뮤지컬 시장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기술과 문화적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뮤지컬 시장은 큰 난관에 부딪혔지만 이를 극복하며 더욱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브로드웨이 흥행 회복을 알린 <식스 Six>(Edinburgh, 2017), <앤줄리엣 & Juliet>(Manchester, 2019) 등의 성공으로 시장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 모델인 크라우드펀딩과 독립 투자 역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뮤지컬 시장도 글로벌 트렌드를 참고하여 보편성과 현지화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뮤지컬의 장기적인 투자와 협력을 통해 한국 뮤지컬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연우무대의 해외진출 방안 모색

- <인디아블로그>, <터키블루스>의 영미권 진출을 모색하며

서론

1. 서구 뮤지컬 시장의 특성 이해

- **문화적 다양성 수용:** 서구 관객들은 다양한 문화와 주제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인도와 터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문화적 맥락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음악적 기대치:** 서구 뮤지컬은 전통적으로 풍부한 음악적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연극을 뮤지컬로 전환할 경우, 음악의 질과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2. 작품의 강점과 성공 가능성

- **독창적 스토리텔링:** <인디아블로그>(Seoul, 2011)와 <터키블루스>(Seoul, 2013)는 여행을 통해 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보편적인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
- **문화적 신선함:** 인도와 터키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는 서구 관객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이국적인 매력을 제공한다.
- **감성적 깊이:** 인물 간의 관계와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한 서사는 관객들의 감정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

3.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현지화 전략:**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대사, 유머, 관습 등을 현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구 관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적 요소는 설명 추가나 수정이 필요하다.

- **음악적 재구성:** 연극을 뮤지컬로 전환할 경우, 로컬 관객들의 취향에 맞는 음악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인도와 터키의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삽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언어 장벽 극복:** 영어로의 번역 시 원작의 감성과 뉘앙스를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번역가와 협의가 중요하다.
- **마케팅 전략:** 서구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작품의 독창성과 문화적 매력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소셜 미디어와 현지 언론을 활용한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연극 <인디아블로그>의 영국 웨스트엔드 진출 방법론

영국 청년과 한국 청년의 인도 여행기를 통한 영미권 공연시장 진입 전략

I. 작품의 장점

1. 보편적 주제와 스토리의 공감

- **청춘과 성장:** 인도 여행을 통해 영국 청년과 한국 청년이 각자의 성장과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는 전 세계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다.
- **문화적 다양성:** 동양(한국)과 서양(영국)의 두 청년이 여행 중 경험하는 인도 문화는 관객에게 신선함과 몰입감을 제공한다.
- **여행이라는 매력적 배경:** 여행은 모험, 자기 발견, 갈등, 화해 등의 요소를 담기에 최적의 틀을 제공한다.

2. 이국적이고 다채로운 배경

- **인도의 독특한 배경:** 인도의 역사, 종교, 색채, 음악 등은 서구 관객에게 이국적 매력과 흥미를 유발한다.
- **문화적 충돌과 융합:** 세 나라(영국, 한국, 인도)의 문화적 차이가 서사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다채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3. 음악과 무대미술의 가능성

- **전통과 현대의 결합:** 인도의 전통 음악과 춤, 현대적인 음악 스타일의 융합을 통해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뮤지컬적 요소가 창출될 수 있다. 다채로운 색감과 화려한 무대미술은 인도 여행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

II. 작품의 제작 및 구성 방안

1. 스토리텔링 강화

- **기승전결이 분명한 서사:** 여행 중 겪는 갈등, 극복, 화해, 자기 발견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구성
- **다층적 내러티브:** 한국 청년과 영국 청년 각각의 이야기를 교차 서술하며 관객이 두 캐릭터 모두에게 감정 이입할 수 있도록 유도
- **주제의 보편성과 지역성 결합:** "자아 발견"과 "청춘의 성장"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인도 여행이라는 지역적 배경을 통해 차별화

2. 음악적 접근

- **인도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의 융합:** 전통적인 시타르, 타블라와 같은 악기를 현대적인 팝, 재즈, 록 음악과 결합해 독특한 사운드트랙 제작
- **테마곡 활용:** 작품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렬한 테마곡을 개발해 관객의 기억에 남도록 유도

3. 무대 연출 및 디자인

- **몰입형 무대:** 인도의 풍경과 문화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무대 디자인(프로젝션 맵핑, LED 스크린 활용)
- **다채로운 의상과 소품:** 인도의 전통 의상, 화려한 색감, 그리고 여행 중 사용하는 다양한 소품(배낭, 카메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4. 언어와 문화적 접근성

- **다국어 대화 구조:** 영국 청년은 영어, 한국 청년은 한국어를 사용하되 관객의 이해를 위해 영어 중심의 대화와 자막을 병행
- **문화적 맥락의 설명:** 인도 문화나 관습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면 내 적절한 맥락 제공

III. 획기적인 영국 시장 진출 방안

1. 페스티벌 및 플랫폼 활용

-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축제에 참여해 작품을 선보이고 관객과 평단의 관심을 확보
- **소규모 극장부터 시작:** 웨스트엔드 대형 극장 대신 런던의 소규모 독립 극장에서 작품을 초연해 관객 반응 확인

2. 협업과 파트너십

- **영국 현지 제작사와의 협력:** 현지의 문화적 감각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영국 제작사 및 프로듀서와 협력
- **공동 창작:** 영국 작가, 음악가와의 협업을 통해 현지화된 콘텐츠 제작

3. 마케팅 전략

- **현지화된 홍보 캠페인:** 영국 청년의 시선에서 본 인도와 한국을 강조하며 현지 관객 관심 유도
- **디지털 마케팅:** 유튜브, 틱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예고편, 캐릭터 소개 등을 홍보
- **스토리 중심 캠페인:** "왜 인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토리로 풀어낸 캠페인을 통해 관객의 흥미 유발

4. 청년층 타겟팅

- **대학생 및 젊은 관객 타겟:** 여행과 성장이라는 주제는 젊은 세대에게 어필 가능성이 높음
- **소셜 미디어 참여 유도:** 관객이 인도 여행기를 직접 체험하는 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해시태그 캠페인 진행

5. 투어링 공연 및 확장

- **소규모 투어링 공연:** 런던에서 초연 후 맨체스터(Manchester), 에든버러(Edinburgh), 브라이턴(Brighton) 등 영국 주요 도시 투어
- **유럽 시장으로 확장:** 영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유럽의 다양한 시장(독일, 프랑스 등)으로 확장

IV. 성공 가능성 평가와 결론

1. 성공 가능성

- **문화적 융합의 강점:** 한국, 영국, 인도라는 세 국가의 문화적 요소가 융합되어 독특한 매력을 발산
- **보편적 메시지:** 자기 발견과 성장이라는 주제는 문화와 세대를 넘어 전 세계 관객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 **다양한 콘텐츠 가능성:** 음악, 연기, 무대미술 등 여러 요소에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접근 가능

2. 결론

이 작품은 보편성과 독창성을 겸비한 이야기로, 철저한 현지화와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영국 공연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페스티벌 참가, 현지 제작사 협력, 몰입형 무대 디자인 등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진출 계획을 구체화한다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뮤지컬 <터키블루스>의 미국 브로드웨이 진출 방법론

음악과 여행으로 기억하고 추억하는 콘서트 뮤지컬의 영미권 공연시장 진입 전략

I. 작품의 장점

1. 보편적이고 강렬한 주제

- **우정과 상실의 보편성:** 사춘기 시절의 우정, 9/11이라는 역사적 배경, 20년 후 재회라는 서사는 모든 세대와 문화에서 공감 가능
- **역사적 맥락:** 9/11은 미국인에게 여전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서사는 브로드웨이 관객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줄 수 있음
- **이민자 관점:** 미국의 주요 관객층 중 이민자 배경을 가진 사람도 많기에 이민자의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적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음

2. 독창적 구성

- **콘서트 뮤지컬 형식:** 음악이 서사의 중요한 일부로 작용하며 감정을 강화하고 관객의 몰입을 도움
- **터키 여행과 음악의 대조:** 한 친구는 음악을 통해, 다른 친구는 터키 여행을 통해 우정을 추억한다는 설정은 시각적·청각적으로 강렬한 대비를 제공

3. 다문화적 요소

터키 문화의 색채와 음악적 요소를 결합해 이국적인 매력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언어(영어, 터키어) 및 문화적 배경을 통해 다채로운 서사를 제공

II. 작품 구성 및 제작 방안

1. 스토리라인 강화

- **1막:** 사춘기 시절의 우정 형성, 함께 음악적 유대와 꿈을 키움, 9/11이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헤어짐
- **2막:** 현재의 두 친구가 각자의 방식으로 추억하며 살아가는 이야기, 음악과 터키 여행을 통해 서로를 기억하고 결말에서는 우정의 회복과 화해

2. 음악 구성

두 친구의 대비되는 음악 스타일 강조

- **음악으로 추억하는 친구:** 재즈, 블루스, 클래식 스타일로 감정을 표현
- **터키를 여행하는 친구:** 터키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퓨전)을 결합한 사운드
- **테마곡과 반복 구조:** 두 친구를 연결하는 우정의 테마곡을 제작하고 이를 변주하며 서사를 강화

3. 무대 디자인

- **시공간을 넘나드는 무대:** 2001년 뉴욕의 도시 풍경과 현재의 터키 여행지를 대비적으로 표현, 프로젝션 맵핑과 LED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
- **콘서트와 연극의 결합:** 콘서트 형식의 라이브 연주와 드라마틱한 연극적 장면을 교차 구성

4. 캐릭터 구축

- 두 친구의 개성을 뚜렷하게 설정: 음악을 통한 감정 표현이 풍부한 친구와 여행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철학적 친구
- 주변 인물 추가: 두 친구의 가족, 터키에서 만나는 현지인 등 주변 인물을 통해 스토리를 보강

III. 획기적인 브로드웨이 진출 방안

1. 테스트 마케팅과 초연

- 오프 브로드웨이 초연: 소규모 극장에서 시범 공연을 통해 관객 반응을 파악하고 작품 개선
- 음악 중심의 미리보기 콘서트: 주요 곡과 장면을 중심으로 한 콘서트를 개최하여 투자자와 관객의 관심 유도

2. 현지화와 협력

- 브로드웨이 제작사와 협력: 현지의 문화적 맥락을 잘 이해하는 제작사와 공동제작
- 다양성 포용 캐스팅: 다인종, 다문화 캐스팅을 통해 브로드웨이 관객층과의 공감 강화

3. 마케팅 전략

- 감정에 호소하는 홍보: 9/11과 우정이라는 강렬한 테마를 강조한 감동적인 트레일러 제작
- 디지털 캠페인: 주요 곡과 무대 디자인을 미리 공개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입소문 형성
- 공익적 메시지: 9/11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연계하여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 관객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

4. 페스티벌 및 플랫폼 활용

- 뉴욕 뮤지컬 페스티벌(NYMF): 뉴욕의 주요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초연을 선보여 초기 관객과 평단의 관심 확보
- 전미뮤지컬시어터협회(NAMT): 신작 뮤지컬을 개발하고 투자자, 제작자, 극장 관계자들에게 작품을 알리는 역할과 신작 뮤지컬의 첫 공연 현실화

- 글로벌 페스티벌: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등에 참가해 유럽 관객층과도 연결

5. 확장 가능성

- 투어링 프로덕션: 미국 전역 및 유럽 주요 도시 투어를 통한 작품의 브랜드화
- 스트리밍 콘텐츠화: 공연 실황을 스트리밍 플랫폼(예: Netflix, Disney+)에서 제공하여 글로벌 관객 접근 유도

IV. 성공 가능성과 결론

1. 성공 가능성

- 역사적 공감: 9/11이라는 역사적 맥락은 미국 관객에게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다문화적 매력: 터키라는 배경과 이민자 이야기는 다문화적 스토리를 선호하는 브로드웨이의 경향과 잘 맞음
- 독창적 형식: 콘서트 뮤지컬이라는 장르적 신선함은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

2. 결론

뮤지컬 <터키블루스>(Seoul, 2013)는 보편적이고 감동적인 서사, 독특한 형식, 문화적 매력을 겸비하여 브로드웨이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접근을 통해 관객과 투자자를 모두 사로잡는 성공적인 진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미 국 권 역 연 구 보 고 서

**K-MUSICAL
PRODUCERS'
WORKSHOP
IN NYC/LONDON
2024**

이윤희

프리랜서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1.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

팬데믹의 영향으로 약 1년 반 동안 41개 극장이 모두 셧다운(shutdown)을 경험했던 미국 브로드웨이. 4년이 지난 현재, 브로드웨이는 옛 활기를 되찾은 듯 화려하게 빛나며 복귀한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2023-2024년 시즌 총관객 수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2018-2019년 시즌에 비해 17%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¹⁾ 반년이 지난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팬데믹 직전 호황기였던 2019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올 10월 마지막 주의 성적은 총관객 수, 박스 오피스 수입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이처럼 브로드웨이 산업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듯하다. 2019년 10월 마지막 주 총관객 수가 278,087명이었던 것에 반해 2024년 10월 마지막 주 관객 수는 282,356명으로 증가하였고, 박스 오피스 수입 역시 2019년 10월 마지막 주 \$33,583,842를 달성한 것에 비해 올해 같은 시기에는 \$34,689,137을 기록하였다. 전문가들은 티켓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수치를 보이는 요인으로 뉴욕 관광 산업의 회복과 더불어 최근 브로드웨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꼽았다.²⁾ 이러한 최근 신작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의 두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1) 흥행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 소재 선택

첫 번째는 대중적이고 보수적인 소재 선정이다. 제77회 토니상(Tony Awards)에서 13개 부문 후보에

1. Emmanuel Morgan, "Audience Snapshot: Four Years After Shutdown, a Mixed Recovery", The New York Times, 2024.3.12., <https://www.nytimes.com/2024/03/12/arts/covid-shutdown-live-audiences.html>

2. Steve Cuozzo, "Broadway bounces back from pandemic abyss with nearly all 41 theaters open", The New York Post, 2024.10.28., <https://nypost.com/2024/10/28/business/broadway-rebounds-from-pandemic-abyss-with-nearly-all-41-theaters-open/>"psp

오르고 2개 부문에서 수상한 뮤지컬 <헬스 키친 Hell's Kitchen>(2023)은 통상 15개의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를 수상하고 빌보드 지가 선정한 2000년대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 5인에 꼽히는 등,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앨리샤 키스(Alicia Keys)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같은 해 최고 작품상, 연출상 등 4개 주요 부문에서 수상하고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가 프로듀서로 참여해 화제가 된 뮤지컬 <아웃사이드 The Outsiders>(2019)는 미국인이란 누구나 읽는다는 동명의 청소년 필독서를 원작으로 한다. 2023~2024년 시즌 외에도 2022~2023년 시즌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1985년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 The Musical>(Manchester, 2020), 팝의 황제이자 20세기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일대기와 그의 노래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 <엠제이 MJ The Musical>(2021)가 무대에 올라 여전히 브로드웨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명의 책, TV 시리즈, 영화를 원작으로 하거나 설명이 필요 없는 고전에서 소재를 가져오는 등 최근 브로드웨이 신작은 상당수가 완전한 창작이 아닌, 보수적이고 안전한 소재를 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공연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것처럼 미국 역시 팬데믹 이후 콘서트, 스포츠 등의 분야가 빠르게 시장을 회복한 것에 비해 뮤지컬계는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한번 움츠러든 관객들의 발길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 브로드웨이는 창작에 비해 개발 과정이 짧아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누구나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로 택했다. 이런 작품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억눌린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빠르게 회복한 관광 산업의 추세와 맞물려 다시 브로드웨이 극장을 관객으로 채우며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는 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미 성공한 IP의 명성에 기댈 수 있는 보수적인 소재 선택이 최근 브로드웨이 신작의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2) 스타 캐스팅

두 번째는 스타 캐스팅이다. 이미 한국 뮤지컬 시장은 스타 캐스팅이 만연하고 무시할 수 없는 주요 마케팅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특히 최근 들어 스타 캐스팅에 기대는 작품이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링컨 센터(Lincoln Center)에서 개막한 브로드웨이 연극 <맥닐 McNeal>(2024)은 마블 시리즈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Robert Downey Jr.)가 주연을 맡아 약 두 달 간의 리미티드 공연을 하는데 티켓이 300달러 이상, 한화로 50만 원 이상을 웃도는 가격까지 치솟았음에도 전 회차가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9월 개막한 뮤지컬 <로미오+줄리엣 Romeo+Juliet>(2024)은 셰익스피어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하트스토퍼 Heartstopper>로 스타덤에 오른 킷 코너(Kit Conner)가 로미오를 맡고, 3만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스티븐 스피버그(Steven Spielberg)의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West Side Story>에서 주연 마리아 역으로 데뷔한 후 최근 디즈니 실사 영화 <백설공주>의 주연을 맡은 레이첼 제글러(Rachel Zegler)가 줄리엣을 맡았다.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두 배우의 무대 데뷔작이라는 소식만으로도 거대한 마케팅이 된 이 작품 역시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 <레미제라블>, <대니쉬 걸>,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 등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글로벌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에디 레드메인(Eddie Redmayne)의 첫 뮤지컬 작품 <카바레 CABARET at the Kit Kat Club>(London, 2021)는 2021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공연하고 2024년 브로드웨이로 건너와 공연 중이며, 에디 레드메인이 떠난 이후에도 글램록 싱어송라이터 아담 램버트(Adam Lambert)와 디즈니 영화 <모아나>의 주인공 목소리를 연기한 아우이 크라발호(Auli'i Cravalho)를 캐스팅해 공연 중이다. 이 외에도 아담 드라이버(Adam Driver), 패티 루폰(Patti LuPone), 조지 클루니(George Clooney), 제이크 질렌haal(Jake Gyllenhaal) 등 최근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르는 글로벌 스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 브로드웨이는 스타 캐스팅으로 인해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지만 그럼에도 스크린에서만 보던 배우를 직접 보겠다는 관객들이 줄을 서는 덕분에 객석은 연일 만석이다.

그러나 스타를 캐스팅했다고 해서 작품이 모두 호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주연의 연극 <맥닐 McNeal>(2024)은 AI와 창작자를 다룬 작품으로 “시의적절하지만 무겁다”는 다소 부정적인 평을 받았으며, TV 시리즈 <굿 와이프 Good Wife>로 유명한 줄리아나 마굴리스(Juliana Margulies)가 출연한 <레프트 온 텐스 Left on Tenth>(2023) 역시 어색한 코미디라는 혹평을 받으며 내년 2월 막을 내린다.³⁾ 2~3개월의 리미티드런(Limited-run)이 일반적인 한국과 달리 주당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는 동안 계속해서 공연할 수 있는 오픈런(Open-run) 형식인 브로드웨이의 경우, 스타 캐스팅을 통해 초기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모으고 높은 티켓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냉정한 평단과 관객의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작품 스스로의 힘이 강하지 못하다면 결국 막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2. 한국 뮤지컬 미국 진출 방안

1) 작품 사례를 통한 구체적 분석

이처럼 팬데믹 이후 미국 브로드웨이는 이전 수준으로의 시장 회복과 관객층 확보를 위해 작품 기획 단계와 캐스팅 단계에서 확실하고 안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 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는 시장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프로듀서들의 말에 따르면 아직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완전하고 건강한 회복은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경향이 앞으로 2~3년 간은 더욱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 속에서 한국 뮤지컬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앞서 설명한 두 트렌드 중 첫 번째 트렌드를 한번 더 살펴보자. 단순히 원작이 유명하거나 잘 알려진 제목이라고 해서 그 작품이 성공할까? ‘들어본 적 있는 제목’, ‘아는 이야기’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최근 시즌 호평을 받고 있는 두 작품 뮤지컬 <아웃사이드 The Outsiders>(2019)와 <카바레 CABARET at the Kit Kat Club>(London, 2021)를 예로 들어보자.

뮤지컬 <아웃사이드 The Outsiders>(2019)는 미국 중남부 털사(Tulsa)에 사는 주인공 포니보이를 중심으로 상류층 소시즈(Socs)와 빈민층 그리저스(Greasers) 두 10대 그룹의 대립과 소년의 성장을 다룬 이야기로, 아주 단순하고 고전적인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서사 너머에 담긴 청춘의 격정과 계층 간의 갈등을 강렬하게 표현한 연출로 관객들의 오감을 충족시키는 강한 여운을 남겨 제77회 토니상(Tony Awards)에서 최고 작품상 이외에도 연출상, 조명디자인상, 음향디자인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음향과 슬로우모션, 조명 기법으로 실감나게 구현한 빗속의 싸움 장면은 작품의 정서를 극대화하여 관객이 작품에 흠뻑 빠질 수 밖에 없게 만든다.

뮤지컬 <카바레 CABARET at the Kit Kat Club>(London, 2021)는 1939년 소설을 원작으로 1966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되었고, 1972년에는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영국에서 수차례 리바이벌된 고전으로, 1920~1930년대 나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독일 베를린 재즈 시대의 카바레를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한 배경이 특징이다. 2021년 영국에서 리바이벌된 후 2024년 브로드웨이로 무대를 옮겨 온 이번 버전은 전용 극장을 실제 카바레 클럽처럼 완전히 개조하여 관객들이 쇼가 시작하기 전부터 공연에 몰입할 수 있게 하였고, 보다 파격적이고 퇴폐적이며 감각적인 표현과 이를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게끔 느끼게 하는 조명 디자인으로 큰 찬사를 받고 있다.

3. Johnny Oleksinski, “Why do Hollywood A-Listers gamble their reputations and egos on Broadway shows?”, The New York Post, 2024.10.27., <https://nypost.com/2024/10/26/entertainment/hollywood-a-listers-gamble-their-reputations-and-egos-on-broadway-shows/>

2) 한국 창작뮤지컬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언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한 프로듀서의 말을 빌리자면 관객들은 자신이 잘 아는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느끼고 싶어 한다. 객석에 와 앉기까지는 자신의 티켓값이 아깝지 않을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극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마음을 완전히 뒤엎는 몰입을 얻고 싶은 것이다. 스타 캐스팅 역시 '안전한 선택'의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배우를 직접 본다는 것만으로도 티켓값이 아깝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특히 최소 3년에서 10년의 개발 과정을 거쳐야 대본과 음악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브로드웨이 작품의 경우, 결국 본질적으로 뮤지컬만이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무대의 독창적인 감각을 얼마나 몰입감 있게 만들어내는가가 작품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뮤지컬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원한다면 이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 주로 소재의 새로움, 신선함을 찾는 최근 한국 창작뮤지컬의 경향을 생각한다면 미국 시장을 겨냥할 때 소재 자체가 갖는 매력 그 이상의 몰입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영리 단체와 인핸스먼트(Non-profit Enhancement) 제작 방식

- 뮤지컬 <라흐 헤스트> 미국 진출을 위한 관점에서

미국 신작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신작을 개발하는 과정은 긴 마라톤과 같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연하고 흥행했던 뮤지컬 <하데스타운 Hadestown>(Barre, 2006)은 2006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수많은 수정과 워크숍, 개발 과정을 거쳐 13년 만인 2019년에 브로드웨이에 입성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힙합, R&B, 팝 등 독창적인 음악으로 풀어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뮤지컬 <해밀턴 Hamilton>(2015)은 2009년 첫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후 6년간의 끊임없는 시도 끝에 2015년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랐다. 작품이 브로드웨이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완성도를 위해 수없이 많은 수정과 워크숍, 트라이아웃 공연을 반복하는 일은 고되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인고의 시간을 거친 끝에 오래도록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탄생하게 된다.

브로드웨이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뮤지컬의 산실답게 개발 과정도 산업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단순 무대 리딩부터 세 단계로 나누어진 워크숍 티어(Workshop Tier)까지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고, 각 단계 수준에 적합한 연습 기간, 악기 편성 규모, 세트 제작 여부, 공연 회차, 배우, 스태프 개런티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브로드웨이에서는 각 예술가들의 노동조합이 공연 생태계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각 파트 예술 노동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합들의 치열한 공방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었고 현재도 여전히 변화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와 인핸스먼트(Enhancement) 제작 모델

여기서 프로듀서들은 가장 큰 난제를 마주하게 된다. 길이 남을 좋은 작품을 위한 개발도 중요하고 개발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는 시간과 비용은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BoB 세션 자료에 따르면 같은 티어에서도 프로덕션에 따라 제작비는 천차만별이고 각 단계에 따라 한화로 최소 2억 원에서 많게는 몇 백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다고 한다.

여기서 비영리 단체와의 협업 제작(Non-profit Enhancement) 모델이 등장한다. 이 모델은 초기 개발 단계부터 비영리 단체와 상업 프로듀서가 협력하여 공동제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상업 프로듀서는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비영리 단체는 문화 산업에 기여하는 우수 작품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로는 뮤지컬 <헬스 키친 Hell's Kitchen>(2023), <해밀턴 Hamilton>(2015), <펀홈 Fun Home>(2013)을 함께 개발한 퍼블릭 시어터(Public Theater)와 뮤지컬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 The Last Five Years>(Chicago, 2001), <원스 Once>(2011), <렌트 Rent>(1996) 등을 개발한 뉴욕 시어터 워크숍(New York Theater Workshop)이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는 각자의 고유한 미션 아래 활동한다. 예술적 실험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뮤지컬을 추구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통적인 뮤지컬 예술에 좀 더 힘을 싣는 단체가 있기도 하다. 비영리 단체는 창작자의 제안으로, 프로듀서의 제안으로, 또는 자체적인 내부 기획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선정하고 개발 과정을 함께한다. 작품의 주인이 되는 리드 프로듀서 자리는 비영리 단체가 가져가기도 하고 원 프로듀서와 권한을 나누기도 한다. 비영리 단체의 지붕 아래에서 내부 개발 및 트라이아웃을 거치는 동안 관객과 만나 벌어들이는 수익은 비영리 단체가 가져가고, 경제적 후원을 통해 충분히 개발된 작품이 브로드웨이, 또는 오프 브로드웨이로 상업 진출을 하게 되면 비영리 단체는 개발 로열티를 인정받아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는다. 비영리 단체는 이러한 수익금을 통해 다시 미래의 작품을 개발할 충분한 경제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뮤지컬 <라흐 헤스트> 미국 진출의 관점에서

본인이 해외진출 협력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있는 뮤지컬 <라흐 헤스트>(Seoul, 2022)는 요절한 천재 시인 이상과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 두 예술가의 아내로 알려진 김향안을 재조명하여 스스로 화가이자 수필가, 미술평론가였던 김향안을 '향안'과 그녀의 젊은 시절 '동림'으로 캐릭터를

나누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과 예술에 대한 찬사와 위로를 전하는 작품이다. 2020년 CJ 문화재단 스테이지업 최종 선정작으로 선정된 후 추가 개발 과정을 거쳐 2022년 초연하였고 그 해 제7회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1년 만에 재공연하여 2023년에는 제8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작품상과 대본상, 음악상(300석 미만) 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작품의 완성도와 미학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또한 2023년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K-뮤지컬 로드쇼 in 브로드웨이 사업을 통해 미국 뉴욕에서 29시간 리딩 쇼케이스를 진행하였고, 2024년에는 후속 사업으로 영미권 중기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뮤지컬 <라흐 헤스트>는 표면적으로는 실존했던 한국 예술가들의 생애를 다루고 있지만 그 층위 아래 문화와 언어를 넘는 보편적인 감동과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렇기에 국경 너머의 관객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해외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2023년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딩 쇼케이스에서 낯선 인물들임에도 분명하게 전달되는 정서적 감동에 대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에 상업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여러 방면에서 기회를 얻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함을 피부로 느꼈다. 2024년 영미권 중기 개발 지원사업의 1개년 사업이 후속 리딩 쇼케이스나 여타 개발 단계의 트라이아웃이 아닌 콘서트 형식으로 준비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말하자면 음악과 정서를 중심으로 현지 관계자들에게 작품을 알리고 다음 과정을 함께할 비즈니스 협업 파트너를 찾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단순 라이선스 진출이 아니라 현지 상업 프로덕션으로 초연하기 위해서라면 한국에서 충분히 개발하고 공연한 작품들도 영미권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에 공을 들여야 한다. 뮤지컬 <라흐 헤스트>의 경우 초기 개발 단계부터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과 협업해 실존했던 인물에 대한 깊은 연구와 고증으로 각 캐릭터와 그들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었고, 대본의 구성 역시 '향안'의 시간은 역행하고 '동림'의 시간은 순행하여 삶의 순간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하는 식으로 구성되는 등 대본과 음악에 있어서 개발 관점의 수정보다는 언어적 관점의 수정이 주가 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다음 단계를 모색하기 위한 프로듀서의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한국 프로듀서의 입장에서 비영리 단체와의 인핸스먼트 제작 방식은 프로듀서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뉴욕 뮤지컬 업계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프로듀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미국 공연시장은 방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매우 견고한 이너 서클을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신작이 개발되는 역동적인 환경이란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이 그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효과적인 네트워크만 구축할 수 있다면 콘텐츠가 지닌 경쟁력으로 유의미한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콘텐츠는 이미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적인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세계적인 콘텐츠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미 국 권 역 연 구 보 고 서

이응규

(주)이지뮤지컬컴퍼니 대표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영화와 소설의 뮤지컬화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영화와 소설 등 원작 콘텐츠를 각색한 작품들이 꾸준히 흥행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브로드웨이의 인기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창작뮤지컬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1.2 연구 범위

원작을 성공적으로 각색한 영화 및 소설 바탕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해 트렌드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흥행작인 <노트북 The Notebook>(Chicago, 2022),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New Jersey, 2023), <아웃사이드 The Outsiders>(2019), <워터 포 엘리펀트 Water for Elephants>(Atlanta, 2023) 등을 사례로 다루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 창작뮤지컬 <유엔잇 You&It>(Daegu, 2019)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최근 트렌드 분석

2.1 영화와 소설 원작의 뮤지컬화

- **원작 감성 재현:** 영화나 소설의 원작을 뮤지컬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이미 관객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경험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최근 브로드웨이에서는 영화와 소설 원작의 서사적 깊이와 감정을 무대 기술, 조명, 음악으로 재현하여 관객들에게 원작 이상의 몰입감을 제공하는 것이 뚜렷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 검증된 작품성 위에 무대 예술 요소를 더해 익숙하지만 참신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관객의 향수를 자극하고 감성을 고조시키는 전략은 현재 브로드웨이에서 매우 강력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다.
- **사례 분석:**
 - ① <노트북 The Notebook>(Chicago, 2022): 원작 영화와 소설이 전하는 사랑과 기억의 주제를 뮤지컬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해 관객이 주인공의 깊은 내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비 내리는 장면 등 시각적 요소의 연출과 감성적인 음악이 결합되어 극적인 무대를 구성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작의 서사를 더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하여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 ②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New Jersey, 2023): F.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의 소설이 가진 1920년대의 화려함과 그 이면의 허망함을 무대 위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브로드웨이 특유의 뛰어난 무대 기술과 정교한 의상 디자인이 어우러져 개츠비의 비극적인 사랑과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한다.
 - ③ <아웃사이드 The Outsiders>(2019): 사회적 소외와 청소년 문제를 중심으로, 청소년기의 고뇌와 열정을 무대 위에서 강렬하게 표현한다. 미국의 젊은 세대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함께 조명과 음향을 활용한 역동적인 장면 전환과 배우들의 에너지 넘치는 연기를 통해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그들의 감정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 ④ <워터 포 엘리펀트 Water for Elephants>(Atlanta, 2023): 서커스와 인형극이 결합된 독특한 무대 구성을 통해 소설 속 서사의 생생한 감동과 긴장감을 무대 위에 구현한다.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하는 시각적 연출이 돋보이며 감동적인 장면 전개를 통해 관객의 몰입도를 극대화한다.



<워터 포 엘리펀트 Water for Elephants>(Atlanta, 2023) 무대 / 출처: NY TIMES

2.2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성공 요소 분석

- **감정적 서사의 강화:**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원작의 감정선을 한층 깊이 있게 표현해 관객에게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작품 속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감정을 극대화하는 음악과 연출에 집중해 관객이 극의 흐름에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브로드웨이 작품은 강력한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한다.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주얼 효과:** 브로드웨이는 최신 무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징적인 장면과 고유한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구현한다. 예를 들어 <노트북 The Notebook>(Chicago, 2022)의 비 내리는 장면이나 <워터 포 엘리펀트 Water for Elephants>(Atlanta, 2023)의 서커스 장면은 첨단 기술과 무대 장치를 통해 원작의 서사적 깊이와 시각적 스펙터클을 동시에 제공하며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무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의 극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노트북 The Notebook>(Chicago, 2022) 무대 / 출처: The Guardian

- **다양한 음악 장르의 융합:** 전통적인 뮤지컬 음악에 힙합, 록, 재즈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결합하여 음악적 다채로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음악적 융합은 기존 뮤지컬 팬뿐 아니라 더 넓은 관객층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 기여하며 작품의 개성과 매력을 한층 강화한다.

3. 한국 뮤지컬의 해외진출 방안

3.1 한국 창작뮤지컬의 강점과 도전 과제

- **강점:** 한국 창작뮤지컬은 감정과 공감을 강조하는 서사적 구조와 다채로운 스토리 라인을 통해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스 사이공 Miss Saigon>(London, 1989)이나 <왕과 나 The King and I>(1951)와 같이 아시아적 감성과 독창적 이야기를 강조한 작품들은 이미 국제적으로 오랜 시간 인정받아 왔다. 한국 창작뮤지컬 역시 이러한 강점을 통해 신선하고 독특한 감정선을 형성할 수 있으며 실제로 2024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Fringe)에서 공연된 <유앤잇 You&It>(Daegu, 2019)은 “신선한 감정 표현과 탄탄한 이야기 구조, 눈물을 자극하는 음악의 조화가 관객들의 호평을 이끌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2023년 한국 창작뮤지컬 작품 중 일부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극장 투어에서 성공적인 수익을 기록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한국적 정서를 담은 작품들은 글로벌 관객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가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앤잇 You&It>(Daegu, 2019) 포스터와 무대 / 출처: (주)이지뮤지컬컴퍼니, Scottish Field

- **도전 과제:** 한국 창작뮤지컬이 국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 관객의 선호도와 문화적 맥락에 맞춘 번역과 현지화 작업이 필수다. 예를 들어 <유앤잇 You&It>(Daegu, 2019)의 경우 영국 에든버러 공연을 위한 번역과 현지화 작업에만 약 2년이 소요되었으며, 현지 창작진과의

협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언어 표현과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철저한 현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관객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해외진출 시 필요한 대규모 투자 역시 큰 도전 과제이다. <미스 사이공 Miss Saigon> (London, 1989)의 경우 초연에만 약 1천만 달러 이상(한화 약 14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브로드웨이의 완성도 높은 무대 연출과 첨단 기술 효과를 위해 필수적이었다. 한국 창작뮤지컬 역시 이러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 충분한 자본과 더불어 현지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 뮤지컬 제작사들은 현지 제작사와 공동제작을 추진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자본을 유치하는 한편, 배급과 마케팅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2 사례 연구: 뮤지컬 <유앤잇 You&It>의 해외진출 전략

- **NAMT 지원을 통한 현지화 가능성 검증:** <유앤잇 You&It> (Daegu, 2019)은 미국의 저명한 뮤지컬 페스티벌인 뉴 뮤지컬 페스티벌(New Musical Festival)에 지원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작품의 현지화 가능성과 시장성을 검증받을 계획이다. NAMT가 주최하는 뉴 뮤지컬 페스티벌(New Musical Festival)은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페스티벌로, 이곳에서 작품의 잠재력을 인정받는다면 향후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NAMT에서의 피드백은 작품이 현지 관객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후 브로드웨이 및 오프 브로드웨이 관계자들과의 협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다. 이는 작품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브로드웨이와 오프 브로드웨이 프로덕션 준비:** <유앤잇 You&It> (Daegu 2019)은 그동안 영국 웨스트엔드 현지 창작진과의 협업을 통해 현지화 과정을 거치며 2차례 리딩과 쇼케이스 공연을 통해 작품을 발전시켜 왔다. 더불어 이제 브로드웨이 진출을 목표로 삼은 만큼 브로드웨이 관객의 취향과 감각에 맞춘 추가적인 윤색 작업이 필수적이다. 브로드웨이는 감정선, 연출 스타일, 무대 미학에서 각기 다른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의 작업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브로드웨이 관객이 더욱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 방식을 정교하게 조정하고 문화적 세부 사항을 현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지의 숙련된 각색 작가와 연출가의 참여를 통한 리딩 및 워크숍 과정을 거쳐, 작품의 감동과 매력을 오프 브로드웨이와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영어 OST 제작 및 글로벌 팬층 확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영어 버전 OST를 제작하여 팬층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OST는 작품의 첫인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주요 매개체이기에 고품질의 녹음과 마스터링을 거쳐 높은 완성도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영어 OST는 디지털 플랫폼과 SNS를 통해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작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국가의 팬층이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심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창작뮤지컬의 해외진출 가능성과 전략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 **브로드웨이 트렌드의 한국 뮤지컬 적용 가능성:** 브로드웨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영화·소설 원작 뮤지컬화 트렌드는 한국 창작뮤지컬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감정선을 더욱 깊이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과 비주얼 효과의 적극적인 활용은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뮤지컬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전략적 현지 파트너십의 중요성:** 한국 창작뮤지컬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프로덕션 회사 및 극장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관객의 선호와 문화적 배경에 맞춘 공연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창작뮤지컬이 현지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지속가능한 글로벌 진출 모델 구축:** 한국 뮤지컬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무대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진출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현지화와 글로벌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창작 및 배급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한국 창작뮤지컬이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이 한국 창작뮤지컬의 국제화 과정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뮤지컬의 위상을 높이는 초석이 놓이길 기대한다.

한국 뮤지컬의 문화적 현지화 전략

- 브로드웨이 진출의 필요 요소

1. 서론

• 연구 배경

한국 뮤지컬은 창의적인 스토리와 예술적 표현을 통해 국내 공연예술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세계 무대에서 한국 뮤지컬의 입지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와 같은 국제적인 공연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이 필수적이다. 최근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New Jersey, 2023)와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Seoul, 2016)과 같은 한국 창작뮤지컬이 브로드웨이 무대에 진출하면서 한국 뮤지컬이 세계 관객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 뮤지컬의 국제적 성공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와 같은 세계적인 공연시장에서 성공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브로드웨이 진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현지화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 뮤지컬이 글로벌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연구 범위

본 연구는 브로드웨이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작품들의 현지화 전략을 분석하여 한국 창작뮤지컬의 해외진출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를 탐구한다. 또한 현지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번역 및 연출의 윤색 작업, 마케팅 전략, 현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포함해 한국 창작뮤지컬이 세계 시장에서 장기적 성공을 거두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출처

• 사진 자료:

1. <워터 포 엘리펀트 Water for Elephants>(2023) 장면,
출처: NY TIMES (<https://www.nytimes.com/2023/09/12/theater/water-for-elephants-broadway.html>)
2. <노트북 The Notebook>(2022) 무대,
출처: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tage/2024/mar/14/the-notebook-review-broadway>)
3. <유앤잇 You&It>(2019) 포스터,
출처: (주)이지뮤지컬컴퍼니
4. <유앤잇 You&It>(2019) 무대,
출처: Scottish Field (<https://www.scottishfield.co.uk/fringe/fringe-review-you-it-the-musical/>)

• 통계 및 연구 자료: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뮤지컬협회

임찬욱 (2020). 한국과 브로드웨이 뮤지컬 제작비 구조 비교 분석: 2016~2017 시즌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산업학회, 20(4), 109-118

박병성 (2018). 뮤지컬의 메가, 브로드웨이의 역사와 환경. 한국예술연구, 19, 315-326

신종철 (2020).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을 통한 뮤지컬 소비 특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247-253

이준표 (2015). 국내 뮤지컬 활성화 방안과 중형 창작뮤지컬 개발에 관한 연구-아이러브 쇼 보트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47

2. 브로드웨이 뮤지컬 현지화 전략의 중요성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한국 창작뮤지컬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공감대 형성과 상업적 리스크 최소화라는 두 가지 전략이 핵심이 된다. 브로드웨이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이러한 전략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브로드웨이 무대에 진출하려는 한국 창작뮤지컬이 현지 시장에서 주목받기 위해서는 한국적 감성은 유지하되 현지 관객과의 문화적 소통을 강화하고 상업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현지화 작업이 필수로 요구된다.

2.1 문화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브로드웨이 관객은 독창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적 코드와 감정선을 반영한 작품에 더욱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적 정서와 이야기를 담은 한국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성공하려면 보편적인 감정선과 주제를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한국적 감성은 유지하되 사랑, 꿈, 인간관계처럼 미국 관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를 중심으로 스토리와 캐릭터를 구성하여 문화적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언어적 표현의 현지화 역시 필수적인 요소이다. 단순한 번역을 넘어 브로드웨이 관객이 감정적으로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사를 영어로 번역할 때 라임과 리듬감을 부여하고 브로드웨이 관객이 유머와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적 코드를 맞추는 작업이 요구된다. 실제로 한국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Seoul, 2016)의 영어 대본 작업 당시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라임과 언어유희를 추가해 로컬 관객이 보다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현지화하여 큰 공감을 끌어낸 사례가 있다. 이러한 언어적 조정은 작품의 감정선과 음악적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관객이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2.2 상업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저작권 소멸 작품 활용

브로드웨이 무대에 한국 뮤지컬을 성공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상업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저작권이 소멸된 원작을 활용할 경우 기본적인 스토리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어 현지화 작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다. 이로써 상업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작품 연출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F.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으로, 자유로운 각색이 가능하여 브로드웨이 관객의 기대에 맞춘 창의적인 연출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 작품은 미국 관객에게 익숙한 1920년대의 배경과 화려한 파티 장면을 통해 시각적 몰입도를 높였으며 문화적 공감대를 강화하여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을 활용할 경우 관객의 관심을 끌기 쉬우며 스타 캐스팅이나 독특한 시각적 연출을 추가해 흥행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널리 알려진 대중적 원작을 바탕으로 한 <노트북 The Notebook>(Chicago, 2022) 역시 친숙한 주제를 통해 브로드웨이에서 상업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흥행 가능성을 높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이나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원작을 활용하는 전략은 상업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관객의 흥미를 끌어들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3. 사례 분석: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와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을 중심으로

3-1.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의 브로드웨이 및 웨스트엔드 현지화 과정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New Jersey, 2023)는 오디컴퍼니의 신춘수 대표가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단독 리드 프로듀서를 맡은 뮤지컬이며, 미국의 1920년대를 배경으로 광란의 시대를 투영한 다채로운 캐릭터를 통해 인간의 꿈과 사랑, 욕망을 그려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미국의 대표적 고전소설로 평가받는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새로운 각색과 현대적 연출을 더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올렸다.

이 뮤지컬은 브로드웨이 본 공연에 앞서 2023년 뉴저지의 페이퍼밀 플레이하우스(Paper Mill Playhouse)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며 작품의 주요 장면과 무대 연출을 점검하는 초기 현지화 과정을 거쳤다. 주로 이러한 워크숍 과정에서는 초청된 관계자와 일부 관객을 대상으로 실험적 무대와 간소화된 의상으로 주요 장면을 시연하여 관객이 작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한다. 이후 본 공연에서는 대규모 세트와 LED 스크린을 통한 시각적 효과를 강화하여 화려한 파티 장면을 구현했다.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New Jersey, 2023) 무대 / 출처: The Musical

브로드웨이 본 공연에서는 주연인 제이 개츠비 역에 제레미 조던(Jeremy Jordan), 데이지 뷰캐넌 역에 에바 노블자다(Eva Noblezada)를 캐스팅해 두 배우의 강렬한 연기를 통해 작품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와 같이 브로드웨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주연 캐스팅과 화려한 연출은 브로드웨이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프리뷰 공연 10회차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이 공연은 개막과 동시에 주당 매출 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원 밀리언 클럽'에 입성한 데 이어 무려 20주 연속, 이 상태를 유지하며 흥행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게다가 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평단으로부터 작품성까지 인정받았다. 제68회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Drama Desk Awards)에서는 최우수 무대 디자인상을 받았고, 제77회 토니상(Tony Awards)에서는 뮤지컬 부문 의상 디자인상을 받으며 높은 예술성을 입증했다. 또한 지난 8월 2일 발매된 OST 앨범은 빌보드 차트 '캐스트 앨범(Cast Albums)' 부문 1위에 오르며 관객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브로드웨이에서의 성공은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New Jersey, 2023)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높였고 곧바로 런던 웨스트엔드 진출로 이어졌다. 런던 프로덕션은 2025년 4월 11일 프리뷰 공연을 시작으로, 4월 24일 공식 개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신춘수 프로듀서의 "시대와 국가, 인종을 넘어 긴 세월 동안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생산해 온 명작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뮤지컬만의 독창적인 플롯과 생명력 넘치는 캐릭터로 구축하였다. 현대 관객에게 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확장시키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상주의 정신을 생각하게끔 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작품에 대한 목표를 확실히 보여주는 행보이다.

3-2.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의 브로드웨이 진출과 현지화 과정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Seoul, 2016)은 미래 서울을 배경으로, 인간과 로봇의 사랑을 그려내며 한국적 정서와 서정적 감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한국 대표 창작뮤지컬이다. 2016년 우란문화재단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에서 리딩 공연을 진행하며 해외진출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리딩 공연 직후 현 브로드웨이 프로듀서인 제프리 리처드(Jeffrey Richards)가 브로드웨이 진출을 제안했다. 이후 2020년에는 애틀랜타에서 트라이아웃 공연을 진행하며 현지 관객의 호응에 브로드웨이 초연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일이 있었다. 팬데믹 동안 내부적으로 두 차례의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작품이 브로드웨이 관객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창작진의 각본 수정, 연출 방향 수정 등으로 현지화에 공들였다.

한국 오리지널 프로덕션과 달리 브로드웨이 프로덕션에서는 수년의 현지화를 통해 새로운 인물과 곡이 추가되어 글로벌 관객의 몰입을 높이는 한편, 한국적 감성과 서정성을 유지하며 관객의 공감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프리뷰 공연에서는 "브로드웨이에서 본 적 없는 독창적인 작품"이라는 피드백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았고 평점 92점을 받으며 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Seoul, 2016) 공연, 출처: Maybe Happy Ending, 촬영: 매튜 머피(Matthew Murphy)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Seoul, 2016)은 브로드웨이 초연을 위한 오랜 개발 과정을 통해 마침내 2024년 10월 벨라스코 시어터(Belasco Theater)에서의 프리뷰를 시작으로 브로드웨이에 정식 진출한다. 국내 NHN은 이 작품의 브로드웨이 공연에 투자하여 성공적인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창작뮤지컬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4. 한국 창작뮤지컬의 글로벌 성공을 위한 방향성

한국 창작뮤지컬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업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접근이 필수적이다. 한국적 서사의 고유한 정서와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관객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와 캐릭터 중심으로 작품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작품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현지의 문화적 기대에 부응하여 감동을 줄 수 있다.

특히 브로드웨이와 같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언어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는 섬세한 번역 작업을 통해 관객에게 강력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라임이나 언어유희, 현지의 문화적 코드 등을 반영한 번역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한 대사 전달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또한 브로드웨이 관객이 기대하는 음악적 스타일과 연출 기법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관객이 기대하는 요소를 충족시키면서도 한국 창작뮤지컬 특유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한국 창작뮤지컬은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지화와 독창성의 조화라는 큰 방향성을 유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참여한 ‘뮤지컬 전문 프로듀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본 연구는 한국 창작뮤지컬이 브로드웨이와 같은 세계적 무대에서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상업적 리스크 최소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한국적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관객과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통해 작품의 몰입도를 높여 감동을 극대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New Jersey, 2023)와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Seoul, 2016)의 사례는 이러한 접근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들 작품은 한국적 정서 또는 아시아적 정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브로드웨이 관객이 친숙하게 느끼는 서사와 연출을 통해 문화적 공감을 얻어냈다. 특히 저작권이 소멸된 원작을 선택하거나 대중에게 익숙한 소재를 바탕으로 상업적 리스크를 줄이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화 작업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략적 접근이 돋보였다.

앞으로 한국 창작뮤지컬이 글로벌 무대에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관객의 기대를 면밀히 반영한 현지화 전략이 꾸준히 발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와 프로듀서는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서사와 캐릭터 구축에 주력하는 동시에 독창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감동을 전하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뮤지컬은 단순한 해외진출을 넘어 세계 관객과 깊은 공감을 나누는, 진정한 글로벌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기사	브로드웨이에서 웨스트엔드까지: 연못을 가로지르는 연극 스타일 비교 https://www.broadwaycollection.com/ko/news-features/broadway-to-west-end-comparing-theatrical-styles-across-the-pond
기사	NHN링크,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 공연 투자 (이경탁기자, 2024.11.12)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4/11/12/YOJZVFB2ZNFUZCHO25ZLIKJ5L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기사	오디컴퍼니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 브로드웨이 흥행 순항 (이솔희기자, 2024.5.27) https://www.themusical.co.kr/News/Detail?num=14077
연구	박병성. (2018) 뮤지컬의 메카, 브로드웨이의 역사와 환경. 한국예술연구 제19호, 315-236
연구	안세영. (2015) [SPECIAL] 테마로 읽는 뮤지컬 도서. The Musical No.140
사진	사진1.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2024) 무대, 출처: The Musical https://www.themusical.co.kr/News/Detail?num=14040 사진2. 사진3.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2016) 공연, 출처: Maybe Happy Ending 홈페이지

미 국 권 역 연 구 보 고 서

**K-MUSICAL
PRODUCERS'
WORKSHOP
IN NYC/LONDON
2024**

조기뵐

(주)더블케이엔터테인먼트 제작팀장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을 통한 사회적 이슈와 현대적 가치 반영을 중심으로

1.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

-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을 통한 사회적 이슈와 현대적 가치 반영을 중심으로

최근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을 주요 주제로 삼아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사회적 이슈를 다룬 작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스레 캐스팅, 연출, 스토리텔링 등 전반적인 제작 과정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다양한 관객층의 극장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순히 특정 소수 집단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보편적 메시지를 통해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형태다.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 트렌드의 배경

브로드웨이는 오랜 시간 백인 중심의 주류 문화를 다루어 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아시아,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이야기를 조명하는 작품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관객층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가려는 브로드웨이의 노력으로 읽힌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작품들은 관객층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적 포용과 평등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무대 위에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드러낸다.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감수성 향상

현대 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문화와 예술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관객들은 이제 자신을 반영하는 이야기와 캐릭터를 더 선호하는 추세다.

브로드웨이는 이러한 사회적 감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정체성을 탐구하고 포용적인 시각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객은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자신과 연결된 이야기에 공감하게 된다. 더불어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는 사회적 가치를 논의하고 경험하는 공간으로 확장된다. 이처럼 브로드웨이는 다양성과 포용을 반영한 작품들로 더 많은 관객의 공감을 얻으며 예술적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창작자와 연기자들의 다양성 증가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창작자와 배우의 유색인종 비율이 증가하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시각이 작품에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품들은 더욱 다양한 정체성과 독창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해밀턴 Hamilton>(2015)은 다인종 캐스팅을 통해 미국 건국사를 현대적이고 포용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했으며 <KPOP>(2017)은 한국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아시아계 예술가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창작자와 배우가 자기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진정성을 더하고 다양한 관객층에게 깊은 공감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브로드웨이가 단순히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이야기와 시각을 포용하며 예술적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연예술의 변화와 혁신 추구

브로드웨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종이나 정체성과 같은 현대적인 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며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표현 방식을 통해 예술적 다양성을 확장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회가 원하는 가치에 부합하고 동시에 공연예술의 가능성을 넓히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포용성과 공감의 메시지 강화

다양성과 포용성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며 예술은 이를 반영하고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브로드웨이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관객이 편견과 차별을 넘어 보다 열린 시각을 가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 시어터 워크숍(New York Theatre Workshop)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위 리브 인 카이로 We Live in Cairo>(Cambridge & Massachusetts, 2019)는 이집트 혁명을 배경으로 중동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조명하며, 다문화적 포용성과 인간적 공감을 강조하는 현대 브로드웨이

트렌드의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된다. 혁명과 그 이후의 개인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보편적인 공감을 끌어내고 아랍 음악적 요소와 현대 뮤지컬 형식을 결합해 참신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한다. 이러한 특징은 다양한 배경을 포용하며 관객과의 사회적 대화를 유도하는 최근 뮤지컬계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한다.



<위 리브 인 카이로 We Live in Cairo>
(Cambridge & Massachusetts, 2019) 공연 사진
출처: 뉴욕 극장 워크숍(New York Theatre Workshop)
홈페이지

작품 내 문화적 다양성 반영

브로드웨이는 새로운 이야기와 캐릭터를 통해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문화적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고 있다. <KPOP>(2017) 같은 작품은 한국 대중음악과 문화를 주제로 삼아 아시아계 배우와 캐릭터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해밀턴 Hamilton>(2015), <엠제이 MJ The Musical>(2021), <헬스 키친 Hell's Kitchen>(2023)과 같은 흑인 음악과 문화를 표현하는 작품들은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인종과 문화를 다룬 작품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의의 작품은 이야기의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 주로 작품의 배경과 주제에 맞는 인종의 배우를 캐스팅해 진행된다.

포용적인 캐스팅 강화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해밀턴 Hamilton>(2015)는 역사적 인물을 다양한 인종의 배우에게 맡겨 큰 화제를 모았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뮤지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동시에 작품의 주제와 메시지를 더욱 풍부하게 전달하는 데 기여했다.

관객층 확대와 글로벌화

브로드웨이는 기존의 백인 관객층을 넘어 전 세계의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아시아, 남미, 유럽 등 다양한 문화권의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라이온 킹 The Lion King>(Minneapolis, 1997)과 <알라딘 Aladdin>(Seattle, 2011) 같은 다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작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브로드웨이의 글로벌화에 기여하는 중이다.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은 무대 위 변화에 그치지 않고 브로드웨이의 글로벌 관객층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브로드웨이 투어 공연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품들이 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현재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와 다양한 캐스팅을 통해 더 넓은 관객층이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무대의 혁신에 그치지 않고 브로드웨이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브로드웨이의 독창성을 강화하며 외부 작품이 브로드웨이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중요하게 기능한다. 이러한 트렌드는 브로드웨이를 단순한 공연예술의 중심지에서 전 세계적인 문화 교류와 혁신의 장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2.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최근 트렌드인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은 한국 뮤지컬의 글로벌 진출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캐릭터와 창작자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 뮤지컬은 K-팝과 같은 글로벌 문화 요소를 결합하여 국제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앞서 예시로 제시한 <해밀턴 Hamilton>(2015)이나 <위 리브 인 카이로 We Live in Cairo>(Cambridge & Massachusetts, 2019) 같은 작품은 역사적 사실과 지역적 이슈를 현대적인 형식으로 재해석해 브로드웨이 관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한국 뮤지컬도 글로벌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브로드웨이의 사회적 메시지(예: 성평등, 인종 간 화합, 환경문제)를 자연스럽게 반영해 관객이 작품 속에서 자신과 연결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현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품 개발 후 현지 전문가와의 협력은 성공적인 진출 과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브로드웨이 관객 취향과 시장 특성을 잘 이해하는 연출가, 작곡가, 제작자와 협업하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문화적 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 뮤지컬이 글로벌 관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도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독창성과 경쟁력을 갖춘 작품으로 자리 잡는 데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한국 뮤지컬의 현지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일회성의 흥미를 끄는 수준을 넘어 브로드웨이 관객에게 지속적인 감동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콘텐츠가 무엇일지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 뮤지컬의 글로벌 도약과 브로드웨이 현지화 전략 방향 제시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매년 약 1,400만 명의 관객이 찾고 연매출 17억 달러를 기록하는 브로드웨이는 세계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전 세계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특히 최근 브로드웨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작품을 수용하며 포용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뮤지컬은 K-컬처의 세계적 성공을 기반으로 브로드웨이 진출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단순히 한국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현지 관객의 문화적 정서를 이해하고 글로벌 관객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브로드웨이 관객의 특성과 문화적 차이를 분석하고 한국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현지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현지화의 필요성

현지화는 단순히 대사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현지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브로드웨이 관객의 정서, 유머, 문화적 기대치를 충족하며 동시에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창적인 콘텐츠와 예술성을 갖춘 한국 뮤지컬이지만 미국 시장의 문화적 맥락과 관객의 선호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지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한국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2.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특징과 성공 사례

2-1. 브로드웨이의 핵심 성공 요소

보편적 메시지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작품들은 특정 문화적 배경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해밀턴 Hamilton>(2015)은 미국 독립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지만 자유와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 관객에게 감동을 준다.

음악의 다양성

브로드웨이 작품은 힙합, 팝,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활용해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디어 에반 헨슨 Dear Evan Hansen>(Washington, 2015)은 현대적 팝 스타일의 음악으로 젊은 관객의 공감을 얻었고 <몰랑루즈! Moulin Rouge!>(Boston, 2018)는 리믹스된 팝 음악으로 관객의 몰입도를 높였다.

다문화적 포용

브로드웨이에는 다인종 캐스팅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작품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라이온 킹 The Lion King>(Minneapolis, 1997)은 아프리카 전통 음악의 리듬과 멜로디, 화려한 의상과 무대를 통해 아프리카 문화의 풍부함을 글로벌 무대에서 선보이며 관객의 감동을 자아냈다. <해밀턴 Hamilton>(2015)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이야기를 힙합, R&B, 재즈 등 현대적 음악 장르와 인종에 구애받지 않는 캐스팅을 결합해 미국의 다문화적 정체성과 포용성을 강조한 혁신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알라딘 Aladdin>(Seattle, 2011)은 중동의 전통적인 리듬과 멜로디를 활용해 아라비아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재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작품들은 브로드웨이가 다문화적 포용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2-2. 한국 뮤지컬 및 제작사의 브로드웨이 진출 사례

사례 1: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

2024년 브로드웨이 벨라스코 시어터(Belasco Theatre)에서 초연한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Seoul, 2016)은 한국 창작뮤지컬의 독창성과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 선보인 중요한 사례다. 이 작품은 미래 서울을 배경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과는 다른 헬퍼봇 두 대가 사랑이라는 감정과 인간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그려냈다. 프리뷰를 포함한 20회 공연 동안 객석 점유율 85% 이상의 기록을 세우며 관객과 평론가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는 한국 창작뮤지컬이 단순히 국내를 넘어 세계 뮤지컬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작품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사랑과 인간성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전 세계 모든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기반을 제공하며 공연의 몰입도를 높였다. 동시에 미래 서울이라는 독창적이고 신선한 배경 설정은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작품이 지닌 개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여기에 더해 세련된 음악과 감각적인 연출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음악적 아름다움과 시각적 연출이 조화를 이루며 한편의 독특한 예술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든 셈이다.

이 작품은 한국 뮤지컬이 브로드웨이라는 세계적 무대에서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 향후 한국 창작뮤지컬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히 현지화와 보편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독창성을 살리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Seoul, 2016)
벨라스코 극장 간판 및 첫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

사례 2: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New Jersey, 2023)는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한국 제작사인 오디컴퍼니가 리드 프로듀서로 주도해 제작한 작품이다. 이는 한국 제작사가 단독으로 리드 프로듀싱에 참여한 최초의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한국 뮤지컬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 작품은 2023년 뉴저지에서 초연 이후, 2024년 4월 25일 브로드웨이에서 개막했으며 브로드웨이의 기존 관객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원작 팬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New Jersey, 2023)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인지도가 높은 고전 소설을 뮤지컬화 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인기 있는 원작은 다양한 관객층을 유도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며 안정된 스토리 라인을 기반으로 뮤지컬만의 새로운 매력을 덧입힐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오디컴퍼니의 전문성과 제작 역량 또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주요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데, 오랜 제작 경험과 창의적인 연출 감각을 통해 브로드웨이의 높은 수준에 부합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

이 작품은 또한 한국의 예술적 감성과 브로드웨이 무대 기술의 결합을 통해 향후 새로운 문화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제작사가 리드 프로듀서로 브로드웨이 시장에 도전했다는 점은 단순한 제작 참여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브로드웨이의 기존 제작 모델, 특히 1인 프로듀서 체제와는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향후 뮤지컬 제작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두 사례는 한국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다양한 가능성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제시한다.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Seoul, 2016)은 한국 창작뮤지컬의 독창성과 감각적 완성도를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으며 창작 기반 뮤지컬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달리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New Jersey, 2023)는 원작의 높은 인지도와 한국 제작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협업과 제작 방식이 브로드웨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

이 사례들은 글로벌 관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적 정체성과 보편성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특히 브로드웨이라는 치열한 시장에서 차별화된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통해 초기 관객층을 확보하는 일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더불어 해외 유명 IP 즉 저작권을 소유하고 재창작하는 방법이 새로운 관객층을 유치하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뮤지컬은 독창성과 현지화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 두 작품이 보여준 사례는 한국 뮤지컬이 단순히 지역적 성공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3. 한국 뮤지컬의 브로드웨이 현지화 전략

3-1. 콘텐츠 현지화

스토리라인의 재구성

한국적인 전통 소재를 현대적인 문제와 연계하여 브로드웨이 관객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재구성 필요

- **음악적 조화:** 전통 음악(판소리, 대금 등)과 현대적 장르(K-팝, 힙합 등)를 결합해 브로드웨이 관객에게 친숙하면서도 독창적인 음악적 경험 제공
- **대사와 유머의 현지화:** 언어 번역뿐 아니라 미국 관객에게 친숙한 유머와 문화적 표현으로 각색 필요

3-2. 무대 연출 및 캐스팅

- **다문화적 캐스팅:** 현지 배우와 한국 배우의 혼합 캐스팅을 통해 포용성을 강화
* 예: <해밀턴 Hamilton>(2015)에서 인종에 구애받지 않는 캐스팅으로 작품의 메시지를 강화한 사례
- **무대 디자인:** 한국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의적인 무대 디자인을 통해 시각적 차별성을 강조
* 예: 한국 전통 건축물의 미니멀리즘적 요소를 반영한 무대

3-3. 마케팅 및 홍보 전략

- **K-컬처와의 협업:** K-팝 스타와 협업하거나 SNS 캠페인을 통해 글로벌 관객의 주목을 유도
* 예: BTS나 블랙핑크와의 협업을 통해 K-팝 팬층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음
- **현지화된 홍보 전략:** 브로드웨이 평균 관객의 70%는 현지인이며 해외 관광객은 약 30%에 불과, 따라서 현지화를 통해 브로드웨이 고유 관객층(전통 뮤지컬 팬)과 K-팝 팬층(젊은 세대) 모두를 끌어들이는 전략 필요
- **소셜 미디어 활용:** 미국 관객의 문화적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소셜 미디어 캠페인과 브로드웨이

시장을 겨냥한 홍보 전략 필요, 예를 들어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Seoul, 2016)의 경우 트위터에서 공연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하여 약 5,000건의 긍정적 트윗이 작성됨

- **오프라인 홍보 활동:** 지역 축제나 브로드웨이 페스티벌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 등
- **현지화 테스트:** TIER 1~3, 콘서트, 오프 브로드웨이 공연 등 순차적 소규모 테스트 공연을 통해 관객 반응 확인 후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

4. 결론

한국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현지화, 다문화적 캐스팅 및 무대 디자인, 그리고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적 전통을 현대적 가치와 결합해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브로드웨이 관객의 공감을 얻고 글로벌 관객의 포용적 성향에 맞춘 창의적인 연출과 현지 배우 캐스팅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K-컬처의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지화 전략뿐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조윤진

고집센아이컴퍼니 대표

* 참고문헌

1. 브로드웨이 흥행 보고서 (2023)
/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5021100072>
2. Hamilton 제작 인터뷰 자료
/ <https://www.chosun.com/culture-life/performance-arts/2023/07/27/GZ7VHVFF25GXRKXEFADOGCMXXA/>
3. KPOP the Musical 리뷰 및 평가 보고서
/ <https://www.theatrely.com/post/kpop-the-musical-shines-on-broadway-review>
4.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 브로드웨이 진출 관련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41112142950>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EFL3PZ0>
5. 뉴욕 극장 워크숍(New York Theatre Workshop) 홈페이지
/ <https://www.nytw.org/show/we-live-in-cairo/>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1.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

1) 현대적 주제를 사용

- 공연 내용

<해밀턴 Hamilton>(2015)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생애를 다룬 작품으로, 2015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며 현대 뮤지컬의 패러다임을 바꾼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음



해밀턴 공연 사진



해밀턴 무대 사진

<사진 제공 : (좌)대니 칸(Danny Kaan), (우)조윤진>

- 공연 특징

- 힙합과 뮤지컬의 융합: 빠른 템포의 랩으로 복잡한 역사적 사건과 캐릭터 간의 감정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전달
- 18세기 미국 독립과 건국 과정을 다루지만 현대적인 언어와 표현을 사용해 역사적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전달
- 백인 중심의 역사지만 주요 배역을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배우들이 맡아 연기
- 회전 무대와 조명, 소품 등을 활용해 역동적이고 몰입감 있는 무대를 구현
- 정치와 인종, 이민자 문제 등 현대 사회와 연결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
- 디즈니+(Disney+)에서 스트리밍으로 제공되어 뮤지컬 관객층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

2) 대중에게 친숙한 소재 활용

- 영화나 소설처럼 검증된 이야기를 통해 관객에게 친숙함과 신선함을 동시에 제공
- 소설이나 영화의 기존 팬층을 뮤지컬 관객으로 유입

사례 ① 뮤지컬 <워터 포 엘리펀트 Water for Elephants>(Atlanta, 2023)

- 원작

- 소설 사라 그루엔(Sara Gruen)의 동명 소설
- 로버트 패틴슨(Robert Pattinson)과 리즈 위더스푼(Reese Witherspoon)이 주연을 맡아 2011년 영화화

- 내용

- 대공황 시대의 미국 서커스를 배경으로, 젊은 수의사 제이콥이 서커스단에서 겪는 사랑과 갈등, 동물과의 유대를 그린 이야기

- 공연 특징

- 서커스의 화려함과 긴박한 분위기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공중곡예, 마술 효과, 프로젝션 맵핑 등 최첨단 무대 기술 활용
- 코끼리 로지(Rosie)를 무대에 등장시키는 과정에서 인형극과 특수 효과를 결합해 생생함을 더함



<워터 포 엘리펀트 Water for Elephants>(Atlanta, 2023) 공연 연습 사진



<워터 포 엘리펀트 Water for Elephants>(Atlanta, 2023) 실제 공연 사진

<사진 제공: 매튜 머피(Matthew Murphy)>

사례 ② 뮤지컬 <노트북 The Notebook>(Chicago, 2022)

- 원작
 - 소설 니컬러스 스파크스(Nicholas Sparks)의 동명 소설
 - 라이언 고슬링(Ryan Gosling), 레이첼 맥아담스(Rachel McAdams) 주연으로 2004년 영화화
- 내용
 - 젊은 노아와 앨리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억을 잃은 노년의 앨리를 돌보는 노아의 헌신적인 모습이 교차로 그려짐
- 공연 특징
 - 다중 캐스팅의 독창적 접근, 노아와 앨리 역할을 각각 세 명의 배우가 연기(청년/중년/노년), 시간의 흐름과 사랑의 지속성을 강조
 - 이중적 서사 구조를 통해 기억의 상실과 그로 인한 슬픔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
 - 물 분사 시스템을 무대 위에 설치하여 무대를 적시는 실제 비 효과를 연출
(관객석으로 비가 튀지 않도록 조명과 무대 세트를 조정하고 배우들의 감정 연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의 양을 조절)



<노트북 The Notebook>(Chicago, 2022) 무대 사진



<노트북 The Notebook>(Chicago, 2022) 공연 사진

<사진 제공: (좌)조윤진, (우)줄리에타 세르반테스(Julieta Cervantes)>

사례 ③ 뮤지컬 <헬스 키친 Hell's Kitchen>(2023)

- 내용
 -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인 앨리샤 키스(Alicia Keys)의 음악과 뉴욕 맨해튼의 실제 지역인 헬스 키친(Hell's Kitchen)을 배경으로, 젊은 여주인공의 성장과 음악, 사랑,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 공연 특징
 - 앨리샤 키스의 대표곡과 새로운 곡으로 구성되어 특유의 소울풀(soulful)한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 작품의 정서를 완벽히 표현
 - 뉴욕의 에너지를 표현한 무대 디자인과 조명, 영화적 감각의 연출과 무대 전환으로 관객에게 몰입감 제공



<헬스 키친 Hell's Kitchen>(2023) 무대 사진



<헬스 키친 Hell's Kitchen>(2023) 커튼콜 사진

<사진 제공 : (좌)조윤진, (우)줄리에타 세르반테스(Julieta Cervantes)>

2.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1) 현지 관객과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개발

사례 ①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 (Seoul, 2016)

- 공연 내용
 - 한국 창작뮤지컬로, 2020년 뉴욕의 극장 스테이지 42(Stage 42)에서 영어 버전으로 공연됨
- 성공 요인
 - 영어 번역 및 각색으로 오리지널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적 표현 사용
 -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친숙한 배우들을 캐스팅해 관객 접근성을 높임
 - '휴머니드 로봇 두 캐릭터'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보편적이고 감성적인 주제를 현지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
 - 미니멀하면서도 기능적인 무대 디자인과 프로젝션, 영상 디자인을 활용해 쇼적인 요소 추가



벨라스코 시어터(Belasco Theatre) 극장 사진

<사진 제공: 조윤진>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 (Seoul, 2016) 공연 전 사진

2) 전미뮤지컬시어터협회(National Alliance for Musical Theatre)와 함께 뮤지컬 개발

- 단체 소개
 - 전미뮤지컬시어터협회(National Alliance for Musical Theatre, 이하 NAMT)는 1985년에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조직으로, 뮤지컬 극장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고 연결하기 위해 설립
 - 극장의 발전과 새로운 작품 창작을 촉진하며 전 세계 뮤지컬 제작자, 극장, 작곡가, 극작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하고 있음
- 주요 활동
 - 매해 연례 뮤지컬 페스티벌(Annual Festival of New Musicals) 개최, 새로운 뮤지컬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물을 제작자, 극장 관계자, 투자자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제공
 - 신규 뮤지컬을 위한 국가 기금(National Fund for New Musicals)을 통해 새로운 뮤지컬 창작 및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
 - 뮤지컬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워크숍, 네트워킹 이벤트 등을 개최
 - 극장, 제작사, 대학, 교육기관, 개인 작가 등을 포함한 200개 이상의 회원 단체를 보유해 다양한 리소스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한국 창작뮤지컬의 진출 전략
 - 이 페스티벌에 한국 뮤지컬을 출품할 경우 북미의 극장 관계자, 투자자, 프로듀서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 이를 통해 영어권 시장 진출 발판 마련 가능
 - 출품작은 NAMT의 심사 과정을 거치기에 스토리와 음악의 완성도, 문화적 보편성이 중요함
 - 영어로 번역된 작품을 준비하고 현지에서 공감할 만한 주제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함
 -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현지 프로덕션과의 협업 및 공동제작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음
 - 공동제작(Co-production)이나 해외 극장 초청 형태로 뮤지컬을 선보이는 방식이 효과적임, NAMT의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현지 트렌드 파악 가능
 - 현지 관객의 공감을 얻기 위해 보편적 정서를 반영한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



NAMT 페스티벌 입구



낭독 공연

<사진 제공: 조윤진>

3) 비영리 극단과의 협력 및 뮤지컬 개발

- 뉴욕 극장 워크숍(New York Theatre Workshop, 이하 NYTW)
 -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 위치한 비영리 극단으로,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연극과 뮤지컬 제작
 - 새로운 작품 개발과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스토리텔링을 선보이는 데 주력
 - 신진 작가와 연출가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며 도전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공간
 - <렌트 Rent>(1996), <하데스타운 HadesTown>(Barre, 2006) 같은 작품이 뉴욕 극장 워크숍에서 초연 후 큰 성공을 거둠
 - 극작가, 연출가, 배우, 디자이너 등을 위한 워크숍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험적인 공연 지원
 - 약 199석 규모의 극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이 이루어짐
- 한국 창작뮤지컬의 진출 전략
 - 국제적 협업: 다양한 문화권의 예술가 및 극단과 협력하여 글로벌한 시각의 작품을 제작하기에 협업 가능성 있음



뉴욕 극장 워크숍(New York Theatre Workshop) 전경 1



뉴욕 극장 워크숍(New York Theatre Workshop) 전경 2

<사진 제공: 조윤진>

사례 ① NYTW의 창작 지원을 받은 뮤지컬

<위 리브 인 카이로 We Live in Cairo>(Cambridge & Massachusetts, 2019)

- 공연 소개
 - 다니엘 라조르(Daniel Lazour)와 패트릭 라조르(Patrick Lazour) 형제가 공동 창작한 뮤지컬
 - 2016년 NAMT 페스티벌에서 주목받기 시작
 - 이집트 혁명(2011년)에 대한 이야기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일어난 시위와 그에 따른 정치적 변화, 개인의 갈등을 다루고 있음



<위 리브 인 카이로 We Live in Cairo>(Cambridge & Massachusetts, 2019) 작가와의 만남



<위 리브 인 카이로 We Live in Cairo>(Cambridge & Massachusetts, 2019) 공연 사진

<사진 제공: 조윤진>

4) 퍼블릭 시어터(Public Theater) 소개

-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기관 중 하나인 비영리 극장으로, 1954년에 조셉 팝(Joseph Papp)에 의해 설립
- 주로 실험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혁신적인 작품을 제작
-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다룬 작품 외에도 새로운 연극 창작을 지원
- 예) <해밀턴 Hamilton>(2015), <코러스라인 A Chorus Line>(1975), <헤어 Hair>(1967) 같은 작품도 이 극장에서 초연
- * 해밀턴 무대 배경은 초연을 올린 퍼블릭 시어터(Public Theater)의 벽을 이미지화해서 현재 공연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함
- 프리 셰익스피어 인 더 파크(Free Shakespeare in the Park)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여름 중앙공원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무료로 공연, 뉴욕 시민에게 고품질의 연극을 무료로 접할 기회 제공
- 티켓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안스파처 시어터(Anspacher Theater)



더 퍼블릭 랩(The Public Lab)

<사진 제공: 조윤진>

• 보유 극장

- 안스파처 시어터(Anspacher Theater): 296석 규모로, 주로 주요 작품들이 상연되는 장소
- 마틴슨 시어터(Martinson Theater): 199석 규모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공연
- 루에스터 시어터(LuEsther Theater): 200석 규모로, 다양한 연극과 뮤지컬이 올려지는 극장
- 더 퍼블릭 랩(The Public Lab): 125석 규모의 작은 공연장으로, 새로운 작품을 실험하고 개발하는 공간

5) 한국 창작뮤지컬의 진출 전략

- 협업 기회: 다양한 극작가와 예술가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뮤지컬 창작자들이 워크숍 형태로 참여하거나 제작을 위한 기획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음
- 글로벌 공연 지원: 이미 여러 나라의 예술가들과 협력한 사례가 많으며 글로벌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편임

한국 가족 뮤지컬의 해외진출 가능성

- 미국 가족 뮤지컬 조사 및 한국 가족 뮤지컬의 해외진출 방안 연구

1. 미국의 가족 뮤지컬

1) <더 프린세스 앤 더 피 The Princess and the Pea>(2024)

• 공연 소개

- 작은 완두콩 하나로 진짜 공주를 판별한다는 독특한 설정과 유머, 감동적인 메시지 구성

• 공연 특징

- 아크로바틱 퍼포먼스를 활용한 점프와 스텐트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사로잡는 화려한 장면들로 구성
- 대사가 아닌 움직임과 시각적 표현,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달
- 공주가 겪는 사건과 깨달음을 통해 겸손과 성장의 메시지를 전달
- 영국의 뉴 빅 시어터(New Vic Theatre), 현대 서커스 컴퍼니 업스윙(Upswing), 어린이 전문 극장 유니콘 시어터(Unicorn Theatre)의 공동제작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협업 작품
- 침대 위에 쌓인 여러 겹의 매트리스와 완두콩 같은 소품이 무대 위에서 독창적으로 연출됨

• 공연장 소개

뉴 빅토리 시어터(New Victory Theater)

- 전 세계에서 초청한 연극, 무용, 서커스, 인형극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다른 문화와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각 연령층의 발달 단계와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 큐레이션

- 뉴욕 전역의 학교들과 협력해 예술 교육과정 프로그램 제공
- 교사가 예술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자료 및 가이드 제공
- 배리어 프리(barrier-free) 공연, 수화 통역, 자막 제공 등 장애가 있는 관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 공연 사진



<더 프린세스 앤 더 피 The Princess and the Pea>(2024) 무대 사진



뉴 빅토리 시어터(New Victory Theater) 로비



<더 프린세스 앤 더 피 The Princess and the Pea>(2024) 상품 판매대



극장 단체 소개 부스

<사진 제공: 조윤진>

2) <더 베리 헝그리 캐터필러 쇼 The Very Hungry Caterpillar Show>(2016)

• 공연 소개

- 에릭 칼(Eric Carle)의 다양한 작품을 원작으로 배고픈 애벌레가 먹이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 애벌레가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자라면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과정을 그림

• 공연 특징

- 인형극이 핵심적인 요소임, 애벌레, 나비, 그리고 다른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인형으로 등장
- 에릭 칼의 다채롭고 화려한 그림 스타일을 무대에서 그대로 구현
-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이야기 구조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진행

• 극장 소개

듀크 온 42번가(Duke on 42nd Street)

- 뉴욕 타임즈 스퀘어(Times Square) 중심부에 위치한 뉴 42 스튜디오즈(New 42 Studios) 내 소규모 공연장
- 소규모 뮤지컬, 연극, 인형극 등 다양한 공연 형식에 적합하도록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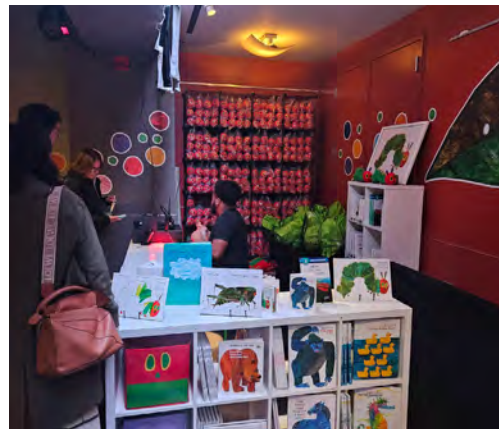
무대 사진



포토존



커튼콜



상품 판매 데스크

<사진 제공: 조윤진>

2. 한국 가족 뮤지컬의 해외진출 방안

뉴 빅토리 시어터(New Victory Theater)의 초청 기획 공연

- 초청 공연

보통 2년 전에 공연 프로그램과 스케줄을 결정, 작품은 주로 아트 디렉트와 행정 디렉터 등 내부 크리에이티브 팀이 협의하는데 국제적인 팀도 초청하니 영어로 된 영상, 대본을 보내 한국 가족 뮤지컬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듯함

- 제작 공연

주로 외부 작품을 초청해 기획하는 형태로 홈페이지의 공연 리스트를 통해 선호하는 공연을 알 수 있어 향후 초청 공연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주로 미국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베스트셀러를 가족 뮤지컬로 제작하기에 미국 프로듀서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좋은 소재를 찾아 협력 제작해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이 가능성이 높을 듯함

추은지

충무아트센터 공연사업팀

미국 뮤지컬 트렌드 분석과 한국 뮤지컬 해외진출 방안 연구

- 브로드웨이 뮤지컬 트렌드 분석

2023~2024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작품을 분석하여 최신 브로드웨이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원작에 기반해 안정성이 확보된 작품

<노트북 The Notebook>(Chicago, 2022), <워터 포 엘리펀트 Water for Elephants>(Atlanta, 2023),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 The Musical>(Manchester, 2020),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New Jersey, 2023), <아웃사이드 The Outsiders>(2019) 등 소설, 영화의 기존 IP를 사용한 작품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

2. 스타 캐스팅

한국과 마찬가지로 브로드웨이에서도 매체를 통해 이미 명성을 얻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출연하는 작품이 늘고 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Robert Downey Jr.)의 <맥닐 McNeal>(2024), 레이첼 제글러(Rachel Zegler)와 킷 코너(Kit Conner)의 <로미오+줄리엣 Romeo+Juliet>(2024), 에디 레드메인(Eddie Redmayne)과 아담 램버트(Adam Lambert)의 <카바레 CABARET at the Kit Kat Club>(London, 2021), 미아 패로우(Mia Farrow)와 패티 루폰(Patti LuPone)의 <룸메이트 The Roommate>(Louisville, 2015), 레이첼 맥아담스(Rachel McAdams)의 <메리 제인 Mary Jane>(New Haven, 2017)이 있다.

3. 주크박스 뮤지컬

앨리샤 키스(Alicia Keys)의 음악으로 만든 <헬스 키친 Hell's Kitchen>(2023), <물랑루즈! Moulin Rouge!>(Boston, 2018), 수프얀 스티븐스(Sufjan Stevens)의 원작 앨범을 배경으로 한 <일리노이 Illinois>(2023),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엠제이 MJ The Musical>(2021), 스웨덴 팝송 작곡가 맥스 마틴(Max Martin)의 음악을 사용한 <앤줄리엣 & Juliet>(Manchester, 2019), 에벳 브라더스(Avett Brothers)의 음악을 사용한 <스윕트 어웨이 Swept away>(Washington, 2022) 등이 있다.

4.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이야기

과거의 주인공이 기억을 회상하거나 늙은 주인공(현재)과 젊은 주인공(과거)이 번갈아 등장하기도 하고 시간의 역순으로 지나가기도 한다.

NAMT의 연례 뮤지컬 페스티벌(Annual Festival of New Musicals)을 통해 본 창작뮤지컬 개발 프로그램의 필요성

全美뮤지컬시어터협회(National Alliance for Musical Theatre, 이하 NAMT)의 연례 뮤지컬 페스티벌(Annual Festival of New Musicals)에 참여하며 알게 된 창작뮤지컬 개발 프로그램 소개와 그 필요성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1. NAMT의 연례 뮤지컬 페스티벌(Annual Festival of New Musicals)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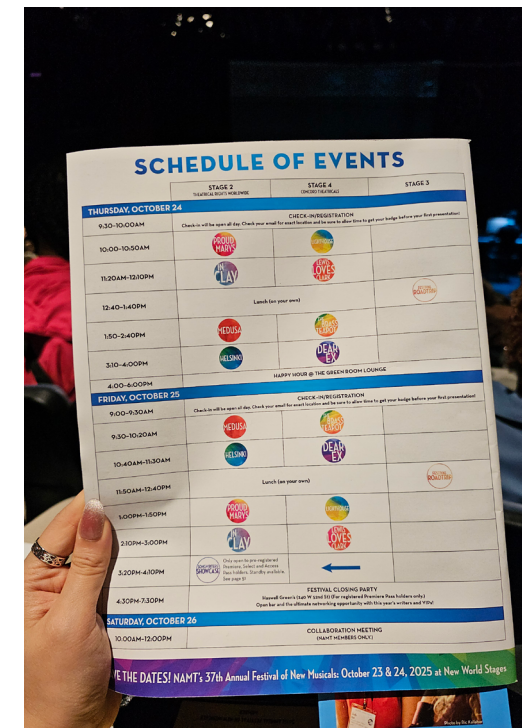
- NAMT는 1985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미국과 해외 공연장, 교육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설립 이후 뮤지컬 개발과 제작, 혁신 및 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연례 뮤지컬 페스티벌(Annual Festival of New Musicals)을 포함한 다양한 컨퍼런스,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뮤지컬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 1989년 처음 시작된 연례 뮤지컬 페스티벌(Annual Festival of New Musicals)은 지난해까지 약 300개의 뮤지컬과 500명 이상의 창작진을 페스티벌을 통해 소개했다. 85%가 넘는 작품이 리딩, 워크숍, 제작 및 투어를 진행했고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페스티벌의 단기 목표는 제작자와 작가를 연결해 작품 개발 경로를 확장하는 데 있으며 장기 목표는 뮤지컬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 매년 가을 뉴욕에서 이틀간 열리는 페스티벌에는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며 8개의 작품이 45분 분량으로 선보이게 된다.

2. 작품 선정 과정

6개월에 걸친 작품 선정 과정은 1차, 2차, 3차로 진행된다. 1차 라운드 심사에서는 80여 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며, 2차에서는 25명 정도의 심사위원이 페스티벌에 올려질 20개의 뮤지컬을 선정하고, 이 중 3차에서 최종 8작품을 선정하게 된다. 심사위원은 마케팅, 창작진, 제작사, 비즈니스 담당자 등 뮤지컬 현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많은 공을 들이는데 분야별 심사위원들의 밸런스를 맞추어 선정한다고 한다.

3. 연례 뮤지컬 페스티벌(Annual Festival of New Musicals) 진행

이번 36회 페스티벌은 뉴 월드 스테이지(New World Stage)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에 있는 두 개의 극장에서 하루 동안 각각 4개의 작품을 선보이고 모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날 시간대를 달리하여 한 번 더 공연한다.



(좌)관람객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마지막 페이지에 실린 공연 타임테이블



(우)각 극장 앞에 안내된 극장별 공연 제목과 시간



공연장과 공연장 사이 벽면 공간에 프로젝터를 이용해 어떤 공연이 진행되는지, 객석 입장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한다.

흥미로운 지점은 각 극장에서 현재 공연 중인 무대 세트에서 리딩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페스티벌은 리딩 쇼케이스의 형태로 45분간 진행된다. 보면대를 두고 진행하는 리딩 쇼케이스인 만큼 현재 공연 중인 세트에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



(좌)STAGE4에서 공연 중인 무대 세트 위에서 리딩 진행



(우)STAGE2는 빈 무대에서 리딩 진행

작품마다 사회자가 작품과 창작진을 소개하고 창작진은 작품을 소개한다. 페스티벌의 목적이 다음 단계로 발전되는 데 있는 만큼 창작진은 공연이 끝나면 로비에서 진행되는 미팅에서 적극적인 참여의 말을 전한다. 작품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면대를 두고 그대로 서서 리딩하기도 하고 대본을 외워서 간단한 동선과 연기를 보여주는 팀도 있다. 작품을 45분만 보여주는 이유는 시간적인 이슈도 있지만 45분 정도의 분량이 관객이 작품의 흐름을 이해하기에도 적절한 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페스티벌 담당자가 전했다. 리딩 공연이 종료되면 창작진은 로비에서 작품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을 기다린다. 창작진 역시 공연 소개 자료를 준비해 적극적으로 미팅을 진행한다.



공연 종료 후 로비에서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위해 준비된 테이블

4. 쇼케이스 이후 프로세싱(상업화 지원 또는 관계자 미팅 지원 등)

85%의 작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만큼 페스티벌 종료 후 후속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멤버십을 통해 가입된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고 쇼케이스 정보를 목록화해 제공하며 창작진과의 연결을 돕는다. 또한 NAMT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진행된 페스티벌의 참가 작품과 창작진 정보, 연례 뮤지컬 페스티벌(Annual Festival of New Musicals) 이후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 중인지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거나 비영리 단체를 통해 작품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작품을 개발해 간다.

5. 연례 뮤지컬 페스티벌(Annual Festival of New Musicals) 개발 프로그램 참여

미국 활동을 염두에 둔 창작진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가장 매력적인 점은 이 페스티벌을 위해 800여 명의 프로듀서 및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다는 점이다. 페스티벌을 관람하며 이렇게 많은 뮤지컬 업계 종사자가 신작 뮤지컬을 위해 모인다는 사실에 놀랐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관계자에게 작품을 선보이고 창작진으로서 본인을 어필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큰 장점이다. 다만 한국에서 개발된 작품을 제출하는 것에는 회의적일 수 있다. 작품은 영어로 쓰여야 하고 (스페인어로 된 작품이 선정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최종 8개 작품에 선정되면 뉴욕에서 진행되는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6. 연례 뮤지컬 페스티벌(Annual Festival of New Musicals)을 통해 본 개발 프로그램의 필요성

우선 국내 뮤지컬 시장과 비교했을 때 창작뮤지컬 개발 단계에서 '기간'이라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페스티벌에 등장한 초기 개발 단계의 작품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치며 높은 완성도를 지닌 작품으로 무대에 올라간다. 또한 NAMT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 극장, 학교에서 창작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이번 연례 뮤지컬 페스티벌(Annual Festival of New Musicals)과 다양한 비영리 극장을 돌아보며 느낀 점은 기본적으로 이런 개발,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면 새롭고 참신한 작품이 나오기 어렵다는 현실이었다. 작품을 만들어도 보여줄 곳이 없다면 새로 업계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진 작가, 작곡가에게 영원히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창작 지원, 개발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작품이 무대에 오를 때까지 꾸준히 지원해 다양한 작품이 배출되고 관계자들의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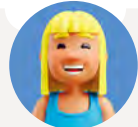
**K-MUSICAL
PRODUCERS'
WORKSHOP
IN NYC/LONDON
2024**

**K-MUSICAL
PRODUCERS'
WORKSHOP
IN NYC/LONDON
2024**

에필로그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2025 선정자에게 전하는 말



프로관극러1

사전 준비

- Today Tix 앱을 이용해 볼만한 공연 정보 미리 알아보기
- 섹션 확인 후, 예경 담당자에게 본인의 관심 분야 및 방문하고 싶은 곳 등을 적극 제안하기
- 체력 기르기
- 한국에 남아 있는 업무와의 단절 준비하기
- 한식 싸가지 말기 (한식당, 한인마트 너무 잘 되어 있음)
- 보고서 주제 미리 설정해 놓기
- 현금 환전 안 하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만 있음 오케이!)

현지 참여 기간 중

- Must-visit places 리스트 만들기 (세션 일정 때문에 가까이에 좋은 명소가 있어도 못 가볼 수 있음, 가고 싶은 곳은 미리 체크했다가 틈날 때나 지나가는 길에 꼭 들르기)
- 극장 위치 미리 확인하기 (생각보다 먼 거리에서 하는 공연도 있음)
- 세션 노트 잘하기, 공연 및 세션 내용은 그날그날 정리하기

돌아온 후

- 보고서 빨리 마무리하기 (미룰수록 점점 늦어지는 마법)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 공연 티켓 미리 예매 안 한 것 (공연은 현지에서 당일 예매하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예약 취소나 변경 어려움)

내가 참 잘했다

-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까지 참여한 것 (런던과는 또 다른 글로벌 축제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음)
- 현금 환전 안 하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챙겨간 것

IN LONDON



혜서원

사전 준비

- 체력을 비축해 오세요. 생각보다 팍 찬 일정입니다.
- 장거리 비행이에요. 멜라토닌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면유도제가 장거리 비행의 피곤을 덜어줍니다.
- 아침은 거의 호텔에서 먹었는데 누룽지/컵밥/컵라면/떡국/수프를 미리 준비해 가니 편했어요. 참 휴대용 포트도 있으면 좋습니다.
- 2024년 기준, 현금 받는 곳이 많이 없어요. 무조건 트래블 로그 같은 카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일비로 현금을 받으니 따로 환전할 필요 없어요.
- 강의나 미팅 전, 어떤 강사와 연사를 만나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면 미팅 시간이 풍성해집니다.

현지 참여 기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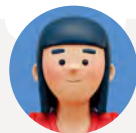
- 매일 SNS에 어떤 강의를 들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공연을 보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감상평을 기록했어요. 보고서 쓸 때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 공연 티켓은 미리 예매하지 마시고 현지에서 함께 참여하는 동료 PD님들과 예약하세요. 더 저렴하고 좋은 좌석을 찾을 수도 있어요!
-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닌 워크숍으로 만난 사이라 뭔가 더 편하고 끈끈한 동지애가 느껴집니다. 동료 분들과 오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 강사나 연사와 개인적으로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면 추가 미팅을 요청해 보세요. 대부분 친절하게 응하시더라고요.

돌아온 후

- 무조건 한국 시각에 맞춰 주무세요. 저는 약 1주일 동안 시차 적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팔팔한 기억이 살아있을 때 보고서를 시작하세요. 저는 마감일에 부랴부랴 쓰는 중입니다.
- 만났던 인사 중 계속 네트워킹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SNS를 팔로우하거나 메일로 연락해 자기소개를 하고, 후속 네트워킹을 이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참 잘했다

- 그렇게 많이 볼 생각이 없었는데 동료에게 자극받아 많은 공연을 본 것
- 아침 아무지게 챙겨가서 아무지게 챙겨 먹은 것 (아침 안 먹으면 소화할 수 없는 일정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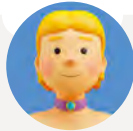
여름 영국 사랑

- | | |
|-------------------------------|---|
| 사전 준비 | - 티켓 미리 예매하기 (물론 만나서 같이 예매하고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 방문하고 싶은 극장이 있다면 미리 찾아보기
- 영어는 꾸준히, 미리 공부하기 |
| 현지 참여
기간 중 | - 영국 여름은 날씨가 좋아 반팔과 얇은 겹옷 챙겨가기를 추천
- 한식이 굉장히 많으니 따로 가져가지 않아도 됨
- 현금보다 카드 쓰는 곳이 많아 카드를 꼭 챙겨야 함 |
| 돌아온 후 | - 관람한 공연과 사진들 잘 정리하기
- 보고서는 미리미리! |
|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참 잘했다 | - 당시에는 간이 피칭 참여한 걸 후회할 뻔 했지만 지나고 보니 잘했다는 생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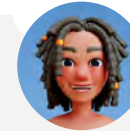
대학로 등대

- | | |
|-------------------------------|--|
| 사전 준비 | - 일정표 내 강연자, 발제자, 기관이나 업체명을 꼭 미리 검색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5분만 생각해 보고 참여해도 그 시간이 더더더더 유익해질 거예요. |
| 현지 참여
기간 중 | - 생각보다 일정이 빡빡하니 비타민을 꼭 챙기세요.
- 공연은 미리 예약하기보다 현지에서 만난 프로듀서의 추천이나 동료들의 후기를 참고하며 선택해 보세요.
- 세션 시간 내 해결 안 된 궁금증이 있다면 반드시 메모 후 세션이 끝나자마자 강연자의 연락처를 받으세요. 단시간 내 많은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져요. 하루하루 보내기에만 바빠지고 그러다 돌아와서 후회합니다. |
| 돌아온 후 | - 보고서는 바로 쓰세요. |
|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참 잘했다 | - 가기로 결정한 것
(국내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고민 또 고민했는데, 런던 뮤지컬 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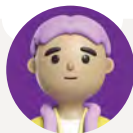
화염룡

- | | |
|--|---|
| 사전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스트엔드에서 진행 중인 공연 조사 - 공연 관람 리뷰 확인 - 현지 시장 조사 - 프로그램이 잘 짜여있어 준비할 거라곤 보고 싶은 공연, 평이 좋은 공연, 또는 새로운 시도를 한 공연을 찾는 것뿐이었다. 한국 창작뮤지컬과 다른 분위기의 공연이나 한국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 공연 등 시장이 넓은 만큼 보고 싶은 공연이 매우 많았다. |
| 현지 참여
기간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교류 시간: 함께 참여한 프로듀서 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공연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계획했던 관람 목록의 절반이 바뀐 정도. 꼭 보고 싶은 공연과 봐야 할 공연, 그리고 관계자들이 추천하는 공연으로 섹션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된다. - 티켓 사진 촬영: 관람 후 티켓 사진을 꼭 촬영하시길.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티켓을 분실해 휴대폰 어플과 커튼콜 사진을 뒤져가며 결과보고서를 쓰고 있다. - 감상평: 공연 관람 후 간단한 감상이라도 메모를 남겨 두시길. - 체력 관리: 저질 체력이라면 영양제 섭취를 비롯해 컨디션을 잘 조절하시길. 몸살로 인해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
| 돌아온 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기 시간 필요: 일상 복귀 후 공백의 시간 동안 쌓인 일들로 인해 워크숍 기간에 학습한 내용을 복기할 시간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머리와 마음에 담아 두려면 꼭 복기하는 시간을 가지길 추천한다. |
|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참 잘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에 적극 참여한 것: 부족한 외국어 실력 탓에 걱정이 앞섰지만 통역가 분들의 도움으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이 참 즐거웠다. 웨스트엔드 시장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었다면 질문을 잔뜩 준비해 가시길. - 다양한 공연 관람: 유명 작품도 좋지만 많은 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보시길. 기대한 것보다 좋은 작품이 많다.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최대한 많은 공연을 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프로관극러2

- | | |
|--|---|
| 사전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미리 친해지고, 팀도 공유하며, 같이 볼 공연에 대해 상의하면 좋습니다. - 개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저녁 공연은 현지에서도 예매할 방법이 많고 계획이 이리저리 바뀔 수 있으니 미리 예매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 현금 쓸 일 거의 없으니 특별한 일 없으면 현금 환전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트래블월렛/로그 카드 이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영국은 한국보다 건조하고 춥습니다. 7-8월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따뜻한 옷을 챙겨오세요. (에든버러는 더 춥습니다.) |
| 현지 참여
기간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간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킹 나잇을 미리 잡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이나 세션 후 서로의 감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 피칭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각보다 피칭 시간이 짧습니다. 회사 소개 등은 최대한 줄이고 한 작품을 제대로 소개하는 데 집중하세요. 참석하는 현지 관계자들 또한 해당 작품이 영국 진출에 적합한지 조언을 줄 목적으로 피칭을 감상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가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프로그램 참여 중 만난 현지 관계자의 연락처는 그 자리에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함을 많이 돌렸지만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연락을 이어가고 싶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돌아온 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때 얻은 지식과 감정을 잊기 전에 보고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조언은 저도 들었지만...) |
|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참 잘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션마다 노트를 자세하게 메모해 두었는데요. 세션 자체가 굉장히 유익했던 것에 비해 필요한 자료가 바로 제공되지 않아, 직접 기록한 노트가 유용했습니다. - 관계자들 또한 우리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세션을 그저 듣기만 하기보다 그때그때 원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유익했습니다. 통역사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니 세션 중간이나 끝에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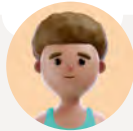
이 카드 왜 안찍히지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든버러도 꼭 가보세요.- 공연은 장르별보다 관객층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섭렵하세요.
현지 참여 기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의 프로듀서들도 중요하지만 함께 간 동료들은 더 중요합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동지들입니다.
돌아온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 준비는 미리미리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참 잘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칭에 참여하세요. 그 짧은 시간에 작품을 바로 홍보하고 판매하겠다는 목표는 세우지 마시고 내 작품에 관심을 가지는지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분에 눈이 반짝이는지, 어떤 부분에 흥분하는지, 어떤 부분에 웃는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이선스 수출을 빨리하고 싶겠지만 그 자체도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좋아할 작품을 만들어야 하니 그들과 이야기 나눌 기회는 소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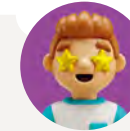
에잇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율 좋을 때 파운드 많이 사놓을 것 (가면 어쩔 수 없이 공연을 많이 보게 됨)- 고민할 필요 없이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갈 준비를 하고, 관련 정보 사전 조사 및 티켓을 예매할 것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정보가 없으면 헤매다가 끝남)
현지 참여 기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서 틈나는 대로 좋은 공연을 볼 것- 찾아보면 좋은 공연이 너무 많으니 다른 참여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것
돌아온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는 일찍 쓰기 시작할 것 (지나고 쓰려면 고달픔)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참 잘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쁜 일정이었지만 웨스트엔드의 많은 작품을 보고 온 것-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다녀온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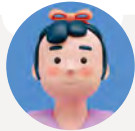
년대체공연honey하기honey

사전 준비	웨스트엔드 공연 중 관람하고 싶은 작품을 미리 선정해 라인업을 구상해 가면 좋습니다. (티켓을 미리 예매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현지에서 얼마든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 시작 1시간 전, 잔여석에 대해서는 비싼 좌석이어도 큰 할인 폭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해서 가야 합니다. 매일 오전~오후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 공연을 보는 일정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현지 참여 기간 중	가장 저렴한 티켓은 공연장에 있다는 사실! 저의 경우 <엠제이 MJ the Musical> 공연장에서 시작 2시간 전부터 '현장 예매' 의도를 알리고 잔여석이 남기를 기다렸습니다. 2층 맨 앞줄 한화 14만 원가량이었던 티켓은 두 시간 전부터 30분 단위로 약 20%~30%씩 할인되어 공연 시작 30분 전에는 한화 4만 원까지 떨어져 그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후	유명한 작품, 알려진 작품보다 '숨겨진 작품'을 더 보고 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운 좋게 시어터503(Theatre503)에서 진행된 "신진 작가 10분 낭독회"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신예 작가들의 노력과 동료들과의 협업 등을 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술가와 관객이 텍스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얼마만큼 존중하는지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참 잘했다	모두 다 뮤지컬을 보러 가게 되어 엑스트라 타임에 '에든버러 프린지에 대한 스테디'에 혼자 참여했었는데 일대일 단독 면담처럼 심도 깊은 토의, 토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스피리티드 어웨이 Spirited Away>를 보러 가고 싶었는데 운 좋게 잡은 티켓을 취소하면서까지 참석한 덕분인지 연구 시간에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에 혼자 참여하게 된다고 해도 통역사 분들이 너무나 잘 도와주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프로그램에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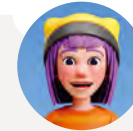
일을 기다리는 프로듀서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으니 만약 뮤지컬 외에 다른 장르를 관람할 수 있다면 다양한 작품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 현지에서 세션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출발 전 언어 능력을 조금이라도 향상하고 떠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더 높았을 것 같다. - 생각보다 많이 걷고, 연이은 세션 프로그램에 체력이 지칠 수 있으니 사전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 - 꼭 '한식'이 필요하다면 싸 오는 것도 좋지만 소호에 있는 한인마트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한식당도 너무나 다양해서 이곳이 서울인가 싶을 정도다. (들고 온다면 좀 더 저렴하겠지만 무거운 짐을 챙겨오는 것보다 현지에서 조달해 먹는 게 현명할 것 같다. 필수적인 것들 제외하고는 와서 구입하는 쪽을 추천한다.)
현지 참여 기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보다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 - 큰 공연장도 좋지만 현지의 펍 공연이나 작은 전시 등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 세션 때는 최대한 요약 정리해 두는 게 좋다. (세션 자료들이 배포될 것이라고 해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기억력의 한계를 느끼는 중)
돌아온 후	- 보고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쓰기를 추천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참 잘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일정에 없던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다녀온 것 (공식 세션에서 자주 이야기된 부분이 프린지였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 극장 투어 등 별도 프로그램에 개별 참여한 것



논현동 핑크팬츠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정보를 받은 후, 공연장과의 거리를 계산해 어떤 작품을 볼지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런던이 생각보다 소매치기가 좀 있습니다. 저는 당할 뻔했지만 지갑이 벨트에 묶여있어 뺏긴 것은 없습니다. 소매치기 대비 호신용 아이템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현지 참여 기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참여한 피디님들과 네트워킹하는 게 유익합니다.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세션 연사들과 미팅을 잡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그들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관람 일정을 촉박하게 잡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돌아온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를 일찍 쓰는 게 좋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참 잘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을 많이 본 것 - 영국 시장에서 활동 중인 프로듀서들과 개별 미팅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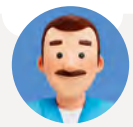
홍피디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고 효과적으로 본인 또는 제작사를 소개할 수 있는 영문 소개말이나 웹 자료 등을 준비해 보자! 네트워킹의 순간이 종종 찾아오는데 어색한 순간을 재미있게 채울 수 있다! - 10일가량의 팍 찬 해외 일정은 체력이 좋은 사람도 지치는 순간이 찾아오게 만든다. 지치면 재미난 경험도 재미가 없어지기 마련, 영양제와 한식을 챙기고 현지의 밥집과 식재료 마트를 알아두자.
현지 참여 기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일정 통역사가 동행하는 세션은 질문의 문턱을 낮춘다. 생각보다 솔직한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그때그때 열심히 물어보고 의논도 해보자! - 런던과 런던 근교에는 아주 다양한 공연이 있다. 기존의 대작 외에, 또 뮤지컬 장르 이외에 크고 작은 여러 공연을 찾아가 보자! 사전에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현지 참여 중 소개받은 극장이나 공연을 당일 예약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된다. - 리서치하려는 내용을 기준으로 주제를 확실히 정하고, 사진과 키워드를 그때그때 메모해 두거나 표시해 두면 향후 영국 이야기 풀어내기에도 좋고 보고서 쓰기에도 좋다.
돌아온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간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귀국 후 시차 적응이 생각보다 힘들다. 현지 일정 이후 가능하다면 하루, 이들의 일정을 비워두거나 여유를 두고 체력 회복에 힘쓰자. 참여한 모든 PD가 시차 적응으로 인해 귀국 직후 일정 소화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본인 시차 적응 완료 시점: 약 7일 걸림) - 결과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거나 귀국 직후 키워드 등을 잘 정리해 두자. 미루다 보면 리서치 내용은 물론 재미있게 본 공연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참 잘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에는 커피포트나 에어컨, 냉장고가 없는 숙소가 많다. 에어컨, 냉장고 등을 고려해 챙긴 것이 있다면 후회하게 된다. 호텔 내 커피포트 유무 확인 후 포트를 챙긴 나 자신, 잘했다. - 모두가 알다시피 영국의 날씨는 여름이건 가을이건 들쭉날쭉하다. 반팔부터 머플러까지 다양하게 챙기자. 여름옷과 머플러와 바람막이 챙긴 나 자신, 잘했다. - 현지 피칭 발표는 생각보다 남는 게 많다. 내가 알리고 싶은 이야기나 직접적으로 묻고 싶은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해 가면 생각지 못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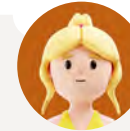
냉정이

- | | |
|-----------------------|--|
| 사전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길 원하는지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길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 목표가 불분명하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 공연 중인 작품의 사전 조사를 많이 해 두세요! (신작은 리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요.) 한정적인 시간 내에 좋은 작품을 많이 관람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수입니다. |
| 현지 참여
기간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도 둘째도 건강입니다! 영양제 많이 챙겨 오시고 한국 감기약 등 비상약도 넉넉히 챙겨 오세요! |



별내저격수

- | | |
|-----------------------|---|
| 사전 준비 | <p>조사 목표에 부합하는 현지 기관, 전문가, 그리고 시장 조사 대상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역이 제공되긴 하지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영어 실력을 더욱 보완해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별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일자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p> |
| 현지 참여
기간 중 | <p>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사 미팅 시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미팅 전 해당 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p> |
| 돌아온 후 | <p>현장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류했던 현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이어가면 좋을 듯합니다. 더불어 한국 뮤지컬 산업에 반영이 가능할 만한 선호 내용과 트렌드를 창작과 제작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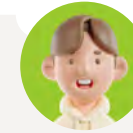
혜화동 보살님

- | | |
|--|--|
| 사전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은 먼저 예약하지 말 것 (일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 일정이 꼭 차 있으니 다른 개인 일정은 포기할 것 (계획이 없어도 괜찮아요.) - 연수 기간 현지에서 공연하는 작품 목록 체크 - 해외진출하고 싶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내용 정리 - 달리기 1,000m 5분 이내, 턱걸이 5개 전후, 윗몸일으키기 45/1분 정도의 체력 보강 - 수면제, 비상약 준비 |
| 현지 참여
기간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자 - 집중해서 수업 듣고 무조건 질문하기,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인사라면 눈도장 찍기 -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많은 정보 취합 후 공연 관람하기 - 높은 물가를 고려해 근처 마트 위치 확인하고 장보기 - 꼭 찬 일정이지만 시간을 내 틈틈이 주변 명소 둘러보기 |
| 돌아온 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조건 빨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잠깐 딴짓하는 사이 마감 날짜가 지나간다 - 무조건 쉬기, 시차 적응은 2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천천히 - 영어 공부하기, 해외진출에 대한 꿈과 희망이 사라지기 전에 뭐든 행동으로 옮긴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
|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참 잘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과 다양한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아주 잘 이해했다. - 공연 관람 후 틈날 때마다 주변 명소를 돌아봤다. - 난 잘될 거라고, 곧 해외진출도 할 거라고 끊임없이 헛된 꿈을 꿔다. - 내 덕분에 연수도 다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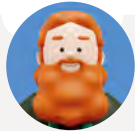
다작핑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공부하기 - 본인 또는 컴퍼니 소개, 작품 소개 문장 다양하게 준비하기 - 소개하려는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 자료 준비하기 (e.g. 리플렛)
현지 참여 기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체력 관리 필요 - 직전까지 확정되지 않거나 추가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연 예매는 현지에서
돌아온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났던 인사들에게 작품 소개 메일 보내기 - BoB 세션 강의 필기 까먹기 전에 바로 정리하기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참 잘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대한 집착적인 소개



웰컴투더쇼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영어 공부: 완벽한 의사소통은 어렵더라도 연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역을 거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면(특히 업계 관련 용어)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진다. - 스마트기기: 사전에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가져가자
현지 참여 기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에서 나누어 주는 플레이빌(Playbill)을 잘 챙기자. - 관광객을 위한 뮤지컬/공연 팸플렛이 주변에 은근히 많이 있다. 챙겨 오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 매일 아침 러쉬 티켓, 로터리 티켓 신청을 잊지 말자. - 가능하다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가볍게 일기를 써보자.
돌아온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한 공연에 대한 감상을 바로 정리하자. 현지에서는 몸과 마음이 지쳐 쓸 시간이 없다. 돌아오자마자 기억이 여전히 신선할 때 느낀 점에 대해 적어보자. (그러지 못해서 많이 잊어버렸다.)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참 잘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한 시간을 내 많은 공연을 본 것



우드사이드 이지블루스

사전 준비

- **철저한 일정 계획:** 현지에서 만날 인사와 주요 공연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조정하세요. 인기 있는 브로드웨이 공연은 조기 매진될 수 있으니, 원하는 공연의 예매는 최대한 빨리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공연 외에도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오프 브로드웨이 작품들도 다양하게 살펴보고 리스트를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 **네트워킹 대상 미리 파악:** 뉴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공연 관계자, 작가, 프로듀서의 프로필을 미리 조사해 두세요. 각 인사들의 작품 성향이나 관심사를 알고 가면 대화가 한결 깊어집니다. 또한 소개를 받거나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과의 공통점을 찾아두면 현지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현지 예술 환경과 최신 트렌드 조사:** 브로드웨이와 뉴욕 공연계의 최신 트렌드, 공연 스타일, 관객의 반응 등을 미리 파악해 두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각광받는 작품이나 화제가 되는 공연 스타일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숙지해 두세요. 이는 작품을 감상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현지 관계자와의 대화 소재로도 유용합니다.
- **현지 생활 정보 준비:** 뉴욕의 교통수단, 공연장 위치, 레스토랑, 숙박 등 생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면 현지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장을 이동하는 일정이 많다 보니 뉴욕 지하철 노선과 공연장 주변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언어 준비:** 현지에서 공연이나 미팅 중 주요 용어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표현이나 공연 관련 용어를 사전에 익혀두면 좋습니다. 기본적인 공연 및 제작 용어와 표현을 미리 연습해 두면 현지 관계자와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지 참여 기간 중

- **매일 공연 관람 및 감상 기록:**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면서 각 작품의 특성과 차이점을 기록하세요. 공연 직후 느낀 점을 적어두면 귀국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 **공연 관계자들과 네트워킹:** 관람 후 현지의 공연 관계자나 인사들과 티타임을 갖고 네트워킹을 쌓으세요. 브로드웨이와 오프 브로드웨이 관계자로부터 얻는 현장감 있는 피드백은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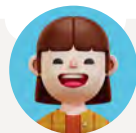
- **포트폴리오와 자료 준비:** 자신의 프로젝트나 작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가세요. 필요할 경우 즉석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현지 전문가의 의견을 얻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뮤지컬 관련 강의나 워크숍 참여:** 프로그램 외에도 현지에서 열리는 관련 강의나 워크숍이 있다면 참석해 보세요. 미국 뮤지컬 업계의 제작 방식과 트렌드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돌아온 후

- **현지에서 만난 인사들과의 피드백 주고받기:** 현지에서 네트워킹한 인사들과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자신의 프로젝트나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이를 통해 얻은 의견을 반영해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감상 기록 정리 및 분석:** 현지에서 작성한 공연 감상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세요. 이를 통해 브로드웨이와 오프 브로드웨이 공연의 차별점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한국 뮤지컬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인사이트 반영:** 현지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인사이트를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극 반영해 보세요. 특히 기획, 연출, 마케팅 등 여러 측면에서 새롭게 시도할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 계획 수립:**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진출 계획을 구체화하세요. NAMT 지원이나 추가적인 네트워크 확장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참 잘했다

- 브로드웨이에서 매일 시간을 쪼개 공연을 관람하고, 틈틈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인사들과 네트워킹을 쌓은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직접 느끼고 배운 것을 통해 나만의 시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얻은 인사이트가 유엔잇의 뉴욕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의 활동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쌍문동 둘리

사전 준비

- 1. 프로그램 일정 및 세부 내용 파악**
 -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세부 일정(워크숍, 강의, 네트워킹 이벤트, 현장 탐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요 일정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 세미나 및 워크숍 주제와 관련된 사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읽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영어 실력 및 전문 용어 준비**
 - 영어로 자기소개 준비, 예술 관련 전문 용어를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 3. 미국 공연계와 뉴욕 문화 이해**
 - 브로드웨이 및 오프 브로드웨이 조사
 - 오프 브로드웨이: 실험적이고 작은 규모의 공연이 많습니다.
 - 뉴욕에서의 공연 예산, 투자자 확보, 스폰서십 모델 등 예술 산업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배경지식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 4. 영문으로 된 명함, 회사 및 공연 소개서 준비**
 - 네트워킹 시 유용하게 사용되며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연습하면 좋습니다.
- 5. 뉴욕 적응 준비**
 - 뉴욕은 기후가 변화무쌍하므로, 날씨에 맞는 옷과 편안한 신발, 커피포트 챙겨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한국 음식 필수! 뉴욕은 물가가 비싸니 누룽지, 컵라면 꼭 챙겨 가세요.)

현지 참여
기간 중

- 마인드 셋과 정신적 준비**
 - 워크숍이나 커피챗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질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돌아온 후

- 1. 배운 내용 정리 및 문서화**
 - 프로그램 중 참여한 세미나, 워크숍, 방문한 기관과 공연 관련 내용
- 2. 네트워킹 유지 및 확장**
 - 프로그램에서 만난 강사, 멘토, 동료들에게 감사 메일을 보내며 네트워크 유지
- 3. 현장 적용 및 피드백**
 -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팀원이나 동료들과 공유
- 4. 장기적 목표 설정 및 실행**
 - 뉴욕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리
- 5. 해외 페스티벌, 워크숍, 세미나 참여 기회를 찾아보고 지원**
- 6. 후속 프로젝트 기획**
 - 뉴욕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
 - e.g. 한국 가족 뮤지컬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참 잘했다

-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궁금하거나 필요한 내용들을 메모했다가 영어로 질문하고 소통하려 했던 점
- 커피챗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앞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먼저 인사하고 명함을 주고받은 것
- 가족 뮤지컬 관람 후 직접 관계자를 만나 공연 및 한국 가족 뮤지컬의 진출 방안에 대해 물어보고 영문으로 된 공연 대본을 보내 검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동진 비켜, 명징하게 직조한 작품 감상평

IN LONDON


<4월은 너의 거짓말 Your Lie in April>

 **넌대체공연honey하키honey** 우리도 이만큼은 충분히 만든다. 단 배우들의 영어 대사 준비를 위한 노력, 그 노력이 돋보였다. 우리나라 배우들도 당연히 그만큼의 노력을 할 수 있고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


<겨울왕국 Frozen>


 **혜서원** 한국인 관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공연. IP가 다했다. <Let it go> 장면에서 터져 나온 함성과 박수는 한국에서도 유효할 듯!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


 **넌대체공연honey하키honey** 역시나 완벽했으나 우리 창작뮤지컬이 연출적 요소나 음악적 측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요한 건 텍스트다.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모든 이의 감성과 감정을 관통할 수 있는 '텍스트' 말이다. 그걸 확보하는 게 웨스트엔드 진출의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논현동 핑크팬츠** 진짜 스타 캐스팅의 정수. 톰 홀랜드(Tom Holland) 봤으면 그걸로 되었다.


 **홍피디** 톰 홀랜드고 뭐고 1막 끝나자마자 집에 가고 싶었다. 우리에게 극장을 활용한 영상 기술은 더 이상 신선한 무엇이 아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을 미니멀하게 연출하려면 좀 더 많은 연출적 상상과 훌륭한 대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배우에게 환호하는 팍 찬 객석을 보면서 또 한 번 공연 기획에 대한 익숙한 그 무엇이 느껴졌다.


<기묘한 이야기 Stranger Things: The First Shadow>


 **프로관극러1** 와 미쳤다! 나의 집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준 작품! 한순간도 눈을 땔 수 없을 거예요! <기묘한 이야기> 미리 안 봐도 괜찮다. 그냥 봐라! 스펙터클한 무대 기술과 배우들의 열연!


 **혜서원** 넷플릭스 인기작인 <기묘한 이야기>의 프리퀄,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관극한 이유는 동료 피디님들의 무한 추천 덕분. 무엇보다 무대 효과 레퍼런스 공부로 짱!


 **여름 영국 사랑** 가만히 앉아 그 지역 주민이 되어 생생한 현장을 바라본 느낌이었다.


 **대학로 등대** 이번 런던에서 본 공연 중 가장 추천하는 작품! 런던에 갔는데 이 작품 안 보고 온 사람 없게 해야 한다! 단 극장이 너무나 덥다.

 **에잇** <기묘한 이야기> 팬이라면 당장 런던으로!


 **넌대체공연honey하키honey** 우리나라에 절대 못 들어온다. 적절한 객석 대비, 공연 준비 소요 (세트와 홀로그램 영상 표현 등) 현실적인 타산이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길 잘했다!


 **일을 기다리는 프로듀서** 아 뭔데, 이거 시작부터 나를 호킨스로 데려가잖아?! 보는 내내 감탄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나요?

 **논현동 핑크팬츠** 다들 너무 재미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장치와 효과에 감탄했지만 이야기는 글썄.

 **홍피디**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의 팬이라면 꼭 볼 것. 극장이 공조가 되지 않아 매우 덥고 힘들었는데도 정말 행복했다. 덕후들의 마음은 이렇게 흔들어야 하고 공연 기술은 이렇게 사용해야지 싶었다.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 The Musical>

 **여름 영국 사랑** 이 작품을 보는 극장이 모든 세대를 연결해 주는 자동차가 아닐까?

 **이 카드 왜 안찍히지** 가족 관객 및 투어리스트는 이렇게 공략해야.

<마리 퀴리 Marie Curie>

대학로 등대 창작뮤지컬 <마리 퀴리>가 웨스트엔드 중심가인 채링 크로스 시어터(Charing Cross Theatre)에서 공연 중이었다. 런던 도착하자마자 팀원들과 단체 관람! 공연의 내용 등 평가하기에 앞서 그저 벅찬 기분이었다.

화염룡 한국의 프로덕션이 영국 웨스트엔드에 올린 공연. 한국의 원작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 점이 아쉬웠다. 마리와 안느의 서사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고, 마리 퀴리의 캐릭터가 단면적으로 그려져 위인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뮤지컬임에도 연극적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꽤 있어 흥미로웠으나 이질적이게 음악을 BGM으로 많이 활용해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한국 공연과 다르게 소규모 공연장에서 이루어져 무대 구성은 단조로웠으나 2층의 그림자 장면을 비롯해 좋은 장면들도 있었다. 한국의 프로덕션이 웨스트엔드에서 공연을 올리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에 박수를 보내며, 더 개발되어 웨스트엔드에서도 자리 잡길 기원한다.

<민스미트 작전 Operation Mincemeat>

혜서원 촌촌하게 잘 짜인 작품인 데다 배우들의 호연은 덤. 음악은 또 얼마나 좋게요!

여름 영국 사랑 역사는 잘 모르지만, 작은 공연장을 꽉 채운 연기와 노래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프로관극러2 시어터는 역시 큐의 예술이다. 단순한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짜맞춰진 호흡인 모양. 잘 만들어진 뮤지컬 코미디의 정수이지만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효과는 글썄.

에잇 웬만한 공수부대 뮤지컬 부럽지 않은 다섯 명의 영국 특공대.

논현동 핑크팬츠 1막에서 으잉? 했지만 2막 시작부터 도파민 폭발을 막을 수 없었다.

홍피디 소재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낯설고, 음악이나 연출 취향도 나와는 맞지 않았다. 하지만 낯선 소재와 이야기로 만든 뮤지컬을 바닥부터 시작해 대중의 인기를 얻기까지 차근차근 쌓아온 민스미트의 역사를 듣다 보면, 또 극장을 가득 채운 영국인들의 끊임없는 박수 소리를 듣다 보면 공부할 게 많아진다.

<비올라의 방 Viola's Room>

여름 영국 사랑 넓은 공간에 아름답게 펼쳐놓은 작품들 하나하나 모두 부러웠다.

대학로 등대 아직 <슬립 노 모어 Sleep No More>를 보지 못했지만 펀치드링크의 신작이 공연되고 있다고 해서 쾌적한 엘리자베스 라인을 타고 울리치(Woolich)까지 가서 보고 옴. 전날 단체로 관람한 <아가씨와 건달들 Guys and Dolls>과는 다른 형태의 이머시브 공연이었는데, 이런 작품들 덕분에 공연 문화를 즐기는 관객층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 반짝 희망등이 커졌다.

화염룡 피디님들의 추천으로 함께 관람한 공연. 평소 공포영화를 무서워하는 성격으로 크게 긴장하고 본 공연이다. 시놉시스와 공연 정보를 모른 채 관람한 공연이라 크게 긴장하며 시작했으나 다양한 콘텐츠로 흥미로움을 준 공연이다. (스토리가 있는 이머시브라 무서울 때도 있었다.) 배우 없이 진행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었다. 해당 공연장 자체가 이머시브를 위해 지어진 공연장인 듯하다. 미니어처로 제작된 무대와 그림자 연기가 정말 훌륭했으며 진행되는 스토리에 맞게 구성된 방들은 디테일이 좋았다. 보는 재미가 있는 공연이었다.

일을 기다리는 프로듀서 펀치드링크 첫 경험. 너무 재밌다. 풀깃했다. 나 체험형 공연... 좋아했네?

논현동 핑크팬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펀치드링크를 가보나.







홍피디 펀치드링크의 신작은 기회가 되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개념의 연극을 대중화하는 데 아이디어를 많이 주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이동형 공연의 음향 기술 구현이 정말 인상 깊었다. 내레이션 위주라 영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기 때문에 유사한 공연을 볼 예정이라면 내용을 사전 조사해 가기를 추천한다. 참고로 펀치드링크는 공연 시작 전 바(bar) 공간을 잘 만들어두는데 여기에 취해 시그니처 칵테일 같은 건 안 사는 게 좋다. 비싼 데 맛이 없다. 비싼 건 참아도 맛있는 건 못 참으니까.

<엠제이 MJ The Musical>





년대체공연honey하키honey 그저 부러웠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팝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 (Michael Jackson)이기에 가능한 작품이다. 우리의 경우 <미나리>, <기생충>, <설국열차> 등에 기반한 작품이 개발되면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역사적 문화 자원이 생겼으니 바로 작가 '한강'이다. 한강의 텍스트가 작품으로 탄생해 웨스트엔드에 진출하기를 기대해 본다.

논현동 핑크팬츠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으니 영국에서 꼭 보세요!







<스탠딩 앳 더 스카이스 엣지 Standing at the Sky's Edge>

-  **헤서원** 작품 속 시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매직. 마지막 장면에서 저항 없이 울었다.
-  **여름 영국 사랑** 아름다운 노래와 효과적인 무대 사용이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  **대학로 등대** 유튜브에서 들었던 넘버에 감동해 선택한 작품. 현장에서의 감동은 약 천만배 정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공연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라 런던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꼭 보고 오라고 추천하고 싶음.
-  **화염룡** 새로운 형식의 뮤지컬. 음악극 형식의 공연. 서로 다른 시대의 세 가구가 한 집에서 생활했던 모습을 뮤지컬로 그려냈다. 한 공간에서 다른 시간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능청스러움과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재미있게 그려졌으며,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이들과 연기하는 모습이 특별했다. 일반적인 뮤지컬과 다르게 음악극처럼 노래와 드라마가 나뉘어 있는 형식도 특별하게 다가왔다. 3층으로 구성된 웅장한 무대는 압도적이었다. '과연 한국에서 공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대가 주는 압박감이 굉장했다. '우리도 저렇게 장기 공연을 할 수 있다면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만든 공연.
-  **프로관극러2** 층층이 쌓아 올린 아파트 유닛 사이로 들어오는 오렌지빛 조명, 그 사이사이를 떠도는 부드러운 밴드 사운드 위로 시대도 사정도 다른 세 세대의 이야기가 교차된다. 아름다운 비극이었지만 영국 셰필드의 사정이라 이방인으로서 짐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쉬울 뿐.
-  **일을 기다리는 프로듀서** 추천해 준 지인이 "작품이 너무 좋은데 한국에서는 볼 수 없을 것 같으니 보러 오라고 했는데" 보고 난 감상은 정말 그 말이 딱 맞다. 관람 후 숙소에서 며칠 내내 OST를 틀고 감상할 정도로 노래도 작품도 내 취향이었는데, 제작하는 입장을 고려해 보니 한국에서 무대를 올리기가 쉽지 않겠다. 하하!


<투 스트레인저스 Two Strangers>

-  **프로관극러1** 남자 주인공 샘 튜티(Sam Tutty, 2020 올리비에 남우주연상 수상자)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는, 넘버도 좋고 재미있는 뮤지컬! 보고 나서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 배우 누구를 캐스팅할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한국 초연을 기대해 본다.
-  **논현동 핑크팬츠** 작은 극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줬다. 2명의 배우가 끌고 가는 힘이 좋았다.
-  **헤서원** 시차 적응 전, 헤드뱅잉의 연속인 관극이었지만 남주의 러블리함에 엄마 미소 장착
-  **홍피디** 오늘의 우리를 움직이는 건 결국 우리 개인의 소소한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소소하지만 소소하지 않은 우리의 개인사가 관객을 움직인다.



<비올라의 방 Viola's Room>

-  **여름 영국 사랑** 넓은 공간에 아름답게 펼쳐놓은 작품들 하나하나 모두 부러웠다.
-  **대학로 등대** 아직 <슬립 노 모어 Sleep No More>를 보지 못했지만 펀치드링크의 신작이 공연되고 있다고 해서 쾌적한 엘리자베스 라인을 타고 울리치(Woolich)까지 가서 보고 옴. 전날 단체로 관람한 <아가씨와 건달들 Guys and Dolls>과는 다른 형태의 이머시브 공연이었는데, 이런 작품들 덕분에 공연 문화를 즐기는 관객층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 반짝 희망등이 켜졌다.
-  **화염룡** 피디님들의 추천으로 함께 관람한 공연. 평소 공포영화를 무서워하는 성격으로 크게 긴장하고 본 공연이다. 시놉시스와 공연 정보를 모른 채 관람한 공연이라 크게 긴장하며 시작했으나 다양한 콘텐츠로 흥미로움을 준 공연이다. (스토리가 있는 이머시브라 무서울 때도 있었다.) 배우 없이 진행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었다. 해당 공연장 자체가 이머시브를 위해 지어진 공연장인 듯하다. 미니어처로 제작된 무대와 그림자 연기가 정말 훌륭했으며 진행되는 스토리에 맞게 구성된 방들은 디테일이 좋았다. 보는 재미가 있는 공연이었다.
-  **일을 기다리는 프로듀서** 펀치드링크 첫 경험. 너무 재밌다. 풀깃했다. 나 체험형 공연... 좋아했네?
-  **논현동 핑크팬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펀치드링크를 가보나.
-  **홍피디** 펀치드링크의 신작은 기회가 되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개념의 연극을 대중화하는 데 아이디어를 많이 주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이동형 공연의 음향 기술 구현이 정말 인상 깊었다. 내레이션 위주라 영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기 때문에 유사한 공연을 볼 예정이라면 내용을 사전 조사해 가기를 추천한다. 참고로 펀치드링크는 공연 시작 전 바(bar) 공간을 잘 만들어두는데 여기에 취해 시그니처 칵테일 같은 건 안 사는 게 좋다. 비싼 데 맛이 없다. 비싼 건 참아도 맛있는 건 못 참으니까.












<패딩턴 베어 익스피리언스 The Paddington Bear Experience>

-  **여름 영국 사랑** 귀여운 패딩턴 집에 초대받은 나는 아낌없이 돈을 썼다.




<분노의 포도 The Grapes of Wrath>

-  **이 카드 왜 안찍히지** 무대 위의 캠핑장, 홍수는 왜 이렇게 표현?
-  **논현동 핑크팬츠** 내셔널 시어터의 힘을 느낄 수 있었지만 길다 길어





<스피리티드 어웨이 Spirited Away>

-  **프로판크러1** 일본의 장인정신과 아날로그 감성의 결정체! 미야자키 하야오(Miyazaki Hayao) 콘텐츠의 힘이 만들어 낸 부러운 성공 신화.
-  **혜서원** '애니메이션 무대화'의 정석을 보여준 공연. 런던 한복판에서 일본어로 공연이라니 부러우면 지는 거다! (졌나?)
-  **여름 영국 사랑** 자막이 필요 없는 작품이라 무대에 펼쳐진 영화에 박수를.
-  **대학로 등대**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들이 느꼈을 그 아날로그하고 따스한 감성을 무대에 그대로 옮겨 놓아 감탄. 감동과 부러움이 공존!
-  **화염룡** 영국에서 본 최고의 공연. 일본 배우가 일본어로 공연을 진행하고 자막으로 관람해야 함에도 객석을 가득 채운 콘텐츠의 힘을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연극으로 구성해 무대, 인물, 음악, 의상, 소품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 오래전 기억을 되살려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작품에 몰입하고 있는 내가 있다. 애니메이션을 무대화한 작품 중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 한국에서도 공연을 한다면 큰 이슈와 함께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작품이다. 2,000석 규모의 객석이 가득 찬 모습이 참으로 부러웠다.
-  **프로판크러2** 원작의 브랜드에 기대지 않고 시어터 그 자체의 연출로 승부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지브리의 분위기와 일본의 장인정신이 만나 공들여 완성된 수작에 배가 아팠다.
-  **이 카드 왜 안찍히지** 현지화 필요 없다. 잘 만들면 된다.
-  **에잇** 2024년 웨스트엔드 최고의 작품
-  **일을 기다리는 프로듀서** 일본 좋아하지 않지만 인정. 웨스트엔드 중심에서 일본어 공연이라니 눈앞에 영상미 그대로 펼쳐지던 작품! 애니메이션 한 편 보고 나왔다. 솔직히 감동이다. 언젠가 우리도 한국어로 공연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겠지!
-  **논현동 핑크팬츠** 아시아의 힘,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  **홍피디** 아시아에서 뮤지컬로는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던가? 웨스트엔드처럼 거대한 시장이 요구하는 대자본 콘텐츠 시대에서 일본은 대자본과 해외 관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세계적 대인기 콘텐츠가 아주 많았다는 걸 잊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일본의 장인정신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제작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IP가 없다는 것이 취약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럽다.






<아가씨와 건달들 Guys and Dolls>

-  **혜서원** 여러 개의 사각 리프트를 다양하게 조합해 무대로 활용, 스태프들의 수려한 공연 진행 인상적임. 그러나 이머시브 공연은 체력이 가능할 때 도전하는 걸로!
-  **화염룡** 처음 관람한 이머시브 형태의 공연. 객석에 입장할 때부터 자유로운 분위기에 놀랐고 세트에 앉아 있는 배우들과 관객들의 모습이 새로웠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무대 공간 그리고 진행되는 스토리. 오래된 작품을 현대적으로 구성한 공연이란 점에 큰 점수를 주고 싶다. 다만 아쉬운 점은 관객들이 무대 공간을 피해 이동하고 다시 무대 공간을 채우는 식의 동선. 간혹 배우들과의 스킨십이 있기는 했지만 좀 더 관객과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홍피디** 이머시브 공연의 장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 공연 자체는 오래된 쇼가 그러하듯 뻘하고 단순하지만 공연의 연출과 테크닉이 멋있다. 이머시브 공연에 참여하는 관객의 흥을 깨지 않기 위해 안전 관리 스태프들까지 공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재미였다.



<스타라이트 익스프레스 Starlight Express>

-  **혜서원** 뮤지컬을 종합 엔터테인먼트로 확장한 공연. 엄마가 어렸을 때 봤던 작품이라며 아이 손 꼭 잡고 온 옆 좌석 가족이 기억에 남는다.
-  **여름 영국 사랑** 그 많은 인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했을까? 화려한 무대와 안무에 감탄했다.
-  **대학로 등대** 앤드류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의 작품인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공연되지 않았던 <스타라이트 익스프레스 Starlight Express>가 공연 중이란 사실만으로도 선택할 이유가 충분했다. 플라잉을 제외하고 무대 공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기술 효과를 만끽하고 옴.
-  **화염룡** 정말 화려하고 볼거리 많은 공연. 판타지가 가미된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 공연이다. 함께 관람했던 피디님의 말처럼 와이어 액션을 제외하고, 그간 알고 있던 모든 무대 기술이 활용된 공연. 어린이에게는 흥미로움과 신비로움을, 어른에게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공연이다. 물론 차를 좋아한다는 전제에서...


<하데스타운 Hadestown>

-  **헤서원** 오 마이 갓! 음악으로 세상을 구원할 오르페우스가 노래를 이렇게 못해도 되는 것인가!
-  **대학로 등대** 한국의 <하데스타운 Hadestown>과는 다른 무대 세트를 한번 보겠다는 생각만으로 선택. 보고 난 후 우리나라 뮤지컬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화염룡** 한국에서 못 봤던 작품이라 웨스트엔드에서 보고 싶었다. 시놉시스만 보고 들어갔지만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와 무대,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너무 좋았다.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워크숍 기간 중 들었던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녹아든 점이다. 처음 나의 시선을 끈 것은 한쪽 팔이 없는 여배우였다. 무대 위에서 한 명의 배우로 연기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멋지게 느껴지면서도 이를 당연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며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의 모습도 멋있게 느껴졌다. 장애가 있지만 배우로서 무대 위에 서는 것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며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여신으로 등장한 3명의 인물 중 남성으로 보이는 배우가 있었다. 능청스럽게 여신을 연기하는 모습에 이를 뒤늦게 눈치챈 관객들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젠더프리 공연을 진행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성을 바꾸는 형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은데 <하데스타운 Hadestown>에서는 여신의 역할을 남성이 맡아 중성적인 매력을 보여줘 이질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요즘 웨스트엔드의 키워드인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실제 무대에서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그리고 한국 무대와는 달리 실제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는 무대를 볼 수 있어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
-  **일을 기다리는 프로듀서** 와 나 이거 왜 이제 봤지! 한국 프로덕션 완전 궁금하다! 근데 오르페우스가 스윙인가? 생각했지만 메인 캐스트였는데 귀국 후 교체되었다는 소식이?!
-  **논현동 핑크팬츠** 기다려 줘. 내가 같게.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과 다른 감정을 느꼈다. 마지막 장면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카바레 CABARET at the Kit Kat Club>

-  **프로관객러2** <카바레 CABARET at the Kit Kat Club>야말로 혁신과 작품성, 인기를 동시에 거머쥔 리바이벌인 것 같다. 스타 배우가 브로드웨이로 떠나갔어도 이머시브 무대를 남겨 둔 킷캣클럽은 그 컨셉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선사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이기기 위해 라이브 엔터테인먼트가 택해야 할 다음 세대의 시어터.
-  **에잇** 객석 로비부터 미쳤다. 술 한 병 시켜놓고 봐야 할 뮤지컬!


<므네모닉 Mnemonic>

-  **이 카드 왜 안찍히지** NT를 너무 많이 봤나 봐.


BBC Proms


-  **헤서원** 임윤찬 티켓은 놓쳤지만 스탠딩이 가능한 클래식 공연 운영과 극장이 궁금해 방문.
-  **홍피디** BBC Proms 기간에 영국에 간다는 건 행운이다! 뮤지컬도 연극도 아닌 클래식 축제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은 보기를 추천한다. 왜냐하면 로열 앨버트 홀(Royal Albert Hall) 자체가 인상적인 건축물이고, 그 안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이다. 클래식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도 생맥주 한 잔과 함께 듣는 초청 아티스트의 연주는 충분한 휴식과 특별한 인사이트를 선사한다.

Theatre 503 신진 작가 10분 발표회


-  **년대체공연honey하키honey**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작가들에게 (사실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열려있는 발표 기회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10분의 발표였으나 마친 후 그들이 흘린 뜨거운 눈물과 멈추지 않던 관객의 박수가 인상 깊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나? 얼마만큼 열려 있나? 그들은 다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는 매 순간 버티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 무척이나 부러웠다.

<노트북 The Notebook>


 **쌍문동 돌리** 극 중 실제로 무대 위로 쏟아지는 비 장면으로 유명한데, 비와 함께 펼쳐지는 키스 장면에서 감정이 폭발한 듯한 연출로 관객석에서 기쁜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와 더 로맨틱하게 느껴졌다. 이런 한국에서도 가능한 연출일 듯하다. 한 배역을 3명이 나누어 연기하는 연출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 한국에서도 시도해 보면 좋을 듯하다.

 **우드사이드 이지블루스** 무대 위에 이 정도 비는 뿌려줘야 브로드웨이이지. 비 내리는 장면이 압권이었다. 현실과 꿈의 경계를 흐리며 사랑의 순간을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브로드웨이의 디테일을 제대로 느꼈다. 국내 무대에서도 이런 장면을 만날 날이 올까?


<라이프 앤 트러스트 Life and Trust>


 **다작핑** 얼마나 미쳐 있으면 이만큼 과몰입할 수 있을까. 강력한 컨셉에 잡아먹히지 않고 작품성을 유지하는 창작진에게 찬사를. 하지만 <슬립 노 모어 Sleep No More>를 보고 느낀 첫 충격은 어디에서도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구나.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 The Musical>


 **웰컴투더쇼** 명불허전. 역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라는 말이 나오는 화려한 무대 기술이 압권.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원작이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기 좋다.


<서프스 Suffs>

 **냉정이** 소재만큼 연출도 신선했다면 좋았을 텐데.


 **다작핑** 여성 참정권 운동, 그 이상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 구성과 음악의 완성도가 깔끔하지만 속도감이 빨라서인지 마음에 와닿는 감동은 기대보다 덜하다.


<아웃사이드어 The Outsiders>

 **별내저격수** 꼭 보세요. 조명과 연출이 신세계입니다. 전 시간만 있었으면 두 번 봤을 거예요.


 **다작핑** 내 인생 최고의 관극 경험. 보는 내내 온몸이 전율하고 며칠 내내 허덕이게 만든 작품. 한국에 들어오나요? 제발 누가 좀 들여주세요. 전 돈이 없어요.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


 **우드사이드 이지블루스** 뉴욕에서 만난 한국의 이 사랑스런 이야기에는 삶에 대한 성찰과 섬세한 디테일이 가득했다. 단순히 문화적 교류를 넘어 한국 뮤지컬이 보여줄 수 있는 독창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세계 무대에 전하는 작품. 이런 한국적 정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냉정이** 어쩔 수 없이 화려해진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이 다소 낯설었으나 좋은 이야기는 여전히 빛을 발한다.

<워터 포 엘리펀트 Water for Elephants>


 **혜화동 보살님** 가성비로 멋진 퍼포먼스를 만들어 버린 훌륭한 작품. 진부한 스토리지만 역시 브로드웨이이다.

 **냉정이** 쉽게 공연하기 어려운 종합예술 작품.


 **다작핑** 역시 사랑은 가장 유치하고도 위대한 것. 떨리는 이 마음이 공중극에 하는 배우들 때문인지 아름다운 사랑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쌍문동 돌리** 주인공 제이콥의 젊은 시절과 중년의 모습을 각각 다른 배우가 연기해 제이콥의 삶과 그가 겪은 사랑, 고통, 희생을 다각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서커스와 아크로바틱 요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서커스 경험이 없는 배우들도 이 공연을 위해 집중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연기와 퍼포먼스의 조합이 환상적이었다. 한국에도 이런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들이 있으면 좋겠다!

<위 리브 인 카이로 We Live in Cairo>


 **다작핑** 아랍인의 얼굴로 아랍인의 이야기를 하지만 지켜보는 한국인의 피가 뜨거워짐. 완성도는 아직 서툴지만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작품.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우드사이드 이지블루스** 브로드웨이에서 신춘수 프로듀서가 한국 뮤지컬의 위상을 이토록 빛낼 줄이야. 감각적인 연출과 완성도 높은 무대는 개츠비의 꿈처럼 눈부시지만 동시에 파괴적이다. 그야말로 브로드웨이의 매력과 한국의 저력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작품.


 **혜화동 보살님** 한국인의 위대함을 보았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통쾌하고 짜릿했다. 딱 너희 미국인들 관객 수준이다!

<카바레 CABARET at the Kit Kat Club>


 **웰컴투더쇼** 나 지금 킷 킷 클럽에 와 있는 걸지도?

<해밀턴 Hamilton>


 **쌍문동 돌리** 노래와 연기, 퍼포먼스가 예술이다! 제작비가 많이 안 들 것 같아 한국에 오면 좋을 듯한데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되면 그 맛이 살지 않을 것 같아 아쉽다. 그냥 원어로 들어오면 안 될까? 해밀턴이 자신의 잘못을 아내에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인간적인 면은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또한 해밀턴 역을 흑인 배우가 맡아 그 자체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며, 미국 역사와 인종,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현대 뮤지컬의 걸작이다.


 **혜화동 보살님** 조금 촌스럽지만 작품은 최고!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장기적인 브로드웨이 기획 개발 환경이 부럽다.


<스테레오포닉스 Stereophonics>


 **혜화동 보살님** 좋은 작품인 줄은 알겠는데 넘 길다. 연극인데 3시간 10분. 그래서 브로드웨이인가?


<헬스 키친 Hell's Kitchen>

 **웰컴투더쇼** (스포일러인데 해도 될까요?) 뉴욕~~

 **우드사이드 이지블루스** 가수 앨리샤 키스(Alicia Keys)가 직접 작곡한 곡 하나하나가 주옥같다. 앨리샤 키스만의 감성이 뉴욕의 거리와 사람들 이야기에 완벽하게 녹아든 순간, 그 매혹적인 사운드가 오래도록 귓가에 맴돈다.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고급 이어폰을 끼고 팝 음악을 듣는 듯한 신선한 음향 디자인! 직접 와서 들어보시라.

 **다작핑** 들으면 다 알 법한 노래들로 흥이 주체가 안 되지만 주변 관객 흥이 더 세서 기죽음. 내용은 사소하지만 배우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서 압도됨. 이런 소울을 살릴 수 있는 배우가 국내에 얼마나 있을까?

 **냉정이** 앨리샤 키스(Alicia Keys)의 강력한 히트곡이 이야기의 단조로움을 잘 뒀었다.

 **쌍문동 돌리** 화려한 도시 뉴욕에서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울풀한 앨리샤 키스(Alicia Keys)의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스토리는 단순하고 공연 내내 노래가 계속 나와 살짝 지루할 수 있지만 음악과 연출이 좋아 관객에게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한국에도 주크박스 뮤지컬이 많지만 브로드웨이의 세련된 화려함이 묻어나 부러웠다.

2024 뮤지컬 전문 프로듀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결과보고 자료집

집필자 권보라, 김민정, 김민형, 김소희, 김아름, 김정인, 서윤미, 성재준,
이성모, 이예지, 최종혁, 홍지원, 고하나, 유인수, 이윤희, 이응규,
조기쁨, 조윤지, 추은지

구성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 공연유통팀

공간협조  뉴욕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NY

디자인·편집 프럼에이

발행처  예술경영지원센터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12층
02-708-2273 / www.gokams.or.kr